

제 108회 총회주제해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출 15:26, 사 53:4-5, 살전 5:23)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출 15 : 26, 사 53 : 4-5, 살전 5 : 23)

지금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종말적 현상은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 지난날의 상처로 인해 우리 모두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다(딤후 3:1-5).

우리의 상처가 치유 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지난날의 상처의 감정들을 다 쏟아붓고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함으로 어떠한 원수라도 용서의 마음으로 대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어떠한 원수라도 용서해야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엡 4 : 31-32, 마 6 : 14-15, 18 : 22, 35).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 : 31-32).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 : 14-1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 18 : 22, 35).

둘째, 우리의 가정이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령 충만한 가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엡 5 : 22)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엡 5 : 25)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엡 6 : 1-3)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치유하고 신앙으로 양육하는(엡 6 : 4) 성경적 가정이 되어야 우리의 불행했던 가정이 진정으로 치유를 받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회복하게 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엡 5 : 22, 25).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 : 1-3).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 : 4).

셋째, 우리의 교회가 불화와 분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 이유는 주의 종이나 교인들이 영적 교만과 사적 감정과 이해관계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교회가 치유 받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게 된다(엡 4 : 1-6).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 4 : 1-6).

넷째, 우리나라에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 간, 계층 간, 이념 간, 세대 간, 성별 간의 너무도 극심한 대립과 분쟁 가운데 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나라도 치유 받고, 하나가 되어 계속해서 복되고 형통하게 번영할 것이다(수 1 : 7, 갈 4 : 3-5).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수 1 : 7).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교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 4 : 3-5).

다섯째, 우리 민족은 분단과 대립 가운데 대치 중이다.

우리는 한 동족인데 무엇 때문에 휴전선이란 장벽을 쌓고 오랜 세월을 이렇게 대치된 상태에서 지내야 한단 말인가?(출 32 : 32, 롬 9 : 1-3) 남과 북이 용서와 화합을 통해 지난날의 원한이 치유 받고 이제라도 서로를 향한 총부리를 거둬서 평화교류와 복음 통일을 이루어 하나된 힘으로 열방을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임 받아야 할 것이다(사 2 : 4, 행 1 : 8).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출 32 : 32).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 : 1-3).

여섯째, 민족과 민족 간에도 침략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였다(창 1:26-27). 인류는 민족도 하나였고(창 10:1-32) 언어도 하나였다(창 11:1). 그러나 인간의 범죄(창 9:20-27)와 영적 교만(창 11:3-9)은 결국 모든 민족의 분열과 언어의 혼돈을 야기하고 말았다. 이렇게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다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심판하실 수 있다(벧후 3:9-13). 그러므로 어떠한 인종이나 언어도 성령을 통해 치유 받고 하나됨을 체험하게 될 때 땅 끝까지 이르는 선교의 도구가 될 것이다(행 2:1-13, 갈 3:28).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1-4).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

일곱째, 인류의 과학문명의 이기(利己)는 결국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고 말았다.

탄소가스의 무리한 방출은 오존층의 파괴를 가져왔고 그 결과 기상이변으로 엄청난 가뭄과 기근, 폭설과 폭염, 태풍과 홍수, 쓰나미와 지진 등의 비극적인 자연재해를 자초하게 되었다. 이제라도 인간이 생태계의 치유에 힘쓰지 않으면 자연은 점점 더 황폐화되고 인류의 고통은 가중되며 지구의 종

말은 점점 더 압박해질 것이다(롬 1: 20-23, 8: 21-22).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 1: 20-23).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롬 8: 21-22).

이처럼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을 찾아 보기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바로 ‘치유’(Healing)이다. 우리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서로 화해하고 교회도 뜨겁게 지난날의 부흥을 회복하며 우리 사회와 민족과 열방과 생태계까지 치유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제108회 총회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로 정하게 된 것이다.

2023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김의식 목사



차 례

권두언(총회장 김의식 목사) _3

제1부 주제해설

주제해설 :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곽재욱 목사) _14

주제성구해설 : 출애굽기 15 : 26, 이사야 53 : 4~5, 데살로니가전서 5 : 23
(홍정근 목사) _33

제2부 치유에 대한 신학적 이해

1장.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치유사역 : 강성열 교수 _52

2장. 신약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사역 : 정덕희 교수 _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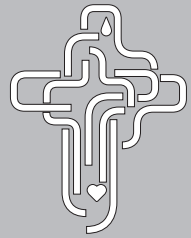
3장. 개혁신교회의 신학과 전통에서 살펴본 치유 : 최윤배 교수 _81

제3부 치유에 대한 목회적 이해

- 1장. 개인 마음의 시대와 치유 사역 : 김대동 목사 _100
- 2장. 가정 “주여, 가정을 치유하게 하소서!” : 이상억 교수 _119
- 3장. 교회 예수님의 치유에서 본 접촉치유의 사회관계적 의미 : 김중호 교수 _138
- 4장. 사회 사회치유에 대한 목회적 이해와 접근 : 김형석 목사 _156
- 5장. 민족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 : 정병준 교수 _174
- 6장. 열방 “주여, 열방을 치유하소서!” : 조용선 목사 _193
- 7장. 생태계 신음하는 피조물의 치유 : 배현주 교수 _205

제4부 설교

- 1장.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출 15:26) : 안맹환 목사 _224
- 2장. 평강의 하나님(살전 5:23) : 이정원 목사 _238



제1부

주제해설

1. 주제해설:곽재욱 목사
2. 주제성구해설:홍정근 목사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출 15 : 26, 사 53 : 4-5, 살전 5 : 23)

곽재욱 목사(주제연구위원장 : 서울서노회)

I. 머리말 : 영적 치유를 향하여

제108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올해의 총회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로 정했다. 총회는 각 회기의 주제를 정하기 전에 먼저 4년간의 범주 주제를 결정하고 그 범주 안에서 각 회기들의 주제를 다듬는 것으로 구조화한다. 그러므로 제108회기의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는 지난 제104회기부터 제107회기까지 4년 범주 주제였던 ‘복음’을 마치고 새롭게 시작되는 4년 범주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의 첫 해 주제이다.

이 주제는 오늘 목회의 현장이자 대상인 교회와 사회가 질병이환(疾病罹患) 상태라는 진단을 근거로 한다.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공동체는 영·혼·육의 심각한 손상과 감염으로 인해 더이상 치유를 지체할 수 없는 응

급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이 주제는 교회와 목회자가 치유의 주체이기 이전에 받아야 할 객체요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치유의 완전하고 근원적 주체이심이라는 신앙고백이다. 병원의 의사와 상담 치유 전문가들, 목사와 은사 치유자들도 모두 본래적이고 궁극적인 의미로서 치유의 주체일 수는 없다. 모든 현대 의학과 의술도 하나님께서 이미 제정하신 치유의 원리와 병자들에게 내려 주시는 회복 의지와 능력을 근거로 한 것일 뿐이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치유의 원리와 병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연적, 초자연적 회복의 은혜를 따라 각각의 분야들 안에서 치유 사역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치유의 대상이며 객체이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중립적이며 자율적인 개인과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주제를 제시한 총회의 우선적 과제는 교단 소속 교회들에게 개혁신학의 전통에 근거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치유신학을 제시하는 일이다. 총회는 이 주제를 통하여 치유에 대한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점검하고, 성경말씀과 교단의 개혁신학 정체성에 입각한 치유신학을 제시함으로써 목회자들이 치유자로서 자아의식을 확립하고 치유목회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 교단 교회들 가운데 치유에 관한 다양한 이해들과 실천들이 소개되었으나 교회마다 혹은 목회자마다 그 이해와 접근, 강조점의 차이가 심해서 교단의 정통성에 입각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치유신학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이 주제는 교회와 목회자가 영적 치유자임을 선포한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영적 치유자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치유와 회복의 원리에 따라 의사가 몸

을 치료하고 상담 치료자가 마음을 고치듯이 교회는 ‘영·혼·육’을 함께 치유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 치유는 의사와 심리치유자의 치유보다 인간 존재의 더 깊은 심층에 닿아 영·혼·육의 모든 차원들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삼는다. 교회의 영적 치유의 영역은 내적 영역과 외적 영역 두 범위로 나누어진다. 내적 영역에서, 목회자의 치유는 우선 교회의 회중들을 향한다. 그러나 목회자와 교회의 치유는 교회의 울타리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인간 삶의 전 분야들로 확대된다.

오늘날 개혁교회의 목회에서 치유신학과 실천에 혼란이 야기된 두 가지 신학적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편협성에 기인한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론이 헬라문화 속에 정착하면서 교리 중심적인 구원론에 먼저 관심을 두며 치중하게 되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의 총결산이라 할 수 있는 “신앙고백서”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구원론 가운데 치유의 의미와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애초에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론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영·혼·육’의 치유에 이르는 풍성한 해석이 적용되었더라면 교회의 치유 사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적극적일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개혁교회의 목회에서 치유 실천이 약화된 원인은 치유를 목회 실천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은 20세기 미국의 오순절 교회의 존재와 그 영향에 대한 비판과 부정으로 개혁교회가 자신을 그 일방적 대척점에 세운 것에 기인한다. 20세기 한 세기 동안 오순절 교회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치유신학과 그 실천을 통하여 급성장하는 동안, ‘고 교회’(high-church) 전통에 익숙한 개혁교회는 오순절 신앙을 낮설고 부적절한 것으로만 여겨 왔다. 물론 그와 같은 치유일변도의 신앙과 실천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뒤따르기도 했다. 그러한 비판 중에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것은 치유의 기복신앙 기능에 대한 비판이었다. 즉, 치유신학은 건

강, 물질적 보상, 그리고 성공 일변도의 현세적 기복신앙으로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의 희생을 도외시하고 세상 성공에 치우치는 저급하고 안이한 종교 행태라는 비판이었다.

메이저 리그에 속하는 현대 의학과 상담 치유와 비교해 볼 때, 오순절의 치유행위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마이너 리그의 신앙이라는 인식이 그러한 비판에 연료를 제공하였다. 지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한국의 개혁신교회를 중심으로 한 오순절-신비주의 치유를 지양하고 찾았던 대안은 심리-상담 치유였다. 20세기 말의 30년에서 21세기 새로운 10년에 이르는 동안 심리-상담 치유는 개혁신교회들의 오순절-신비주의 치유에 대한 확고한 대안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동안 ‘치유’는 곧 ‘치유 상담’과 같은 의미로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략 2010년에 이르러 트로피의 주인공은 상업성을 앞세운 텔레비전 매체들에게로 돌아간 듯했다. 이 매체들은 트로피를 수여하고 수여받는 일에 선수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대중매체의 전문성과 상업성을 따라갈 수 없었다. 교회의 치유 목회는 세상에서 교회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점점 더 그 운신의 폭이 좁아져 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들 중의 한 부분으로 게토화(ghettoize)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주제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총회의 또 하나의 목표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개혁신통에 근거한 치유된 인간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행정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목회의 본연의 모습인 치유와 회복으로의 목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돕는 일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하여 치유 목회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 주신 모범과 가르침에 일치하는 것임을 확신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 개혁신교회들이 개혁신앙의 전통을 지나치게 문자적

이고 율법적으로 수용하여 목회자들이 치유 목회와 의식적으로 거리를 떼게 하였음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능동성과 목회자의 활력이 약화되게 한 하나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음을 반성하였다. 즉, 그동안 한국 개혁신교회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가운데 명확하게 나타나는 치유를 목회의 본령으로 삼지 못한 채, 한편으로 의술과 의학의 전문영역에 넘겨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단들 가운데 오순절 교단의 치유 신앙의 전유물로 넘겨주어 버렸다는 반성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기의 첫 10년까지 치유목회의 강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던 상담 치유 분야까지 세상의 전문성과 대중 상업성에 밀려 그 영향력이 갈수록 축소되어 목회의 역동성 자체가 약화되기에 이르렀다는 인식이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는 교회의 치유가 세상의 의술이나 심리 상담 같은 것들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교회 고유의 치유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과 교회가 그 치유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치유는 근본적으로 영의 치유이다. 신약성경에서 나타나는 ‘프뉴마’(영)는 몸 혹은 신체로 번역되는 ‘사르크스’, 또한 정신 혹은 혼으로 번역되는 ‘프쉬케’와 엄밀하게 구분된다. 육이 혼을 포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혼과 육은 영을 포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육’을 고친다고 해서 ‘혼’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며, ‘육’과 ‘혼’을 고친다고 해서 ‘영’을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영은 혼과 육의 사령탑이며 혼과 육을 포괄한다. 혼을 고치면 육이 고쳐지는 것처럼, 영을 고치면 혼과 몸이 함께 고침을 받는다. 이 ‘영의 고침’은 ‘교회와 목회’에 속한 것이다. 첨단 의술과 기기들, 그리고 첨단 신약을 모두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모든 심리 치유의 기술들을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영의 치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와 목회자의 치유는 세상의 그 어떤 치유들보다 치유의 궁극적 의미와 본질적 가치,

그리고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교회와 목회자의 영의 치유는 완전하신 치유자, 궁극적 치유자이신 ‘여호와 라파’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반영하는 치유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영의 치유에 근거하여 의학과 상담학의 한계를 떼우고 그 모든 치유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II. 치유, 해방, 구원과 축복

1. 영·혼·육의 인간

신약성경은 사람을 가리켜 ‘영과 육’의 두 요소, 혹은 ‘영·혼·육’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르친다. 여기서 ‘두’ 혹은 ‘세’ 요소들은 별개의 것이 아닌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사람은 이 세 가지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는 통합적 존재이다. 즉, 영이나 혼이나 육의 어느 한 요소, 혹은 차원이 인간의 본질이 아니고 그 둘, 혹은 셋이 합하여질 때 비로소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그 범위, 영향력, 혹은 위계에 있어서 혼은 육을 지휘하고 영은 혼과 육을 지휘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영적 존재이다. 그 질서에 있어서 ‘육’ 위에 ‘혼’이, ‘혼’ 위에 ‘영’이 있다. 그러므로 영은 혼과 육의 사령관이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육의 지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 오히려 영혼의 구원은 육의 구원으로 완성된다. 육의 구원은 구원의 최종적 단계이다. 현실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다시 살았으나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몸이 다시 사는 영생을 향하여 가는 도상의 실존이다.

그러므로 영의 부활의 완성은 육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 가운데 성부와 성령의 존재와 역사(役事)를 함께 만나고 체험한다. 로마서 8:18~23에는 ‘구원받은 영은 몸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린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몸의 구원(the redemption of body)은 영과 혼의 구원에 있어서의 최종적이고 완성적 단계인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라고 마지막 육의 구원을 고백하고 있다.

이 완성적 구원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단어가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자연계의 모든 존재와 모든 열방을 포함하고 ‘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 피조물은 현재 탄식하고 있다. 우리의 영은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현실을 살아간다. 그 모든 신음을 극복하고 육신의 고통을 해결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만남으로써 나의 건강은 완성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치유 묵회는 의술과 다르다. 아픔이 제거되고 질병으로부터 건강이 회복되는 현상이 병원의 치료와 같은 것으로 나타날지라도 묵회적 치유는 그 건강의 회복과 함께 구원의 뚜렷한 증표이며 완성을 나타내고 지향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 묵회자들도 병원의 의술에 의존한다. 다른 여러 분야들과 함께 한국의 의술은 놀라운 수준에 도달해 있다. 위암수술, 신체접합, 장기이식, 의료시스템 등 의료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세계 최고라고 평가된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의료적 치료의 혜택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치유는 일반 치료와는 다른 영적 치유라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인간은 ‘사이코-소매틱(psychosomatic)한 존재’이다. 이것은 현대 의술과 의사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즉, 인간의 몸(소마)과 인간의 심리(프쉬케)는

별개로 구분될 수 없는 것이어서 수술과 같은 외과적 의료처치에 있어서도 환자, 의사, 간호사, 가족들의 마음의 상태는 환자의 치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프뉴마’(영)는 ‘프쉬케’(마음)가 ‘소마’(몸)를 지휘하고 지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니 그보다 더 깊고, 본질적이고, 초월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몸과 혼을 다스리고 치유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계적이거나 자동적인, 혹은 강제적 다스림이 아니다. 영이 인간의 몸과 혼을 다스리는 것은 해산의 고통(쉬노디데이)을 동반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롬 8 : 22).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구원’은 영의 구원의 최종적 목표가 된다. 치유는 영의 최종적 역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잠정적 존재이다. 교회는 완전한 구원을 향한 고통과 연단으로 탄식하고, 다른 한편 그 완전한 몸의 치유를 고대하며 증언하는 중도적 존재이다.

2. 치유, 해방, 구원, 축복

치유의 진정한 위치와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치유와 함께 구원, 해방, 축복의 의미에 대한 관련성을 논구(論究)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18-23에서 치유, 해방, 구원의 관련과 그 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유가 신체와 정신에 관련한 것이라면, 해방은 정치-사회적 관련으로, 그리고 구원은 종교 신앙적 관련으로 읽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약성경 가운데 치유와 해방, 그리고 구원은 분명하게 구분되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내적이고 유기적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풍병자와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 열 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말씀들에서 치유와 구원은 함께 언급되지만 또한 엄밀하게 구분되고 있다. 중풍병자와 베데스다의 환자는 치유 받은 후에 별도로 구원이 선포되었으며, 깨끗함을 받은 열 명의 나병환자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선포되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는 말씀과 같이 ‘자유’와 ‘해방’ 역시 구원과 같거나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구원의 출발점인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과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로서의 ‘가나안 입지’와는 지리적,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듯이, 해방과 구원 역시 이어짐과 나누어짐의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질병으로부터의 치유와 신체적, 정치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귀결하고 포괄하는 종교적 개념으로서의 구원은 ‘은혜’와 ‘축복’이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축복은 세상적 기복신앙이 추구하는 축복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앞서서 언급한 치유와 해방과 구원의 세 가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총괄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축복이 몸의 건강과 물질적 부의 조건적, 부분적 부분일 수는 있으나 전체적, 궁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이다. 세상적 기복은 부분일 수는 있으나 전체는 아니고, 주변일 수는 있으나 중심일 수는 없다. 예수님의 말씀의 집약인 산상수훈은 건강이나 물질 같은 것을 포기하고 상실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의와 평안과 만족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참된 축복임을 가르치고 있다. 즉, 구원에는 치유가 포함되나 모든 치유가 구원인 것은 아니다. 치유는 구원을 나타내는 증표이기도 하지만 참된 구원을 가리고 왜곡하기도 한다.

Ⅲ. 간병인(看病人/間病人)으로서의 교회와 목회자

누가복음 5:17~26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사를 기록하면서 치유하시는 주님과 치유함을 받는 병자 사이에 있는 중간적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들은 한편 치유함을 받는 병자에 소속되고 다른 한편 예수님의 치유의 매개적 도구로 나타난다. 누가는 이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이 이야기를 의사인 자신의 관점으로 다시 보았다. 앞선 복음서들과 비교하여 누가복음에 추가된 본문에서는 중간적 존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네 명의 친구들은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기를 원하였으나 그들 앞에서 그들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러한 장애물이 그들의 치유 의지를 막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군중을 지나고, 지붕으로 올라가, 천장을 뚫고, 밧줄을 달아 그 병상을 예수님께 내렸다. 병자의 치유를 향한 그들의 의지는 확고하였고 그 모든 노력들은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들은 궁극적 치유자는 아니다.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그와 친구들의 죄를 사하셨다. 그들의 가장 적극적인 치유 행위는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병자를 데려간 것으로 나타난다.

2023년 6월 16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한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고(故) 주석중 교수의 연구실 벽 한쪽에 붙어 있던 영문 자필 기도문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 (그러나 실제 치유의 과정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

는 것이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의사 누가, 네 명의 친구들, 아산병원의 고(故) 주석중 교수는 자신을 예수님과 그 병자 사이에 있는 중개적 존재로 인식하였다. 우리는 그들을 간병인(看病人)이라 쓰고 간병인(間病人)이라고 읽는다. 간병인은 치유의 근원이신 주님과 병자 사이에, 그리고 치유의 대상인 병자와 병자 사이에 있는 간병인(間病人)이다. 그는 질병이라는 대상을 놓고 치유자와 병자, 병자와 병자 사이에 개입한다.

이것은 치유자로서의 우리의 가장 분명한 현실자각이다. 우리의 치유사역은 이 현실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나 자신도 한 사람의 병자이며 치유 받아야 되는 대상임을 고백해야 한다. 완전하고 궁극적인 치유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한편 우리 자신이 치유를 받으면서, 다른 한편 치유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최종적 치유자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병자의 병상을 들고 진정한 치유자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교회는 완전을 향하여 가는 도상(途上)의 잠정적 존재이며 목회자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타인의 아픔을 돌보는 조건적 사역자들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회자의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과 헌신이다.

치유의 이러한 자각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자학적 자괴감을 극복하고 치유에 헌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치유자로서의 사명감을 약화시키고 그 실천을 회피하는 핑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이라고 해서 질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병든 의사도 다른 환자를 치료한다. 심지어 병을 앓아 본 병력이 있거나 현재 그 병을 앓고 있다는 사

실이 명의(名醫)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의 질병을 핑계로 자신의 직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치유자로서의 진정한 간병인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양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치유를 통해 질병으로부터 몸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회복된 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복된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건강 그 자체보다 더욱 중요하다. 우리의 몸은 단순히 질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간병인으로서의 교회는 보다 완전한 치유자가 되기 위한 갱신을 계속해야 한다. 교회의 갱신이 치유를 회피하는 변명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의 치유가 갱신을 회피하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IV. 치유신학, 치유목회

우리는 치유신학, 치유목회가 한국교회의 모체 역할을 해 온 우리 교단의 정통성과 가르침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가 현재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의 역사적 소명과 어떻게 연결되고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서 적절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작업을 해야 한다.

우리 교단의 성서신학자들 속에 신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치유의 전체적 조망을 개혁신앙의 틀 안에서 명확하고 안정감 있게 제안할 수 있는 두 명의 교수에게서 들었다. 한 사람은 관록의 교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신예였다. 강성열 교수(호남신학대학교)에게서는 구약의 치유를, 정덕희 교수(한남

대학교)에게서는 신약의 치유를 들었다. 강성열 교수는 관심의 폭이 넓고 연구의 깊이가 깊은 관록의 교수이다. 그는 넓은 스펙트럼 구약성서 개론에서부터 최근의 농어촌, 생태, IT에 망라하는 수십 권에 이르는 저서를 썼다. 정덕희 교수는 미국 드루 대학에서 석사를, 그리고 영국 쉬필드 대학교(The 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연구한 신약학 분야의 신진 교수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선교사였고 의사였다. 그는 사도 바울의 최후까지 함께하며 그의 몸을 돌보았던 영적 치유자였다. 그는 의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치유의 관점에서 사도들과 교회의 행적들을 살폈다. 정덕희 교수는 바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치유를 연구의 중심으로 삼은, 이 주제의 연구를 위해 우리 교단이 미리 예비해 둔 학자라고 볼 수 있다.

조직신학자 최윤배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은퇴교수)는 자신의 치유 체험에 근거하여 치유 이론을 설명하였다. 이론신학과 실천신학의 혼합이라고 밝힌 그의 글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공헌은 마르틴 부처와 칼뱅에서 시작하여 트루나이젠(Eduard Thurneysen)의 현대 신학에 이르기까지 개혁신학의 전통 가운데 치유의 위치를 확고히 드러냈다는 데 있다. 그것은 개혁신학의 전통 가운데 치유신학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이와 같이 제108회기 주제해설은 성서적, 신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각 영역에 따른 치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치유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치유신학과 신앙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한 제시가 필요하다.

1. 오순절 신앙과 개혁교회의 치유

‘한국교회는 모든 교단을 망라해서 교회 직제는 장로교회요, 그 신앙은

오순절교회’라는 말이 있다. 오순절 신앙은 그 기원과 발전 과정에서 치유의 신학과 신앙을 목회 실천의 중심에 뒀으로써 다른 교단, 특히 장로교회와의 차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가 치유를 총회의 주제로 삼는 이때, 개혁신학 전통에 근거해서 치유신학과 치유목회의 의미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우리를 포기하고 오순절 신앙으로 기울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비판에 대한 명료한 대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오순절 교회의 예배가 개혁교회의 ‘예전(例典)예배’를 퇴락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오순절 예배가 치유 중심의 집회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개혁교회의 치유 예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오순절 예배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근본 의미를 인본주의적 치유로 변질시키는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예전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그러나 교단 간의 반감과는 별도로 예전 예배를 반(反) 치유적이라고 단정하여 치유집회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선부론 결론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함께 우리를 향한 구원, 사죄, 치유, 회복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예배의 통전성을 흐트리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2. 치유 상담학과 개혁교회의 치유신학과 실천의 관계

우리는 치유 상담학의 이론과 실천이 신학교육과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정신분석학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S. Freud)에 의하여 창시되었다. 그는 그 이전에는 과학 영역에 속하지 않았던, 교회의 전유물이었던 ‘프쉬케’를 이론화, 학문화하였다. ‘심리학’을 뜻하는 ‘싸이콜로지’(psychology)는 ‘혼’으로 번역되는 ‘프쉬케’(psyche)와 학문으로 번역되는 ‘로고스’(logos)의 합성이다. 프로이트는 그

의 정신분석학에서 ‘이드’(id)의 존재를 학문적으로 설정하고 그 치유법을 제안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기원한 ‘치유’(therapy) 이론은 그의 정신분석학의 제안들에 근거하여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그 가운데 여러 사상과 실천들이 교회의 상담 치료, 혹은 심리 치료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물론 심리-상담치료 사상은 프로이트의 사상과 실천에 대한 많은 비판과 수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지만, 치유의 기본 구조는 흔들림 없이 프로이트가 제시했던 사상에 견고하게 기초하고 있다. 즉, 인간의 많은 심리적, 육체적 질병들은 과거의 억압과 상처가 무의식에 축적된 결과이고, 그 무의식을 다시 의식의 단계로 가져와서 합리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기본 구조이다. 우리는 이러한 치유 이론들이 교회의 치유에 여과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개혁신학 전통에 입각해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상담치유에 대한 인문학적 발전이 신앙적 치유에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교단적인 이해와 판단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회의 심리-상담치유는 세속 세계의 상담 치유의 상업성과 전문성의 발전으로 인해 심각한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오늘날 텔레비전과 ‘유튜브’(YouTube) 등 대중 매체에서 상담치료는 전성기를 맞고 있다. 부부관계, 자녀양육, 심지어 애완견 보살핌에 이르기까지 상업성을 동반한 대중 매체의 치유 홍보는 교회의 상담 치유를 압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쪽같은 내 새끼’ 같은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오은영 신드롬’은 교회의 치유사역을 거의 함몰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20세기 말과 2010년에 이르는 동안 치유의 이론과 실천에서 치유의 확고한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자리를 잡았던 한국교회의 상담치유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빠르게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다. 2012년 SBS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는 공중파 매체

를 동원한 전문상담이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문을 연 계기가 되었다. 그 앞에 1999~2009년 KBS2의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의 주된 내용은 부부의 갈등과 이혼 문제라는 전통적 인식의 가정문제를 넘어서 ‘자녀 양육’이라는 새로운 관심으로 확장되기도 했다. 2020년 이후 조명을 받고 있는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 거듭 확인되는 ‘오은영 신드롬’에서부터 심지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는 훌륭하다’와 같이 반려견 상담까지에 이르는, 상담과 치유의 영역에서 세상의 전문성과 확장성을 교회가 따라잡는 데는 한계가 있는 듯이 보인다.

그와 함께 현재 교회 내 상담 치유의 서로 다른 이해들과 실천들 자체가 치유목회 약화의 한 원인임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총회는 그 혼란들 가운데 교회와 목회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론과 실천들을 정리하고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이론들과 접근들에 대한 총회의 이해와 입장을 제시해주는 것만으로도 교회의 상담목회는 상당한 정당성을 얻고 활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 다양성을 혼란으로 여기고, 그 혼란이 목회자들로 하여금 치유목회를 효과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상담치유 목회를 위한 총회의 교과서가 제작된다면 치유목회를 회복하기 위한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에 대해서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Clinebell)의 전인적 통전성(unifying and wholeness)의 접근은 교회의 상담치유에 대한 이견들을 조정하고 하나의 모델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클라인벨의 전인적 통전성은 총회가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통합적이고 원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3. 21세기 대변동과 치유

21세기 인류는 대변동(the Upheaval)을 겪고 있다. 21세기 포스트모더니

즘의 인간론, 예를 들어서 ‘호모 데우스(homo deus)의 인간’의 관점에서 치유는 무엇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유한한 육신의 죽음이 영생의 씨앗이요, 부분이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인간 자아와 존재의 근본을 신호와 정보로 인식하여 몸에 속한 인간의 제한으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하는 호모 데우스의 인간구원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총회는 이 초기술 사회의 도전에 대하여 교회와 목회의 뚜렷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유발 하라리(Yuval N. Harari)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새로운 기술들이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들 사이에서 우리는 ‘무용인간’(無用人間)이 되었다는 것이다. 인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설명하고 추구하는 세상은 치유 자체에 대하여 ‘인간에게 치유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오늘날 과학에 의하여 인간의 가치는 퇴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 가치가 의문시되었다. 인간의 유기 생명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 자리를 무기 생명체가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인간의 신체 자체의 의미가 모호해졌다는 것은 치유의 의미도 퇴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기체 인간에게서 치유란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준비하지 않는 사이에 교회는 의료 기술과 기기, 첨단 신약에 의한 치유의 계토에 갇히는 것을 넘어서서 치유목회 자체의 가치와 의미가 가스실에 들어가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V. 맺음말 : 예배와 치유

교회의 치유 목회의 근거는 궁극적이고 완전한 치유자이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교회의 치유의 본질은 몸의 치유와 혼의 치유를 넘어서 영

의 치유이다. 영의 치유는 몸과 정신의 치유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의 치유는 병원의 치료와 심리 치료를 넘어서서 교회만이 제시할 수 있는 독자적 치유의 영역이다.

또한 영의 치유는 혼과 육의 치유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영의 치유의 마지막 완성은 몸의 치유로 나타난다. 총회의 주제가 제안하는 치유의 기치는 한국교회 내부의 개인의 치유, 몸의 치유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치유, 이 시대의 치유로 확장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시기에 치유의 주체의 위치에 서 있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교회는 질병의 근원 및 매개자로 인식, 분류되어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로 이어지는 국가와 사회의 위기 국면 속에서도 교회는 연합하여 사회의 치유자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수동적인 객체의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

우리는 이 상처 입은 시대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 땅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상처 입은 몸과 영혼, 그 가족 및 관련자들, 나아가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사회와 이 시대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회이어야 한다. 의사가 수술 전에 기구와 약물을 챙기듯이 오늘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기술과 경험, 도구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치유의 주제는 관념과 선언의 수준에 그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과 기도, 그리고 예배이다. 그런 의미에서 108회기 총회주제는 제 107회기의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의 주제와 연속성 가운데 있다.

예배와 기도가 교회와 목회의 현장에서 치유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히 현장에서 거듭 체험되고 확인되는 현실이다.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목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치유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지금도 치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치유만큼 분명히 드러내 주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와 목회의 현장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목회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치유이다. 아파하는 이 시대, 이 사회에 대하여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로, 목회자는 치유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Howard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Abingdon Press, Nashville, 2011.

하워드 클라인벨, 『현대성장상담요법』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0.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 서울 : 김영사, 2020.

제레드 다이아몬드, 『대변동』 서울 : 김영사, 2019.

유발 하라리 외 7인, 『초예측』 서울 : 웅진지식하우스, 2019.

출애굽기 15 : 26, 이사야 53 : 4~5, 데살로니가전서 5 : 23

홍정근 목사(평북 / 강남연동교회)

I. 머리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치시고 싸매시는 치유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치유 이야기는 에덴동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구원 이야기이며,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다. 치유는 상하고 깨어진 것을 고치는 것이요, 회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치료, 치유라는 말이 붓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지나왔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치유와 치료는 우리 사회가 주목하는 주제였고, 힐링산업(healing business)은 나름 성황을 이루었다. 현대 사회는 4차산업혁명과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더 편리하고 풍요롭고 화려한 세상을 꿈꾸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의 심

화, 인구절벽, 경제위기, 정치적 분열과 갈등, 기후 위기 심화, 억울한 사고와 사건들,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줄지 않는 자살률과 고독사, 1인 가구의 증가는 치유를 목말라 하는 세상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울부짖음이 사회 곳곳에 가득하다.

치유는 이 시대의 사회적 주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목회적 주제이다. 목회는 치유를 포함하는 사역이다. 때로는 치유가 상담 치유나 영적 치유처럼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전인적이고, 통합적이며, 전방위적인 의미로 치유를 말하고 있다. 이 글은 목회적이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주제 성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II. 출애굽기 15 : 26에 대한 이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1. 본문의 위치

- | | |
|------------|-------------------------------------|
| 14장 |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
| 15 : 1-21 |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 주신 하나님 찬양(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
| 15 : 22-26 | 마라의 쓴 물 치유 |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한 후, 애굽군대의 추격을 받는 중에 홍해 바다를 만났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물 가운데 길이 열렸고 그들은 그 바닷길로 홍해를 무사히 건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을 바닷물을 통해 심판하셨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로 접어들었다. 사막 광야의 특성상 그들은 물을 구하기가 힘들었다. 사흘 길을 걸어 마라에 도착해서 그들이 애타게 찾던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쓴 물이었다. 백성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왔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이기 이전에 백성들의 영적 아버지 또는 목회자로서의 모세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들어 물에 던지자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하였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를 떠나 엘림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열두 개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물이 풍족한 오아시스를 만난 것이다. 정리하면, 출애굽 후의 백성들의 여정은 물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홍해 - 마라의 쓴 물 - 엘림의 열두 개의 물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물에서 건짐을 받고, 물의 치유를 목격하고, 물의 풍족함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물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 동산인 에덴에는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그리고 유브라데강이라는 네 개의 강이 발원한다(창 2:10-14). 이를 통해 우리 삶과 문명이 물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선물하시고(시 1:3, 겔 47:1-12), 물을 통해 심판의 재앙을 내리시고(출 7:14-25, 계 8, 11, 16장),

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고(왕하 2:19-22), 물을 통해 치료하시고(요 9:1-11), 물을 통해 교훈하시고(요 4:6-14), 물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보여 주신다(계 21장). 물은 생명과 직결된다. 우리의 생명은 물론, 이 땅의 모든 생명 역시 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물의 오염은 자연의 오염이요 물의 회복은 자연의 회복이다. 특히 마라의 쓴 물 이야기는 홍해를 건넌 후 본격적인 광야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나는 첫 번째 이야기이다. 마라의 쓴 물 이야기는 ‘마라의 쓴 물 - 백성들의 원망 - 모세의 기도 - 쓴 물이 단물로 바뀐’의 순서로 전개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마라의 이야기이며 또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2. 마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를 사흘 동안 걸어서 정착할 곳을 찾았다. 수르 광야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다. 수르 광야는 술(shur) 광야로 불리기도 하고(창 16:7, 20:1, 삼상 15:7, 27장), 에담 광야로 불리기도 한다(민 33:8).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장막을 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민 33:8).

이스라엘의 첫 장막지인 마라는 홍해의 남동쪽 약 75Km, 수에즈 만(Suez 灣)으로부터 동쪽 약 11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오늘날의 ‘아인 하와라’(Ain Hawarah)로 추정된다. 마라 지역에서 찾은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아랍 사람들은 “이 물이 이 근방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마라의 물은 오염되어 있었다. 이곳의 지명이 된 ‘마라’는 ‘쓰다’(민 5:24), ‘괴롭다’(삼상 1:10), ‘근심하다’(잠 31:6) 등의 뜻이 있는 ‘마르’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홍해를 건너 본격적인 광야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장막을 친 곳이 공교롭게도 쓴 맛을 보는 마라였다. 앞으로 이어질 광야생활의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마라는 우리의 인생 길이나 믿음의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은유적으로 보여 준다.

3. 원망과 시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소는 ‘모세의 샘’이라는 뜻을 가진 ‘아룬 무사’(ayun musa)로 추정된다. 마라에서 아룬 무사까지는 약 53km의 거리이다. 53km를 걷는 데 사흘이 걸렸다는 것으로 보아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무리가 수많은 가축들과 애굽에서 가져 나온 살림살이를 가지고 이동하는 데 많은 힘이 들고 시간도 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는 사이에 갖고 있던 물은 고갈되었을 것이다. 홍해를 기적으로 건넌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백성들은 마라에서 원망을 터뜨렸다(출 15:24).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마실 물을 기대했던 백성들은 물이 있지만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 원망을 터뜨린 것이다. 여기서 ‘원망’을 뜻하는 히브리어 ‘룬’은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등의 뜻을 지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밤을 세워 가며 불평했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시험에 걸려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원망과 불평의 직접적인 대상은 모세이지만, 이는 결국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하신 하나님께로 향한 원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25절에 “시험하실새”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시험하다’를 뜻하는 “나싸”(NASA)는 ‘증명하다’는 의미를 내포한 단어로, 구약에서 36번 사용된다. 이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이나 질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 시험한다는 뜻을 지니기도 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려고 마라의 쓴 물을 경험하게 하셨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마라의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섭리가 담겨 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후 터뜨리는 첫 번째 원망에 대해 직접적인 심판이나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 교훈하시고 훈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한순간에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빚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손길이요 과정으로 작용한다.

4. 쓴 물과 나무

마실 물을 기대하며 어렵게 발견한 물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실망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성경은 마라의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물이 오염되고 짝어서 마실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의 오염이나 물 부족이 우리 삶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느낄 수 있다. 우리 삶은 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백성들의 원망을 접한 모세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출 15:25).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혹자는 이 나무는 시나이반도 지역에 자생하는 ‘구르쿠드’(ghurkud)라는 나무라고 추정한다. 구르쿠드 나무의 열매에 물을 달게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하여 쓴 물을 달게 만드시고,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점이다. 나무는 물을 고치는 도구일 뿐 물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을 고치시고 자연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엿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을 치유하신다. 한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질문이다. 이 나무에 대하여 죄와 죽음의 쓴 물을 달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계 22:2)를 예표한다고 보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쓴 물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점에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나무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병든 우리 삶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5. 치료하는 여호와

한 나무를 가지고 쓴 물을 단물로 고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치료자이심을 계시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출 15 : 26).

여기서 ‘치료하다’는 뜻을 지닌 ‘라파’는 구약성경에서 60회 이상 사용되는 단어로, 라파에서 파생된 ‘마르페’와 함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사이다.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집안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태가 막혔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이야기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창 20 : 17).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병에서 고치시거나(요 5:18) 민족을 치유하시거나(호 6:1; 7:1; 11:3), 패역하고 배역한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실 때(렘 3:22; 호 14:4) ‘라파’ 동사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원의 맥락에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고치시거나(사 19:22),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의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시거나(사 30:26), 자기 이름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여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실 때에도(말 4:2) ‘라파’ 동사가 사용된다. 이처럼 ‘여호와 라파’는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의 치유나 민족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한 영적인 치유 그리고 종말론적 구원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는 관계의 복원이요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처럼 성경은 라파하시는 하나님의 치유는 통전적인 치유라는 것을 잘 보여 준다.

Ⅲ. 이사야 53:4~5에 대한 이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1. 본문의 위치

주제 성구 53:4~5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 다루는 52:13~53:12 안에 위치한다. 따라서 주제 성구인 53:4~5은 52:13~53:12의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먼저 고난받는 종에 대해 다루고 있는 52:13-53:12은 카일 델리취가 “십자가 아래서 그린 그림”이라고 할 정도로 메시아 예언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내용의 구성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52:13-15	서곡
53:1-3	고난받는 종의 모습
53:4-6	고난의 의의
53:7-9	고난에 임하는 고난받는 종의 자세
53:10-12	고난의 결과

따라서 주제 성구인 53:4~5은 고난받는 종이 당하는 고난의 의의를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서술(52:13-53:12)에서 ‘고난받는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또한 ‘우리’(12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하는 물음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고, 제108회기 총회주제인 치유와

관련하여 본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 성구에서 치유와 관련된 단어인 ‘질고’(4절), ‘슬픔’(4절) 그리고 ‘나음’(5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성경의 범위를 넓혀 생각해 보면 고난 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0~53장에 나오는 고난 받는 종이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고난의 종을 지칭하는 대상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40:3)를 지칭하기도 하고, 바사 왕 고레스(44:28, 45:1)를 지칭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3인칭 단수로 고난의 종을 지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제 본문인 53:4~5을 보면 고난 받는 종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난 받는 종은 인간적으로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다(53:2-3). 그리고 고난 받는 본인은 죄가 없음에도 다른 이들의 잘못을 대신하는 대속적인 고난을 당한 사람이다(53:4-5).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는커녕 자신의 잘못으로 벌을 받는다는 지탄을 당한 사람이다(53:4). 그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고난이다(53:5). 또한 그 고난은 스스로 택한 고난이며(53:7), 이 고난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따른 고난(53:10)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 이런 내용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고난 받는 종임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처럼 성경에서 고난 받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3. 우리

주제 성구인 53:4~5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무려 일곱 번 사용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53장에서 사용되는 ‘우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1절)이요, 고난 받는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3절), 고난 받는 종이 자신의 죄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여겼고(4절), 고난 받는 종의 고난을 통하여 나음을 입었고(5절),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행하는(6절) 사람을 가리킨다. 또한 ‘우리’는 곧 “형벌 받을 내 백성”(8절)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문에서 가리키는 ‘우리’는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으로 구원받고 치유를 받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벧전 2:9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치유의 전달자가 되게 하신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하).

4. 질고

고난받는 종이 대속적 사역으로 우리 대신 감당하신 것은 두 가지다. 53:4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이다. 먼저 질고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에 이어서 슬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질고’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홀로’는 몸에 찾아오는 “병, 질병”(신 28:59, 왕상 17:17, 사 1:5; 38:9), 또는 불합리한 상태로서의 “악한 병”(전 6:2)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한다. 영어 번역 성경에는 ‘홀로’를 슬픔이나 고통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질고’로 번역하고 있다. 마태는 마태복음 8:17에서 이사야 53:4에 나오는 ‘질고’를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질고’는 “병에 걸려 겪는 괴로움”을 가리킨다. ‘병’ 자체뿐만 아니라 병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괴로움, 고통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는 곧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지셨음을 의미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병과 고통에서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이다. 한편 ‘질고’는 병을 의미하고, ‘병’은 ‘죄’를 묘사하는 비유적 술어로 보기도 한다. 이럴 경우 질고는 단순히 육신적인 질병을 넘어 영적인 병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5. 슬픔

주님은 우리의 질고와 함께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슬픔’ 역시 ‘질고’와 마찬가지로 번역상 어려움이 있다. 우선 ‘슬픔’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마크오브’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통, 고난 또는 상처나 질병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따라서 이를 번역할 때는 ‘고통’, ‘슬픔’, 또는 ‘질병’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슬픔’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슬픔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몸의 병인 질병이 야기하는 마음의 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자들 중에는 ‘마크오브’에 담긴 의미를 ‘슬픔’보다는 ‘고통’이나 ‘질병’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사야가 ‘마크오브’를 ‘홀리’와 상호보완적인 의미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고난 받는 종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육체적이고 정신적 고통을 함께 대속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6. 나움

이사야는 4절에서 고난 받는 종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에 대해 밝히고, 이어서 5절에서 그 대속적 고난과 죽음의 원인과 효과에 대해 밝히고 있다. 고난의 원인 제공자는 구원받은 우리요, 그 결과로 우리가 ‘나움’을 입었다고 말한다. 즉,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종’이 고난 받아 죽임을 당했고, 그 결과로 우리가 ‘나움’을 얻은 것이다. 4절의 ‘질고’와 ‘슬픔’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병을 표현하고 있다면, 5절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영적인 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고난 받는 종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나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나움’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라파’에 대해서는 주제 성구인 출애굽기 15:26에 대한 이해에서 이미 소개한 바가 있다. ‘라파’는 전인적이고 총제적인 치유를 가리킨다. 뿐만 아니라 치유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담고 있다. ‘라파’는 통전적인 치유를 가리키는 말이다. 육신적인 나움과 정신적인 나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움까지도 포함하는 치유를 뜻한다. 한국교회에서는 “여호와 라파”를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에 적용하거나 또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치유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점은 바로잡아야 한다. “여호와 라파”는 전인적이고 종말론적인 치유, 즉 메시아 시대의 살롬을 연상하는 충만함과 완전함을 가져오는 통전적인 치유를 가리킨다.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치유를 약속한다. 하나님의 치유 사역의 절정은 예수 그

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다. 십자가 사건을 가까이서 경험한 장로 요한은 이렇게 기도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 1: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를 받은 요한은 이제 치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IV. 데살로니가전서 5:23에 대한 이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1. 본문의 위치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의 일반적인 서신의 양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1:1-10	도입
2:1-3:13	본론 전반부
4:1-5:24	본론 후반부
5:25-28	종결

본론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각각 기도로 마무리되는데, 주제성구인 5:23은 본론 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기도형식의 글이다. 따라서 본문은

서신 전체를 마무리 짓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데살로니가교회를 향한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라는 점에서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목회적 관심과 열정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또한 바울은 이를 통해서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자신의 권면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기도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의 목회적 염원을 엿볼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 총회 주제와 관련하여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평강의 하나님

바울은 기도 중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롬 15 : 33, 16 : 20, 고후 13 : 11, 빌 4 : 9).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주님이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eirene)는 혼돈, 염려, 두려움, 무질서, 쟁투가 없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가리킨다.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shalom)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샬롬은 대개 평화, 화평, 화목, 평강 등으로 번역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단순한 안정이나 평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원적으로 샬롬은 ‘온전함’(wholeness)을 의미한다. 따라서 샬롬이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그 자체로 온전한 충만, 온전한 평안을 가리킨다. 본서의 주요 주제인 주님의 강림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온전히 실현한다.

샬롬에서 말하는 온전함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개인적인 온전함과 관계적 온전함이다. 이 두 관계는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먼저 개인적 온전함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짓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제물 곧 온전함을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온전함을 이룬 사람은 이웃, 자연과도 온전한 관계를 이룬다. 살롬 신앙은 온전함의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이다.

3. 온전히 거룩하게

이 표현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온전히”에 해당하는 ‘홀로텔레이스’는 ‘전체로’ 또는 ‘완전하게’ 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거룩하게”라는 표현에는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그리고 끝까지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기원이 담겨 있다. 이는 이어서 나오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에서 사용한 “온”의 의미와도 직결된다. “온”에 해당하는 ‘홀로클레로스’는 ‘완전한, 전체의, 전부의’라는 뜻을 갖고 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하게 완전한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다. 성화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성도와의 합작품이다. 이런 성화의 과정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다. 성화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받고 치유하는 과정이다.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들을 살피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거룩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우고,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부르시는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4.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제 성구 중에서 특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삼분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본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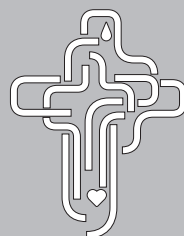
와 같이 본 성구는 기도문으로 어떤 주장이나 이론을 정의하는 의도로 쓰여진 문장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신학적 교훈이나 교리적 관점을 가르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목회적 격려와 교훈을 담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는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믿음 안에서 삶의 전인적 모습이 흠 없이 보전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영과 혼과 몸은 분리하거나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이라는 개별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당시 그리스식 사고방식에 익숙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의상 삼분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성도들이 전인적인 신앙의 삶을 갖추어야 함을 수사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이다. 우리는 신앙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듯이 신앙의 삶 또한 전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믿음은 영적이면서 혼적이고 육적인 삶 전체에 깊숙이 스며 있어야 한다. 영과 혼과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몸에 문제가 생기면 영혼에도 영향을 끼친다. 영적인 치유가 심리 정신의 치유와 연결되고 몸의 치유와도 연결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고 보여 주며 경험하게 한다. 주님은 믿음을 치유함으로 몸을 치유하시고, 몸을 치유함으로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셨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고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V. 맺음말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구원의 경험이요 치유의 경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치유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점점 주님을 닮아 가는 성화의 과정은 치유받고 치유하는 과정이다. 구원과 치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 나누어야 할 은혜이다. 5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세상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변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심리적 압박을 강요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한 충격, 점점 다가오는 기후위기, 양극화와 초고령사회로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오는 불안감 등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한국교회 역시 역성장과 신앙 의식의 변화, 신앙생활 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탈종교화의 영향 등으로 많이 지쳐 있다. 우리는 주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다. 세상은 주님의 치유를 갈망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치유하신다.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와 치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제2부

치유에 대한 신학적 이해

1.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치유사역: 강성열 교수
2. 신약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사역: 정덕희 교수
3. 개혁신교회의 신학과 전통에서 살펴본 치유: 최윤배 교수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치유사역 : 주요 낱말들을 중심으로

강성열 교수(호남신학대학교)

I. 머리말

요즘 우리 사회는 온통 “힐링”(healing) 열풍으로 가득 차 있다. 각종 출판 도서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힐링”이라는 낱말이 넘쳐난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치료나 회복 또는 휴식 등의 뜻을 가진 이 낱말은 그만큼 사람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이 갈피를 잡지 못한 채로 피곤에 지쳐 있음을 암시한다. 물론 아무리 힐링 산업이 발달한다 해도, 그것이 피곤에 지친 인간의 몸과 마음과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지는 못할 것이다. 참된 힐링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치유가 아니고서는 말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참된 힐링이라는 것이 어떤 이상적인 제도나 법 내지는 어떤 모범적인 개인이나 권력자 또는 어떤 다른 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구약성경은 도처에서 야웨 하나님이야말로 개개인과 공동체 전체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임을 강조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5:26과 신명기 32:39에 있는 말씀이다.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마라 사건의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는 출애굽기 본문은, 만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떠한 질병도 그들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근거로 이 본문은 야웨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는 분임을 강조한다(출 15:26). 그리고 신명기 본문에서 모세는 야웨야말로 유일하신 참 신으로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는 분임을 강조한다(신 32:39). 이스라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의지하는 여타 신들과는 달리, 야웨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과 역사에 깊이 관여하셔서 살고 죽는 문제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뉘우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표현이 하나 있다. 개역개정판에서 “치료하다”와 “낮게 하다”로 번역되고 있는 ‘라파’라는 낱말이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를 전혀 배우지 못한 한국교회 성도들조차도 알고 있는 히브리어 낱말이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라파’라는 낱말은 ‘치료’ 또는 ‘치유’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로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접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낱말은 구약성서에서 ‘치료’ 또는 ‘치유’를 뜻하는 말로 두루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드물기는 하지만 ‘하바쉬’와 ‘할람’ 및 ‘아루카’와 ‘아사프’ 등의 낱말들도 치유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설명해 주는 이 낱말들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3년여 기간에 “코로나 블루(Blue)”로 인해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에 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와 우울증(blue)을 합한 개념인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감금 상황, 즉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와 고립 및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불안과 외로움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을 일컫는 바,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 사역이 우리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고 온전하게 하는 일에 귀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위에 언급한 낱말들을 중심으로 하여 구약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광범위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II. ‘라파’(רָפָא) 동사와 ‘마르페’(מָרַפָּה) 명사

개역개정판에서 주로 “치유하다”와 “치료하다” 또는 “고치다”로 번역되고 있는 ‘라파’ 동사와 이에서 파생한 명사 ‘마르페’는 전반적으로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치유 행동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그 첫 번째 사례를 우리는 창세기 20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본문에 의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가나안 원주민을 피하여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던 중에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에 거주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고, 그로 인하여 아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달으심과 아울러, 그랄 왕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면

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속히 제자리로 돌려보낼 것을 명하신다. 그러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돌려주었고,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에 힘입어 자신과 자기 아내 및 여종 등의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치료 은총을 선물로 받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라파’) 출산하게 하셨으니”(17절).

지혜문학인 욥기나 예언서에서도 ‘라파’ 개념이 두루 사용된다. 먼저 욥기를 보자. 순식간에 닥친 엄청난 재앙과 고통에 좌절한 나머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죽음의 세계를 찬미하는 욥에게, 그의 친구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라파’) 분임을 강조한다(욥 5:18). 비록 엘리바스가 하나님도 인정하신 욥의 경건함과 순전함(욥 1:8; 2:3)을 인정하지 않고 인과율의 잣대로 그를 비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이 말은 틀린 게 아니다.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호세아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을 벌하시기는 해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치료하려 하시는 분임을 강조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라파’)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라파’) 할 때에…… 내가 그들을 고치는(‘라파’)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호 6:1; 7:1; 11:3).

이 본문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배역함을 버리고서 야웨께로 방향을 돌이키면 반드시 그들의 배역함을 고치시는(‘라파’) 분이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렘 3 : 22 ; 호 14 : 4).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라파’ 동사는 고통과 절망 중에 빠진 자들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간구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시편 6 : 2과 41 : 4이 그렇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파’)”(시 6 : 2).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파’)”(시 41 : 4).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라파’)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라파’).....”(렘 17 : 14).

시편 기자나 예레미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 야웨 하나님이야말로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라파’) 분이요(시 103 : 3),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사람들을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라파’)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시 107 : 20).

하나님의 치유 은총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심판받은 이집트가 다시금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그들을 고치실(‘라파’) 것이다(사 19:22). 그는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의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실(‘라파’) 것이요(사 30:26),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건 간에 그들을 반드시 고쳐 주실(‘라파’) 것이다(사 57:19). 또한 그는 자기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여 치료하는 광선(healing, ‘라파’ 동사의 명사인 ‘마르페’)을 그들에게 비추게 하실 것이다(말 4:2).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를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의 치유 거부 행위는 심판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른바 북과 저주에 관해 길게 규정하고 있는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잊게 되면, 그가 온갖 질병으로 그들을 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치유받지(‘라파’) 못할 것이요(신 28:27),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라파’) 못할 심한 종기가 생기게 하실 것(신 28:35)이라고 말한다. 유다 백성을 치시고 치료하지(‘마르페’)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치료받기(‘마르페’)를 기다리거나(렘 14:19) 고침(‘마르페’)을 입을 때를 기다리는 유다 백성의 모습(렘 8:15),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왕국의 여호람 왕에게 능히 고치지(‘마르페’) 못할 병이 창자에 들게 하시는 것(대하 21:18)이나, 남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할(‘마르페’) 수 없게 하셨다는 것(대하 36:16)도 심판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라파’는 다소 드물기는 해도 하나님의 치유 행위 대신에 사람의 치유 행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북왕국의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던 중에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라파’) 위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그 가장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왕하 8:29; 9:15; 대하 22:6). 세상

모든 일들에 기한과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죽일 때와 치료할(‘라파’) 때를 대비시키는 전도서 3:3이나, 앓수르가 에브라임의 질병을 전혀 고치지(‘라파’) 못할 것이라는 호세아의 예언(호 5:13)도 사람의 치유 행위를 가리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목자들”)이 병든 자들을 고치지(‘라파’) 않는다는 비난(겔 34:4)이나 거짓된 목자가 상한 자들을 고치지(‘라파’) 않을 것이라는 예언(스 11:16)도 마찬가지이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치유 행위가 유향을 통한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방 민족인 이집트가 유향을 사용하여 치료를 많이 받는다 하여도 효력이 없어 낫지(‘라파’) 못할 것이라든지(렘 46:11; 참조. 렘 8:22), 파멸에 빠진 바벨론이 이집트처럼 유향을 구하여 자신을 치료하려(‘라파’) 하지만 도무지 낫지 못한다는 설명(렘 51:8-9)이 그렇다. 사람의 혀가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마르페’)과 같으니라”(잠 12:18; 16:24); “온순한(‘마르페’) 혀(the tongue that brings healing, NIV)는 곧 생명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잠 15:4).

III. ‘하바쉬’(חָבַשׁ) 동사와 ‘아루카’(אָרוּקָה) 명사

‘라파’ 동사 외에도 치유 행위를 가리키는 낱말이 몇 개 있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 가장 대표적인 낱말이 동사 ‘하바쉬’와 명사 ‘아루카’이다. 이 두 낱말은 앞에서 설명한 ‘라파’ 동사와 나란히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하바쉬’ 동사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이 동사는 본래 무엇인가를 묶거나 동여매는(bind) 행동을 가리킨다. 그러

나 때로는 상처를 치유하거나 회복시키는 행동을 가리키기도 한다. 야웨께서 자기 백성을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라파’), 그들을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하바쉬’) 것이라는 예언(호 6:1)이 그렇다. 야웨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하바쉬’)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실(‘라파’) 것이라는 예언(사 30:26)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라파’)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하바쉬’)는 시인의 고백(시 147:3)이나, 그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하바쉬’) 상하게 하시다가 자기 손으로 고치신다(‘라파’)는 엘리바스의 발언(욥 5:18)도 같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남왕국 유다의 예언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비뚤어진 지도자들이 병든 자들을 고치지(‘라파’) 아니하며 상한 자들을 싸매 주지(‘하바쉬’) 않는다고 비난한다(겔 34:4).

‘하바쉬’ 동사 역시 ‘라파’ 동사와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사용되기도 하는바,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귀향 공동체를 향하여 예언한 이사야의 메시지가 그 점을 잘 보여 준다. 그는 종말의 때에 야웨의 영으로 충만한 메시야가 마음 상한 자들을 고칠 것이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하바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사 61:1).

‘하바쉬’ 동사 역시 ‘라파’ 동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치유 거부 행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될 때가 있다. 이를테면 야웨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팔을 꺾은 후에 그가 더 이상 칼을 잡을 수 없도록, 그를 치료되거나(‘라파’) 싸매어지지(‘하바쉬’) 못하게 하셨고(개역개정판은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로 번역함.), 약을 붙여 싸매어지지도(‘하바쉬’) 못하게 하셨다는 에스겔의 예언(겔 30 : 21)이 그렇다. ‘하바쉬’ 동사는 ‘라파’ 동사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치유 거부 행위를 뜻할 때가 있다. 주전 8세기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이사야의 예언에 그 점이 잘 반영되어 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하바쉬’)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사 1 : 6).

그리고 명사 ‘아루카’는 본래 “길다”(be long)는 뜻을 가진 ‘아라크’ 동사에서 파생한 낱말이지만, 상처 입은 자리에서 자라난 새 살(new flesh)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상처의 치유나 회복을 뜻하기도 한다. 올바른 금식을 행하는 자의 치유(‘아루카’)가 급속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사야 58 : 8과 예레미야서의 다음 세 본문이 이 점을 뒷받침한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 곳에는 의사(‘라파’의 분사형)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아루카’) 못함은 어찌 됨인가”(렘 8 : 22).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아루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라파’)”(렘 30 : 17).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아루카’ 고쳐(‘마르페’) 낮게 하고(‘라파’).....”
(렘 33 : 6).

예레미야서의 이러한 ‘아루카’ 용례들은 명사 ‘아루카’가 야웨 하나님의 치유 행동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러한 치유로 인하여 회복된 새 살(new flesh)을 뜻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IV. ‘아사프’(אָסַף) 동사와 ‘할람’(חָלַם) 동사

치유를 뜻하는 낱말로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것들에 두 가지가 더 있다. ‘아사프’ 동사와 ‘할람’ 동사이다. ‘아사프’ 동사는 본래 “모으다, 소집하다”(gather, collect) 또는 “제거하다”(remove, exterminate)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아사프’의 이 두 번째 의미, 곧 “제거하다”는 의미가 치유와 관련되어 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와 나아만의 이야기가 그렇다. 이 이야기에서 ‘아사프’ 동사는 “제거하다”는 의미로 네 번 사용된다.

그 첫 번째 용례는 전쟁포로로 잡혀 온 후로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소녀의 말에서 발견된다. 그녀는 나병 걸린 나아만이 자기 나라의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 곧 엘리사를 찾아가면 그가 나아만의 나병(leprosy)을 제거해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아사프’) 하는지라”(왕하 5 : 3).

사실 이 소녀의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가 그의 ‘차라아트’(나병)을 제거해 줄(‘아사프’) 것이다”이지만, 나병의 제거는 곧 나병의 치유를 뜻한다고 볼 수 있기에, 개역개정판은 영어권 번역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아사프’를 ‘고치다’(cure)라는 낱말로 풀어서 번역한 것이다.

아람 나라의 왕 역시 ‘아사프’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아사프’) 하였더라”(왕하 5 : 6).

이에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람의 왕이 불치병인 나병을 고치라(‘아사프’)고 하는 것은 전쟁의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탄식한다(왕하 5 : 7). 이스라엘 왕을 찾아간 나아만 역시 ‘아사프’ 동사를 사용한다. 그는 요단 강에 가서 그의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분노한다. 그는 엘리사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부에 안수하여 자신의 나병을 고쳐 주어야(‘아사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왕하 5 : 11).

이상에서 살펴본 ‘아사프’ 동사의 네 가지 용례들은, 이 낱말이 나병의 제거를 뜻하는 것이요, 따라서 나병을 고쳐 주는 행동을 뜻한다는 사실을 분

명하게 보여 준다. 이와는 달리, ‘할람’ 동사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치유를 뜻하는 낱말로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다. 이 낱말은 본래 “건강하다, 강하다”(be healthy, strong) 또는 “강해지다”(become powerful)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히필 사역형으로 사용되면 “건강하게 만들다, 강하게 만들다, 회복시키다”라는 뜻을 갖게 된다. ‘할람’ 동사는 이러한 의미로 이사야 38:16에서 한 번 사용되고 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restore to health, ‘할람’)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간구의 내용은 남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에 속한다.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한 뭉치 무화과를 환부에 붙이면 나을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회복되게 하신다(사 38:21-39:1).

V. 맺음말 : 하나님의 치유 은총을 기다리며

정부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함으로써, 2023년 6월부터 노마스크의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환자들이 전국에서 1~2만 명씩 나타나는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의 상황에서 지난 3년 4개월을 돌이켜 보면,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일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섬겨야 할 본분을 망각

하고서 무리한 다중 집회와 밀착 예배를 강행하는가 하면,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국가의 방역체계를 무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국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요 1:12) 말했던 요나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지난 3년 4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들의 철저한 반성과 참회를 요청하는 엄중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중대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교회는 비상한 결심과 각오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야웨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질병과 상처를 통해 반성하게 하시고, 참회하고 뉘우치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 주는 악독한 병원균이었음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함으로써 인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이 위축되거나 아예 중단됨으로써, 경제적인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졌기 때문이다. 교회도 대면 예배의 중단과 온라인 예배의 지속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받았다는 점에서는, 우리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과 마찬가지로의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런 때일수록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과 대형교회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의 넉넉한 것을 가지고서 약한 이웃들과 교회들

을 섬기는 철저한 자기희생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높고 낮음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이상에 부합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요, 온갖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시는 아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온갖 상처와 질병이 오로지 참된 치유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제대로 고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좌절과 절망을 구원과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약한 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만이 개인과 공동체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실 수 있는 것이다. 이사야 53:4~5 말씀에 잘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받은 종으로 하여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고, 그의 고난과 찢림과 상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상처를 낫게 하지 않으셨는가!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치유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지만, 실제적인 치유의 사역은 그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치유 사역이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 사역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귀한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차별과 압제가 없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그의 구원을 맛보며 살게 하신다는 점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치유의 기본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치유가 필요한 한국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과 절망에 빠진 자들,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고통과 슬픔 속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참된 치유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마침내는 한국 사회에 속한 개인들과 공동체들이 온갖 상처와 아픔을 딛고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시대의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며,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 사역에 바르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사역

정덕희 교수(한남대학교)

I. 머리말

신약성서 치유 연구에 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23은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바울의 ‘영·혼·육’에 대한 삼중적인 언급은 인간을 향한 신약성서의 전인적 이해를 보여 주는 중요한 표현이다. 인간 존재를 단순히 가시적인 육신으로만 보지 않고 더 넓은 차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치유 이야기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치유 이야기는 단순한 육신적 치유가 아닌 인간 전체적인 그리고 온전한 치유에 대한 이야기다. 실제 신약시대의 치유는 단순히 아픈 통증 또는 질병 제거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다. 육신과 더불어 그 영혼까지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전인적 치유의 경향이 강했다. 고대 사람들은 몸

의 질병을 복합적으로 바라보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깊은 철학적 사고를 하였고, 이를 치유하는 과정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었다.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치유 역시 단순한 육신의 질병 차원의 치유가 아닌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역이라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약성서가 소개하는 그러한 치유의 다양한 의미와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주제는 ‘신약성경에 나타난 치유’이지만 그 초점을 복음서로 좁혀서 예수의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신약성서를 관통하는 치유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치유에 포커스를 맞추어 논의를 하되, 신약성서의 치유 개념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마가복음 2~3장 이야기로 모든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II. 예수의 치유 사역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1세기 유대 땅은 수많은 병자들로 가득 찬 상황이었다. 육신의 질병을 앓는 사람은 죄의 문제까지 결부되어 육신적, 정신적, 영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므로 1세기 유대 사회 안에서 병자로 산다는 것은 매우 복합적인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암시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을 총체적인 방식으로 이해했다. 질병의 원천이 병에 걸린 신체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환경 안에 그리고 더 광범위한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치유는 환자의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압박을 경감시키고, 신체적 치료를 가하며, 우주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했다.¹⁾ 물론 현실적으로 외과의사와 같은 치유자를 찾아 다니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정신과 혼을 정결하게 해 줄 치유자를 찾고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펼쳐 간다. 예수의 치유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어쩌면 예수 사역의 상당수가 병자 치유였고 그러했기에 예수는 병 고침의 대가로 인식되곤 한다. 당시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의료진들에 의해 형성된 해부학과 전문의학이 헬라 문화 전파와 함께 유대 땅에 퍼지고 있었지만 예수의 치유는 그런 방식의 치유와는 분명 달랐다. 과학적 방법보다는 그 이상의 방법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시 거리를 활보하던 초자연적 의식에 기댄 주술사와 비슷했던 것도 아니다. 그들과는 분명 다른 점들이 있다. 첫째, 예수의 치유는 예수의 공생애 사역을 규정 짓는 하나의 사역 방식이었다; 둘째, 치유에 있어서 믿음을 강조했다; 셋째,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힘을 확장시킨다.²⁾ 달리 말하자면 예수는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직접 행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질병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측면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치유를 통해서 그런 복잡한 덩어리에 갇힌 자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것이다.

Ⅲ. 치유 사건 정리

예수 치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와렌(C. Wahlen)이 정리한 다음 도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³⁾

분류		내용	본문	수단
맹인	1	벳새다	막 8 : 22-26	침, 접촉
	2	여리고 인근	마 20 : 29-34// 막 10 : 46-52 ; 눅 18 : 35-43	접촉//말씀
	3	실로암 맹인	요 9 : 1-41	침, 말씀, 물
	4	두 맹인	마 9 : 27-31	접촉, 말씀

나병	1	나병	마 8 : 1-4 ; 막 1 : 40-45 ; 눅 5 : 12-16	접촉, 말씀
	2	나병 10명	눅 17 : 11-19	말씀
다 양 한 질 병	1	중풍병자	마 9 : 1-8 ; 막 2 : 1-12 ; 눅 5 : 17-26	말씀
	2	중풍병자	요 5 : 1-9	말씀
	3	오그라든 손	마 12 : 9-14 ; 막 3 : 1-6 ; 눅 6 : 6-11	말씀
	4	등 굽은 여인	눅 13 : 10-17	말씀, 접촉
	5	백부장 하인	마 8 : 5-13/눅 7 : 1-10	(원거리)말씀/ -
	6	아픈 아들	요 4 : 46-54	(원거리)말씀
	7	열병	마 8 : 14-15 ; 막 1 : 29-31// 눅 4 : 38-39	접촉//말씀
	8	혈루병	마 9 : 20-22 ; 막 5 : 25-34 ; 눅 8 : 43-48	접촉
	9	귀먹고 말 더듬는 자	막 7 : 31-37	접촉, 침, 말씀
	10	수종병	눅 14 : 1-6	접촉
	11	대제사장의 종	눅 22 : 50-51	접촉
귀 신	1	가버나움 회당	막 1 : 23-28 ; 눅 4 : 33-37	말씀
	2	안식일	마 8 : 16-17/ 막 1 : 32-34/ 눅 4 : 40-41	말씀/ - /접촉
	3	거라사	마 8 : 28-34 ; 막 5 : 1-20 ; 눅 8 : 26-39	말씀
	4	아이	마 17 : 14-21 ; 막 9 : 14-29 ; 눅 9 : 37-43	말씀
	5	말 못하는 자	마 9 : 32-34	-
	6	말 못하는 자	눅 11 : 14-16	-
	7	마리아	막 16 : 9 ; 눅 8 : 2	-
	8	수로보니게 여인	마 15 : 21-28 ; 막 7 : 24-30	(원거리)말씀

죽음	1	야이로 딸	막 5 : 21-43 ; 눅 8 : 40-56// 마 9 : 18-26	접촉, 말씀// 접촉
	2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눅 7 : 11-17	접촉, 말씀
	3	나사로	요 11 : 1-44	말씀(기도)

도표를 통해 보건대 예수께서 치유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말씀과 접촉이다. 말씀(word)은 모든 치유 영역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접촉(touch)이다. 이 중 위 도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방법, 즉 말씀(word)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자.

치유를 선포하는 예수의 표현은 매우 다양하다. 말씀으로 치유하는 위 20회의 사례 중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들, 특히 가라(8회), 깨끗함(2회), 믿음(5회) 등이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 이를 토대로 ‘말씀’(word)에 담긴 주요 개념을 살펴본다.

IV. 치유의 주요 개념 : 구원, 가라, 깨끗함, 믿음

1. 구원

‘가라,’ ‘깨끗함,’ ‘믿음’ 이 세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자. 예수께서 고침을 선포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치유’라는 단어 대신 그 외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셨는데 특히 ‘구원’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셨다(마 9 : 21, 22 ; 14 : 36 ; 막 5 : 23, 28, 34 ; 6 : 56 ; 10 : 52 ; 눅 7 : 3 ; 8 : 48, 50 ; 18 : 42 ; 요 11 : 12 ; 참고. 행 4 : 9 ; 14 : 9). 치유 기사에서 이 단어가 활용될 때 한글 성경 및 영어 성경은 각각 ‘나을 것이다’(made

well) 또는 ‘구원하다’(save)로 번역한다. 특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save, 눅 7:50, 17:19, 18:42; 막 10:52)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사전적 의미로 ‘구원’(σῶζω)은 소중한 개체를 어떤 나쁜 것으로부터 막고, 보호하고(preserve, keep from), 자유롭게 한다(free)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문헌에서는 ‘위협에 처한 상태에서 소중한 것을 구하다’(save, deliver)의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 위협은 사탄,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속적 부패까지 다양하다. 흥미로운 점은 신약성서에서 이 단어가 치유 사건에서 종종 사용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즉, 병 치유는 단순한 ‘병 고침’을 넘어서는 ‘구원’의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의 탄생 당시 사가랴의 기도를 보면(눅 1:69, 71, 77), ‘구원’(σῶζω)은 죄 사함을 수반하는 개념이다(참고. 막 1:4).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의 치유가 메시아의 죄를 사하는 구원 사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단순한 육신의 질병 그 이상의 치유를 의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예수 치유의 영역이 인간의 전인적 영역을 포괄한다는 것이다. 예수의 행위는 치유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다. 그 질병은 단순한 신체적 질병이 아닌, 영적 질병, 더 나아가 공동체로부터 오는 공동체적·관계적·사회적 질병까지 확대된다.⁴⁾ 결국 예수의 치유는 모든 굴레로부터의 구원이다. 누가복음 13:12에서 여인을 치유할 때 예수께서 사용하신 표현 “놓임”(ἀπολύω) 역시 ‘자유케 됨, 해방됨, 놓임’의 의미가 있다. 이처럼 예수는 병을 고칠 때 그 모든 아픔의 가장 근원까지 터치하셨다.

2. 가라

치유를 통한 구원 또는 자유하게 됨은 결국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온전히 회복시켜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치유 기사에서 ‘가라’(ἰπάγω)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가라’(마 8:13, 32; 9:6; 막 5:34; 7:29; 눅 17:14; 요 4:50; 9:7)의 반복적 선포는 현실의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자기 발로 힘껏 새로운 세상으로, 그리고 자신이 건강한 상태로 살고 있어야 했던 가족 및 사회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명령이다.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힘들었던 이유는 단절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치유를 통해 그가 원래 있어야 했던 가족의 품으로, 그가 속해 있어야 했던 사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도록(reintegration) 인도했다.⁵⁾ 예수 역시 당시 인간 몸에 생기는 아픔과 질병의 원천을 단순한 신체 내부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환경 안에 그리고 더 광범위한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온전한 치유는 환자의 신체적 치료를 토대로 사회적 관계까지 회복하게 해서 그의 삶의 조화와 균형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산상수훈 이후 마태복음 8~9장에서 연이어 나오는 치유 이야기들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전개된다. 신체적으로 먼저 회복을 이루게 해서 그들이 가족 또는 사회공동체로 돌아가게 함으로 자신의 입지와 위치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삶을 재조정하는 것이다.⁶⁾

3. 깨끗함

예수는 병자를 고칠 때 깨끗함에 대해 자주 언급을 했다. 나병환자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마가복음 1:40에서 보면 ‘깨끗’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나병환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누가복음 5장에 나

오는 나병환자 역시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깨끗하게 되는 것을 요청했다(눅 5:12-14). 즉, 육신의 질병 치유 차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행 10:15; 11:9) 거룩한 존재가 되길 원했던 것이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정하게 한 것과 비슷한 뉘앙스다(눅 11:39).

결국 나병환자가 자신을 깨끗하게 해 달라는 것은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양식에 부합한 존재가 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때 제사장의 역할은 치유자가 아니라 일종의 건강관리 고문으로 이전에 나병환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완치를 확인해 주고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한다.⁷⁾ 이처럼 나병환자는 깨끗함을 통해 종교적, 사회적, 신체적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돌아간다.

혈루증 여인의 치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겠다(막 5:25-34). 치유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거대한 표징이 된다. 사회적·영적 회복의 형태들은 명백하게 신체적 회복과 연관된다.

4. 믿음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환자의 믿음이였다(막 10:52). 예수님은 치유를 얻는 자들을 향해 그들의 믿음에 대해 칭찬한다. 예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 9:22, 29; 막 2:5; 5:34; 10:52; 눅 8:48; 18:42)고 선포한다. 믿음은 철저한 신뢰다. 예수께 치유를 위해 접근한 자들은 수많은 장애를 뛰어넘어 온 자들이며, 예수께서는 이렇게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께 접근한 환자들의 절박한 행동을 믿음과 연관시킨다.

5. 접촉

말씀과 더불어 치유 과정에서 자주 등장했던 접촉을 간략하게 언급해

보겠다. 예수는 말씀을 통해 주로 치유하시지만 손을 대어 치유를 하시는 경우 역시 상당히 있었음을 위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치유 과정에서 손을 올려놓으시거나 만지기도 했다. 손을 대어 고치는 치유는 매우 인상적이다. 과거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창조와 해방을 행하셨던 것처럼 손은 신적 권능의 도구임을 입증한다. 예수 역시 손을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장면으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V. 치유와 회복(막 2:1-3:6)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그동안 논의했던 모든 치유 담론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보여 주는 복음서 단락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마가복음 2~3장의 이야기는 예수와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과 치유 이야기이다. 2:1~3:6은 다음과 같은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A 치유(2:1-12)

B 식사(2:13-17)

C 금식(2:18-22)

B' 식사(2:23-28)

A' 치유(3:1-6)

이 전체 이야기의 시작은 A에 해당하는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 환자 치유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 가능하다: 첫째, 믿음에 의

한 죄 사함이다(2:5); 둘째, 집으로 돌아가라(2:11)는 선포다. 그는 이제 사회적 회복으로 나아간다. 더 이상 죄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사회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堂堂하게 살 수 있게 된다.⁸⁾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안식일 병자 치유 사건으로 다시금 연결된다. 마가는 이어서 또 다른 치유 사건을 소개한다. 안식일 손마른 자 치유 사건(A', 3:1-6)이다. 이 사건은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선행과 악행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예수의 접근 방식은 약간 다르다. 생명으로 접근하고 있다. 원래 안식일에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m. Yoma 8:6). 그럼에도 남는 의문이 여전히 있다.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는가? 왜 안식일에 치유를 했어야 했는가?

물론 이를 통해 예수께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에 대한 반향(echo)이다.⁹⁾ 사실 인간이 처음 만들어진 날은 여섯째 날이다.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첫 인간 아담이 이 세상에서 맞이한 첫 날(the first full day of life)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정결한 상태의 인간이 처음으로 맞이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첫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첫 안식일에 그의 영과 육은 조화와 균형 속에 있었다. 안식일에 그의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상태였다(창 1:31). 그러므로 마가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치유가 안식일에 발생했다는 것은 바로 태초의 첫 안식일의 상태로 우리 인간을 되돌려 놓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암시한다.¹⁰⁾ 결국 안식일에 이 환자가 치유를 통해 회복되어야 할 지점은 창세기 1~2장 첫 안식을 맞이하던 인간

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이다(창 2:7).

예수께서는 그 손 오그라든 사람을 향해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명하신다(3:3):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그리고 그때 손을 내미니, 다 나왔다. 특별히 5절 본문에서 ‘회복’을 의미하는 아포카티스테미(ἀποκαθίστημι)는 매우 흥미롭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 특히 점성술사들 사이에서 혼돈의 우주질서를 복원한다(the restitution of the cosmic cycle)는 의미로 사용되곤 했었다.¹¹⁾ 종종 오래된 질서가 종식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됨을 알리는 단어로 사용되곤 했다. 특히 우주 질서에 대한 회복이 강조되는 단어다. 그리고 이 단어는 70인역에서는 종교적 색채가 가미되어 주로 종말론적 회복에 대한 의미로 사용되곤 했다(LXX 렘 16:15; 23:8; 24:6; 겔 16:55; 암 5:15; 호 2:5; 11:11).

신약에서 이 단어는 그리스 어원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더욱 확장되어 종말론적 회복으로까지 확장된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물었을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아포카티스테미(ἀποκαθίστημι)이며(행 1:6) 이때 나온 예수의 답변이 바로 성령의 약속이다(행 1:8). 이후 사도행전 3:21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until the time of universal restoration)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행 3:19-21).

본문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시대의 종말론적 회복을 연상하게 하는 구절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원래 질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회복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 8:25 맹인 치유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데, 예수의 손이 그의 두 눈에 얹혀졌을 때, 그 접촉의 순간에, 그 사람은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된다. 보이지 않던 눈이 열리며, 처음 건강했던 그 눈의 상태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손 마른 자가 자신의 손을 내밀 때 예수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마가복음 2~3장에서 그 치유의 과정은 용서(중풍병자)와 회복(손 마른 자) 두 단계로 설명 가능하다. 이 두 단계를 통해 그 원래의 온전함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예수께서 보여 주신 치유의 핵심은 병자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었고, 손 마른 자에게, 아니 어쩌면 손 마른 자와도 같은 오그라든 영혼의 소유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다.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회복이 일어난다. 그 회복은 종말론적 회복이기도 하고, 동시에 창조 이후 첫 안식일의 모습 그대로, 즉 창세기 1장의 만물의 기원(Genesis)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회복이기도 하다. 결국 믿음으로 죄 사함, 일어서는 것, 나아가는 것, 그리고 회복 이 모든 것들이 나란히 연결되는 것이 마가복음 2~3장 이야기라 할 수 있겠다.

VI. 맺음말

이제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의 치유는 데살로니가전서 5:23에 표현된 ‘영·혼·육’을 모두 어루만지고 치유하고 회복하

게 하는 사역이었다. 예수께서는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의 육신과 영혼까지도 품어 주시고, 그의 내면의 아픔까지도 헤아려 한 사람을 온전히 치유하고 완전한 회복에 이르게 하는 전인적 치유를 행하였다. 치유를 통해 그 사람을 모든 질서의 원래 그대로 돌려놓는 사역을 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치유의 이야기는 비단 병자들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 모두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고대 치유개념이 몸(σῶμα)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의미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결국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신의 삶,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역시 치유를 통해 원래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었을 것이다. 스스로를 주님의 몸(σῶμα)이라 고백했던 초기 교회들(고전 12:27) 역시도 치유를 통해 온전한 회복을 고대했을 것이다. 치유를 통한 회복은 개인, 공동체, 사회, 그리고 이 세상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주

- 1) Joel B. Green/IVP번역실 역, “치유,” 『IVP성경신학사전』(서울 : 2000), 1136.
- 2) C. Wahlen, “Healing,” in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ed. Joel B. Green (Downers Grove, IL : IVP press, 2013), 363.
- 3) 위의 책, 364.
- 4) Green, “치유,” 1137.
- 5) Wahlen, “Healing,” 365.
- 6) Green, “치유,” 1137.
- 7) 위의 책, 1136.
- 8) 신현우, 『마가복음』(서울 : 감은사, 2021), 230.
- 9) Wahlen, “Healing,” 369.

10) 위의 책.

11) M. Silva, “ἀποκαθίστημι,” *NIDNTT*, vol 1, 354.

개혁교회의 신학과 전통에서 살펴본 치유

최윤배 교수(前 장로회신학대학교)

I. 머리말

본고는 전형적인 조직신학 논문이 아니라,¹⁾ 논문 주제의 성격상 이론신학과 실천신학이 혼합된 논문이다. 우리는 “치유”(治癒, healing; **אָפּ**, 출 15:26; **θεραπεία**) 또는 “신유”(神癒)를 중심으로 목회와 선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천적 측면을 먼저 논의한 후에, 조직신학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세계기독교 역사와 한국교회사에서 “치유”를 중심으로 종종 양 극단이 존재했다. 한쪽에서는 주로 자연적·의학적 치유에만 집중하고, 지나친 합리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하나님의 신비롭고 초월적이며 기적적인 치유를 무시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적 치유만을 절대화하여 신

비주의와 은사주의에 치우친 결과, 의학적 치유를 아예 무시하거나 신앙생활과 목회실천 활동에서 신유 이외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 은혜, 역사, 활동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치유와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적인 신유 역사를 동시에 인정하면서도, 일방적인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치유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토대와 목회적, 선교적 실천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할 것이다.

II.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와 세계 개혁신교회 전통에서의 치유 사역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 병자들을 위한 치유목회

한국기독교회사의 성령운동 속에서 나타나는 치유와 신유 집회에 대한 평가는 크게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갈라진다. 필자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에 나타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성령론적으로 평가한 적이 있다.²⁾ 장패 출신으로 장로교회의 목사가 된 김익두 목사(1874-1950)는 신천교회에서 새벽기도 중에 공산당이 쏜 총에 맞아 1950년 10월 14일에 순교하였다. 그 당시 「동아일보」는 1920년 58호 신문에서 “김익두 목사의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이번 남방집회에서 밀양군교회에서는 18세 여자 병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번 각 지방에서 병 고침 수효가 22명이라 한다.”³⁾

미국 유학시절 극심한 질병으로 학업을 마침내 중단하고, 투병 중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한경직 목사는 항상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

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경직 목사는 지나친 은사주의적, 열광주의적 성령 이해와 성령 운동을 강하게 비판했다.⁵⁾ 본 교단에서 치유를 경험한 목회자들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목회자는 수없이 많다.⁶⁾ 김세진 목사는⁷⁾ 1919년 14세 때 그 당시 한의술이나 양의술도 고치지 못했던 결핵성 관절염을 80일의 기도를 통해 치유(治癒)받았다고 간증했다.⁸⁾ 방지일 목사의 증언에 근거하여 우리는 김세진 목사는 신유(神癒)의 은사(恩賜)를 체험한 목회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는 어려서 매우 신약하였으나, 그 모친의 간절한 기도로 오늘 80 고령에 이르신 바임을 그 자신은 물론 우리 가까이 친하게 지낸 사람도 이 사실은 너무 분명한 바이다. 신유의 은사를 몸에 받으신 분이라 신성 중학을 거쳐 연대를 그리고 평양 신학을 나와 안동중앙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심을 보고 나는 중국으로 갔었다.”⁹⁾

“치유하는교회”의 김의식 목사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25년의 사역을 마친 후 2002년에 『상한 마음의 치유:상담치유의 말씀모음 제1집』라는 저서를 통해 자신이 직접 연구하고 체험한 치유목회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었다.¹⁰⁾ 그는 여섯 번이나 죽음의 위험을 만났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며, 뉴질랜드와 미국 집회에서 경추디스크 치유를 강하게 경험한 바, 자신의 수차례의 치유경험들이 십자가의 치유복음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다.¹¹⁾ 『치유목회 이야기』에 대한 추천사에서, 이성희 목사는 “치유는 김의식 목사의 사명이다. 치유는 김의식 목사의 목회이다. 치유는 김의식 목사의 삶이다. 치유는 김의식 목사의 목표이다. 김의식 목사의 치유목회는 현재진행형이다.”라고 말한다.¹²⁾

2. 세계 개혁신교회 전통 : 병자들을 위한 치유목회

1) 개혁과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와 칼뱅의 치유사역

종교개혁 운동과 개혁신교회 안에서 성령에 대한 관심이 약하다는 오해가 종종 발견된다. 종교개혁자들이 성령에 대한 관심이 약했다는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한 네덜란드 역사신학자 꼬쁘만스(J. Koopmans)는 “교리사적으로 볼 때에 종교개혁의 의미는 성령론의 재발견과 성령론에 대한 발전 속에 있다.”라고 올바르게 주장했다.¹³⁾ 왜냐하면, 거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의 신학자”로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¹⁴⁾ 우리는 개혁과 종교개혁자들(M. Bucer, Zwingli, Calvin, Bullinger 등)의 성령 이해와 소위 그들의 전통을 잇고 있다고 자처하면서도 성령론의 약화를 보이는 개혁과 정통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잘 파악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세계 개혁신교회와 장로교회처럼 우리 교단은 참 교회의 3대 표지(말씀선포, 성례전 집행, 치리/권징 시행)를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 칼뱅은 치리와 권징을 인간 몸의 “힘줄”로 비유할 정도로 중요시 했지만, 교회의 표지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마르틴 부처(Martin Bucer)는 치리가 포함된 교회의 참된 3대 표지와 교회의 4중직(목사, 교사/교수, 장로, 집사)의 기초를 마련했다.

개혁신교회는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할 목양(pascere)의 세 가지 기능, 곧 “가르치는 기능”(docere), “다스리는 기능”(guberare), “섬기는(봉사하는) 기능”(diaconus)을 주장했다. 목사는 가르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모든 기능을 다 함께 총괄하고, 교사(신학대학교 교수)는 가르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장로는 다스리는 기능을 담당하고, 집사는 봉사와 섬기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집사가 담당하는 섬기는(봉사하는) 기능에는 가난한 자를 위

한 재정(물질) 관리 기능과 병자의 돌봄과 간호 기능이 있다. 마르틴 부처나 칼뱅은 가난한 자를 위한 재정 관리는 남자 집사에게, 병자들의 돌봄과 간호 기능은 여성 집사에게 담당시켰다. 따라서 개혁신교회 전통에서는 목양과 관련된 치유목회 기능이 두 가지로 작용하는바, 곧 치리와 권징은 성령을 통한 사랑의 매와 치유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여성 집사직도 병자의 치유 기능으로 사용된다.

마르틴 부처는 그의 『참된 목회학』(*Von der waren Seelsorge*, 1538)에서 에스겔서 34:16을 기초로, 목회대상인 성도로서의 양(羊)들을 다섯 종류, 곧 “잃어버린 양”, “길을 잃어버린 양”, “상하고, 상처 입은 양”, “약한 양”, “건강하고 강한 양”을 구별하여 맞춤형 치유목회를 제안하였다.¹⁵⁾

이것으로부터 목회직과 영혼의 참 돌봄에서 요구되는 다섯 가지 주된 사역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첫째, 육신적인 부절제(不節制)나 거짓예배를 통해 주(主)로부터 여전히 떨어져 있는 자들을 우리의 주에게로 인도하고, 그의 교제(Gemein)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둘째, 한때 그리스도에게로 왔고, 그의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자이지만, 육신적 활동이나 잘못된 교리들을 통해서 다시 길을 잃었던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 셋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남아 있으면서도 심하게 타락하여, 죄를 지었던 자들을 참되게 개혁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넷째,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 있으면서 특별히 심하게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지만, 기독교적 삶에서 어느 정도 약하고 병든 자들을 참 기독교적 강함과 건강 안에서 다시 세워 주는 것, 다섯째, 그들의 기독교적 삶 속에서 심각하게 죄를 짓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은 자들을 모든 불법과 실패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영혼 돌봄과 목회직에 대한 다섯 가지 주된 사역들을 에스겔서 34장 [16절]의 양(羊)에 대

한 비유에서, 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때, 주께서 아름답게 요약하셨다.¹⁶⁾

마르틴 부처에게서는 항상 영·육 또는 영·혼·육의 “전인”(全人)과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 전체와 사회와 국가 공동체 전체가 중요했다.

동일한 일이 인간의 몸 안에서처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어난다. 필요가 더욱 크면 클수록, 그 필요가 세상적인(zeitlichem) 것이든지 영적인(geistlichem) 것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자신들의 봉사와 활동에 더욱더 스스로 헌신한다.¹⁷⁾

영국에서 그의 말년에 저술한 『그리스도 왕국론』(1551)에서 마르틴 부처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경건하고, 행복하게”(ad pie beateque vivendum; ad bene beateque vivendum; for living piously and happily) 살 수가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¹⁸⁾

칼뱅의 제네바 목회사역 중에서 치유와 관련된 “종합구빈원”과 “집사직”을 살펴보자. 칼뱅의 제네바 선교의 중요한 기구로서 “제네바 콘시스토리움”(소위 당회), “제네바 아카데미”(제네바대학교)에 이어, 제네바 “종합구빈원”(General Hospital)이 있었다.¹⁹⁾ 1535년에 설립된 제네바 종합구빈원은 칼뱅 자신이 세운 것은 아니지만, 종교개혁의 산물이다.²⁰⁾ 칼뱅은 디아코니아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제네바 종합구빈원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 틀림없다. 종합구빈원은 병자들을 돌보는 병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노인들을 돌보는 종합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을 했다.²¹⁾ 종합구빈원은 실무를 맡았던 구빈원장과 구빈원의 재정을 책

임지고 감독하는 행정관으로 구성되었다. 구빈원장의 직책은 사업가 출신의 평신도 한 명이 맡았고, 행정관은 네 명이었는데, 그중 한 명은 장(長)이 되었다. 종합구빈원을 맡은 행정관들과 구빈원장은 매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 오전 6시에 정기적으로 모였고, 구빈원장은 지난 일주일간의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빵의 분배와 재정 지출 등을 결정하였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치유에 대한 관심은 그 당시 유럽 전역에 치사율 약 30%에 달하는 “페스트”가 발생하여, 환자 돌봄과 질병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심지어 제네바에서는 목회자들이 근무 조를 편성하여 환자들과 사망자들의 장례 등을 돌보았다.²²⁾

칼뱅의 제네바 선교의 중요한 기관과 도구로 사용된 제네바 콘시스토리움은 제네바 전체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신앙과 도덕을 고취시키는 선교기관이었다면, 제네바 아카데미는 제네바는 물론 유럽 전역을 위한 교육 선교기관이었고, 종합구빈원은 종합사회복지 선교기관이었다. 칼뱅과 제네바는 특별히 이 세 기관을 통하여 제네바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종교와 신앙, 도덕, 정치, 교육, 보건, 위생과 복지 등) 선교센터로 만들어 활용하였다. 칼뱅은 고대교회와 성경주석에 근거하여 집사는 크게 두 가지 일, 즉 환자나 노약자를 간호하고, 돌보는 일과 가난한 자를 재정적으로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말한다. 제네바의 시립병원이 잘 운영되도록 하며, 몸이 아픈 환자뿐만 아니라 노동을 할 수 없는 노인, 과부 된 여성들, 고아들, 기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이들의 의무다. 더구나 제네바 시 전체에 흩어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이 다시 있어야 하는데, 재무 관리자가 이 일도 맡아 해도 좋을 것이다. 칼뱅이 주장한 집사직은 교회가 교회 안과 밖에서 수행해야 할 이웃 사랑의 실천, 즉 “디아코니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집사의 선출은 장로의 선출에 준하며, 규칙은 바울서신의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이 적

용된다.²³⁾

2) 에두아르트 투르나이젠의 스위스 개혁교회의 치유사역

독일 루터교회 소속 블룸하르트(Blumhardt) 부자(父子)와 스위스 개혁교회 소속 투르나이젠(Eduard Thurneysen)이 활동하던 시기는 독일에서 히틀러가 통치하던 나치즘시대였고, 대부분의 독일 개신교 신학은 상당히 자유주의적으로 기울어진 개신교 문화주의의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블룸하르트와 투르나이젠은 철저하게 변화된 바르트의 복음주의적 입장을 고수했다.

블룸하르트 부자는 “예수께서 승리자이시다!”(Jesus ist Sieger!)라는 상징적 표어로 인해 널리 알려진 신학자들인데, 아버지 블룸하르트는 고틀리빈(Gottlieb)이라는 소녀(여성)에게로부터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친 사건으로 유명하다. 블룸하르트 부자는 이 사건에서 세상의 악과 마귀와 죽음의 세력을 축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인식했고, 승리자이신 예수를 그들의 가르침과 설교의 주제로 삼았다.²⁴⁾

투르나이젠은 목회와 “정신치료법”(Psychotherapie) 사이의 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목회를 위해 정신치료법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치유목회는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죄”(赦罪; 죄 사함 받음)와 은혜를 전제한다는 측면에서 양자 사이에 절대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²⁵⁾ 투르나이젠은 성경에 기초한 인간 이해로부터 질병과 죄를 상호 밀접하게 연결시킨다.

“그들의 병(귀신 들린 자들, 막 5 : 7 ; 눅 4 : 34, 필자주)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하느님(하나님, 필자주)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과 저항의 표징인 것이다. …… 이것은 곧 죄와 병과의 상호관계가 신앙의 눈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음을 뜻한다.”²⁶⁾

목회치유를 “사죄로서의 치유”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투르나이젠은 자연과학적인 의학치료를 배제하지 않고, 그것과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목회에 있어서는 이제 참된 ‘치유로서의 해방’(Befreiung)이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더 이상의 무슨 이유가 필요하지는 않다. 죄가 종의 멍에라고 한다면 목회가 주된 임무로 삼고 있는 사죄의 은총은 종의 멍에의 종식이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해방인 것이다. 그러나 죄가 반사된 것이 병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건짐 받으면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치유가 약속된다(시 103 : 3). 나아가 참된 목회에 있어서는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 다른 아닌 사죄를 통한 죄 된 질병으로부터의 치유인 것이다. 모든 질병은 곧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질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능력으로 질병에서 회복시켜 줄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목회는 정신치료와 상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목회의 사명인 것이다. 목회자는 의사다. 정신치료 의사를 방해하거나 그들의 기능을 대신하지 않고서도 질병의 진상을 확실히 알려 줄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이 너희의 의사이시다’(출 15 : 26) …… 자유와 치유, 그것은 바로 은혜의 행위요, 기적인 것이다.”²⁷⁾

투르나이젠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기적으로서의 치유”를 주장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치료와 사죄의 상관관계에서 볼 때 모든 치유 — 그것이 설령 의학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 가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기적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죽음과 질병의 배후에는 인간의 본성이 겪는 영육의

손상 내지는 파괴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즉 죄의 힘이 스며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 단순히 인간의 내적, 외적 본질이 소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사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서가 말하는 병고침의 기적이요, 구약성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것은 예외 없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위력을 증거해 주는 메시아적 표징인 것이다.”²⁸⁾

투르나이젠은 어둠의 영들이 배후에서 역사할 수 있는 “인지학”(Anthroposophie), “심령과학”(Spiritismus), “마술”(Zauberei), “운명감정”(Schicksalsglaube), “점성학”(Astropologie) 등의 사상을²⁹⁾ 경계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는 동시에 목회를 통해 악령의 세력을 몰아내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³⁰⁾ 투르나이젠은 축귀(逐鬼)와 신유 등의 치유사역을 강조하는 치유목회를 개혁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면서도, 지나친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나 열광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놓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바로의 마술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프랑스 루르데스(Lourdes) 성당을 통해서도 기적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³¹⁾

Ⅲ. “치유”에 대한 용어 정의

국어사전은 “치유”(治癒)를 “의사의 진료를 받고 병이 나음”으로, “치료”(治療)는 “병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는 의학적인 처리”로 정의하고 있

다.³²⁾ 의학이나 의술에 의한 일반적인 치료와 구별하여 한국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신유”(神癒)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일부 이단·사이비적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오로지 “신유” 뿐이라고 극단적으로 잘못 생각하여 정상적인 의료의 도움을 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오래전 필자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이동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수술실 천장에 “의료진은 진료를 하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글귀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57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으며, 『신이 준 한의학』이라는 책의 저자인 손수명 장로는 한의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뭘 고쳐,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지!”라고 고백하고 있다.³³⁾

기독교 의사든지 비기독교 의사든지 간에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의술은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구속과는 무관한 “자연은혜”(natural grace; 자연은사) 또는 “일반은혜”(general grace)에 속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의술과 의약을 통한 의학적 치료나 자연치유를 하나님의 자연은혜로 이해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성령의 일반사역과 일반은총의 도움으로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이 발달시킨 것으로, 인류에게 구원은 줄 수 없지만, 인류에게 유익한 과학이나 의학을 무시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창조주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칼뱅은 주장했다.

“왜냐하면 예술과, 생활의 일상적 용도와 편의에 사용되는 다른 것들은 결코 무시되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며, 칭찬할 만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 현재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시대에 대한 경험들이 신적 광선들이 얼마나 폭

넓게 믿지 않는 나라들(민족들) 위에 비추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듯이, 현재도 우리는 영(성령)의 탁월한 선물들이 전(全) 인류를 통해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인문학과 과학은 이교도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졌다. 우리가 천문학과 철학의 다른 분야들과 의학과 시민정부의 질서를 이교도로부터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³⁴⁾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치유”라는 용어를 자연적·의학적 치유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기적적 “신유”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등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경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와 구원론적, 구속사적, 종말론적인 치유이다.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병 고치는 은사”는 의술의 결과가 아니라, 신령한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³⁵⁾ 이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치료하고 구원하는 성령의 능력에 참여하게 하며, 특별히 믿음과 신뢰가 충만한 기도가 기적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만드는 권세를 주신다는 초대교회의 근본 경험과 관계가 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소유한 사람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고후 12:8-9).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기에 적합한 환경에서 신유의 도구가 되었다. 병 고치는 활동은 일차적으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에 속했다. 이 활동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복음선포 메시지와 결부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유효하게 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말씀 선포와 치유 행위는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었다. 예수님이 전해 주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내적으로 새롭게 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육체도 함께 포함된다. 부활절 이후의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이러한 치유 활동은 계속된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질병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무장해서, 공동체 안에서 질병을 치유했다. 바울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라고 복수형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질병의 치유는 어떤 일회적인 기회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위한 특별한 은사들이기 때문이다.³⁶⁾

유명한 신약성서신학자 메츠거(B. M. Metzger)는 예수님의 35가지의 “기적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한물가 버린 합리주의적인 편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³⁷⁾ 마태복음 11:3~6과 누가복음 7:19~23과 이사야 35:3~6의 말씀을 예수님의 기적들을 메시야적, 종말론적 구원의 관점에서 이해했다.³⁸⁾

IV. 구원의 “부분집합”으로서의 치유³⁹⁾

신약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35개 이적들 중에 “치유”(治癒, healing) 이적은 17개로서 예수님의 이적 사역(치유이적 17개, 자연이적 8개, 축사이적 6개, 소생이적 3개, 징벌이적 1개) 중에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⁴⁰⁾ 예수님의 치유를 포함한 35개의 이적은 첫째, 하나님 나라 도래의 징표(눅 11:20), 둘째, 사탄 통치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며(막 3:27), 셋째, 메시아적 비유행위(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선포/메시아적 자의식), 넷째, 하나님의 인간회복 의지(신·인<神·人> 살롬공동체의 회복), 다섯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함(성령의 활동) 등을 의미한다.⁴¹⁾

그 결과 신학이나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에서 힐링 사역을 예수 그리스

도의 총체적 구원의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는 오해가 발생하곤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전체를 그의 치유사역으로 완전하게 환원시키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으로부터 그의 치유사역을 전적으로 배제시키는 것도 성경적 태도는 아니다. 예수님의 풍부한 구원사역 속에 그의 치유사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올바른 이해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치유를 구원 전체의 부분집합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라파”(רפא, 출 15:26)의 여호와이시고(호 6:1),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치유이적을 거의 이적사역의 절반가량으로 행하셨고(마 15:28), 지금도 성령께서 치유은사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신다(고전 12:9, 28, 30). 그러므로 구원의 “부분집합”으로 이해된 치유는 삼위일체론적 근거와 기독교론적 근거와, 성령론적 근거와, 구원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사 행위는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도래와 관계되었고,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는 교회에게도 약속된 이적과 치유행위이다. 그러므로 치유는 교회론적 근거와 종말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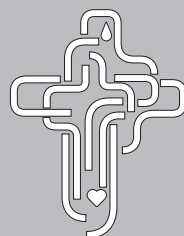
이 글은 전형적인 조직신학적 글의 형식을 벗어나서, “삶의 상황”(Sitz im Leben)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조직신학적 기술과정에 이르렀다. 우리는 치유사역을 전체 구원사역의 부분집합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35가지 이적 사건 중에 치유 사건이 17회나 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신학이나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에서 치유(힐링)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 구원사역의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거나 환원하는 오해가 종종 발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전체를 그의 치유사역으로 완전하게 환원시키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으로부터 그의 치유사역을 전적으로 배제시키는 것도 성경적 태도는 아니다. 예수님의 풍부한 전체 구원사역 속에 그의 치유사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올바른 이해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치유를 구원 전체의 부분집합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치유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안목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한 말씀선포와 믿음과 기도가 병행된 균형 잡힌 치유목회와 치유선교를 계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과 목회자와 신학자와 교회가 지나치게 지성주의나 과학주의나 합리주의에 빠진 나머지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성령을 통한 치유 기적과 사탄과 귀신과 마귀의 존재와 활동을 부인하고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목회와 선교현장에서 블룸하르트 부자(父子) 당시처럼 귀신 들린 소녀로부터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소녀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자이시다!”(Jesus ist Sieger!)라고 외치게 하실지 모른다.

- 1) 최윤배, 『한국교회의 신학과 목회』(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45-82.
- 2) 최윤배, 『한국교회의 신학과 목회』, 234.
- 3) <https://blog.naver.com/ochloseuno/222871356389>(2023. 1. 15. 접속).
- 4) 최윤배, “제11장 한경직의 성령론,” 최윤배, 『성령론 입문』(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271.
- 5) 최윤배, “제11장 한경직의 성령론,” 최윤배, 『성령론 입문』, 275.
- 6) 방지일, 『피의 복음』(서울 : 경화인쇄소, 1963) ; 주안장로교회출판부 편, 『주안장로교회 나섬 일 목사의 새영을 건 목회 30년 이야기』(인천 : 도서출판 주안, 2008), 75 ; 원광기 편저, 『목회와 신유사역』(서울 : 쿤란출판사, 2003).
- 7) 최윤배, 『한국교회의 신학과 목회』, 208-209.
- 8) 김세진, 『김세진 수상집 : 꺼져가는 등불처럼』(서울 : 경일인쇄소, 1972), 173-182.
- 9) 방지일, “추천의 말씀,” 김세진, 『생명강이 흐르는데』, 6.
- 10) 김의식, 『치유목회 이야기』(서울 : 쿤란출판사, 2021), 46.
- 11) 김의식, 『치유목회 이야기』, 224-227.
- 12) 김의식, 『치유목회 이야기』, 43.
- 13) J. Koopmans, *Het oudkerkelijk dogma in de Reformtie, bepaaldelijk bij Calvijn*(Wageningen, 1938), 102.
- 14) 최윤배, 『성령론 입문』(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35.
- 15) M. Bucer, *Von der waren Seelsorge*, 최윤배 역, 『참된 목회학』(용인 : 킹덤북스, 2019), 19.
- 16) M. Bucer, *Von der waren Seelsorge*, 최윤배 역, 『참된 목회학』, 19-20 ; 143-311.
- 17) M. Bucer, *Von der waren Seelsorge*, 최윤배 역, 『참된 목회학』, 46, 참고, 최윤배, 『잊혀진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12) ; 최윤배, 『개혁신학 입문』(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5).
- 18) Yoon-Bae Choi, *De verhouding tussen Pneumatologie en Christologie bij Martin Bucer en Johannes Calvijn*(Leisen : Uitgeverij J. J. Groen en Zoon, 1996), 166.
- 19) 박경수, “갈뱅의 종교개혁과 선교,” 세계선교연구원 편, 『선교와 신학』 제21집, 113-114 ; 박경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사회 복지 사상,” 장로회신학대학교 연구지원처 편, 『제6회

- 소망신학포럼 : 21세기 교회와 사회봉사 2』(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8), 85-141.
- 20) 최윤배, 『갈렙 신학 입문』(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857.
- 21) 박경수, “갈렙의 종교개혁과 선교,” 세계선교연구원 편, 『선교와 신학』 제21집, 113-114.
- 22) 박경수 외 3인 책임편집, 『재난과 교회』(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 안면준 공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군포 : 도서출판 다함, 2020).
- 23) 최윤배, 『갈렙 신학 입문』(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585.
- 24) 김명용, 『칼 바르트의 신학』(서울 :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7), 16-17.
- 25) 에드워드 투르나이젠, *Die Lehre von der Seelsorge*, 박근원 역, 『목회학 원론 - 복음주의 목회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79), 191.
- 26) 에드워드 투르나이젠, *Die Lehre von der Seelsorge*, 박근원 역, 194.
- 27) 에드워드 투르나이젠, *Die Lehre von der Seelsorge*, 박근원 역, 205.
- 28) 에드워드 투르나이젠, *Die Lehre von der Seelsorge*, 박근원 역, 214-215.
- 29) 에드워드 투르나이젠, *Die Lehre von der Seelsorge*, 박근원 역, 281.
- 30) 에드워드 투르나이젠, *Die Lehre von der Seelsorge*, 박근원 역, 276.
- 31) 에드워드 투르나이젠, *Die Lehre von der Seelsorge*, 박근원 역, 216-217.
- 32) 국어국문학회 감수, 『새로운 국어대사전』(용인 : 민중서관, 2007), 2492-2494,
- 33) m.kukminusa.com/view.php?gisa_id = 0924193573(2023. 1. 9. 접속).
- 34) 최윤배, 『갈렙 신학 입문』(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705, 칼빈, 『창세기 주석』, 창 4 : 20.
- 35) 김희성, 『부활신앙으로 본 신약의 성령론』(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1), 164.
- 36) 김희성, 『부활신앙으로 본 신약의 성령론』, 164.
- 37) Bruce M. Metzger, *The New Testament its Background, growth, and Content*, 나채운 역, 『신약성서개론』(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140.
- 38) Bruce M. Metzger, 나채운 역, 『신약성서개론』, 141.
- 39) 최윤배, “제24장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힐링(healing),” 『성경적·개혁적·복음주의적·에큐메니칼적·기독교적 조직신학 입문』, 821-823 ; 「신학춘추」 통합85호(2012. 9. 25. 화 A10).
- 40) 성종현, 『신약총론』(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142-144.
- 41) 성종현, 『신약총론』, 144.



제3부

치유에 대한 목회적 이해

1. 개인 마음의 시대와 치유 사역:김대동 목사
2. 가정 “주여, 가정을 치유하게 하소서!”:이상억 교수
3. 교회 예수님의 치유에서 본 접촉치유의 사회관계적 의미:김중호 교수
4. 사회 사회치유에 대한 목회적 이해와 접근:김형석 목사
5. 민족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정병준 교수
6. 열방 “주여, 열방을 치유하소서!”:조용선 목사
7. 생태계 신음하는 피조물의 치유:배현주 교수

마음의 시대와 치유 사역

김대동 목사(서울강동 / 구미교회)

I. 머리말

우리 총회 108회기의 주제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로 정해졌다. 3년 동안의 힘든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각 개인도 교회도 사회도 나아가 생태계까지 힘들고 지쳐 있으며, 상처 받고 낙담하였기 때문에 치유 주제로 새 출발을 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9시 뉴스를 보는 중에 사려깊은 뉴스 카피를 보고 크게 공감한 적이 있었다. 첫째는 “우리 돌아갈 수 있나?”이고, 둘째는 “우리 돌아가야 하나?”이다. 먼저 “우리 돌아갈 수 있나?”라는 질문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다 정지되고 심한 고통 속에 머물면서 다시 그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진단하는 질문이었다.

그런데 둘째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돌아가야 하나?”라는 질문은 오늘날 코로나 사태가 밀어닥친 이유를 진단하고, 이 사태로 말미암아 지구촌 전체가 올스톱되고 경제는 망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등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였는데, 또다시 지나치게 소비하고 자연을 더럽히고 기후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등 반성 없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심각한 의미 있는 질문이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은 아직도 유효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유효한 질문이다. 『공감의 시대』를 쓴 제레미 리프킨 박사(Jeremy Rifkin, 미국의 경제학자, 미래학자,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 경영대학원 교수, 『엔트로피』, 『소유의 종말』 저자)는 코로나를 진단하면서 이것은 “지구의 역습”이라고 일갈하였다. 그에 의하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지구상에서 차지하고 있던 땅이 14%였는데, 2000년이 되었을 때 인간이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땅은 77%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육지에 남아 있는 야생 구역은 남극을 제외하면 전체 육지의 겨우 2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동물이나 식물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공간을 인간이 다 차지해 버렸다는 것이며, 그래서 오랫동안 야생에 머물러 있었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자신들도 살아남기 위하여 인간을 숙주로 삼아 인간 세계로 넘어온 것이 바로 코로나-19라고 분석하면서 이런 면에서 ‘지구의 역습’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역시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문제이다. 여러 학자들은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얼마든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총회가 108회기 주제로 ‘치유’의 문제를 들고 나선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며, 반드시 감당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개인이 치유받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나아가 국가와 국제관계도 치유받아 건강한 지구촌을 건설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를 안고 있는 생태계의 치유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세상을 치유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II. 치유와 상담의 시대

1. 마음의 시대의 도래

마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어느 시대나 마음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특히 21세기는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① 성인아이(Adult Child), ② 상처와 돌덩이와 쓴 뿌리, ③ 관계의 실패, ④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⑤ 우울증, ⑥ 강박증과 히스테리, ⑦ 자폐와 고립, ⑧ 스트레스, ⑨ 이혼(이혼고아), ⑩ 자살 등 마음의 문제로 생겨나는 어려움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왜곡된 내면을 지니게 되고, 이로써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서로 간에 주고 받은 상처로 인하여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의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마음의 문제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마음의 문제는 관계 맺는 데 어려움을 가져와 의사소통의 실패와 관계의 실패로 이어진다. 그리고 마음의 문제는 신체화장애(somatization disorder)를 가져와 수많은 심인성 질병을 불러일으킨다. 또 마음의 문제는 영적 삶에도 영향을 끼쳐서 메마르고 건조하거나,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살게 만든다. 이처럼 마음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삶 전

체를 뒤흔들어 놓는 전인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2. 상담(학)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

일반적으로 상담 혹은 상담학에 대하여 여러 정의들이 있다. 가장 먼저 상담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로서 로저스(Rogers)는 상담을 새로운 자기로의 변화로 보고, “상담이란 치료자(또는 상담자)와의 안전한 관계에서 내담자가 과거에 부정했던 경험을 다시 통합하여 새로운 자기로 변화하는 과정(Process)”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타일러(Tyler)는 상담을 현명한 선택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 “상담이란 개인적 발달의 방향으로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그 외에도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서 상담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피에트로페사, 레오나드와 반 후스(Pietrofesa, Leonard & Van Hoose) 같은 학자는 “상담이란 내담자의 자기 이해, 의사 결정 및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상담자가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이장호 교수는 상당히 상세한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데, “상담이란 심리적 갈등과 불안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을 적절한 기술과 방법으로 도와주어, 미해결과제를 해결하고, 보다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과정(Process)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은 모두 상담의 중요한 과정과 목적을 알려 주는 훌륭한 정의들이다.

한편 ‘상담목회’를 오랫동안 감당해 왔던 필자의 경우 상담학을 보다 더 세밀하게 정의할 필요를 느끼고 상담을 ‘해방—통합—성장’의 모델로 설명해 보았다. 그래서 필자는 “상담이란 ① 문제와 내면적 상처로 인하여 내적 억압 속에 있는 내담자를 정신적, 정서적 지지과정을 통하여 ‘해방’(치유, 자유)하는 과정이며, ② 자기 자신의 삶을 직시하여 새롭게 ‘통합’(재구성, 강화)하

도록 하는 과정이며, ③ 내재된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장’(개발, 발달)의 과정이다.”라고 정의하였다.

3. 목회와 상담의 만남:상담목회의 시대

그런데 한편 목회란 ① 죄악과 욕심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용서, 구원)시키며, ②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랑의 삶을 ‘통합’(중생, 재구성)하게 하며, ③ 나아가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게 함으로써 ‘성화’(성장, 성숙)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의 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목회와 상담의 정의를 도표를 통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목 회	영역	상 담
① 죄악과 욕심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용서, 구원)시키는 사역	해 방	① 문제와 내면적 상처로 인하여 내적 억압 속에 있는 내담자를 정신적, 정서적 지지과정을 통하여 ‘해방’(치유, 자유)하는 과정
②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랑의 삶을 ‘통합’(중생, 재구성)하게 하는 사역	통 합	② 자기 자신의 삶을 직시하여 통찰하게 함으로써 새롭게 ‘통합’(재구성, 강화)하도록 돕는 과정
③ 나아가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게 함으로써 ‘성화’(성장, 성숙)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의 사역	성 장	③ 내재된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장’(개발, 발달)의 과정

상담과 목회를 이렇게 비교하며 정의해 놓고 보면 놀랍게도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당히 닮은 사역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영역과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 둘은 모두 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라는 사실이다. 그래

서 상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학문이며, 목회는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회사역 속에 상담의 자원과 방법과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의 목회사역은 큰 원군을 얻고 날개를 다는 것이 되어 더욱 더 풍성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담목회’를 말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목회는 상담을 통하여 풍성해질 수 있고, 상담은 목회를 통하여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면에서 21세기 목회의 패러다임은 상담목회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변화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 변화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21세기는 한국교회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상담목회 사역을 강화해야 한다. 인간의 삶이 다양해지면서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교회는 이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바로 이런 면에서 21세기는 상담목회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상담목회는 타자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자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이해’와 ‘자기발견’이다. 자기이해와 자기발견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목회는 목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목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상처받은 이 시대를 치유하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Ⅲ. 오늘날 우리의 현실

지금 우리는 도시화, 산업화, 기계화, 정보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류역사상 수십 세기 동안 사람의 손으로 해 왔던 일들이 이제는 컴퓨터와

기계가 감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곧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인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산업 활동이나 일상생활이 로봇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비하고도 편리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못하다. 과학이 발달하여 지극히 편리한 세상이 되면 될수록 인간이 소외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사무적이 되어 간다. 특히 한국 사회는 수많은 관계를 일일이 다 챙겨야 하는 관계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오는 상처와 긴장감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다. 그만큼 상처가 많다 보니 또한 그만큼 힐링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상처와 힐링의 반복과 연속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재난과 사고로 인하여 우리는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위화감은 하늘을 찌르고, 급기야 우리 사회는 지금 상처와 분노와 허탈의 사회가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의 질병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마음의 문제만으로 끝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그 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을 찾아 제거하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현대의 술한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이 마음의 병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마음의 병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진단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크게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현대는 너무나 바쁜 세상이다

현대인들은 모두 바쁘게 살아간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바쁘다. 남편은 직장일과 사회 속에서의 경쟁으로, 자녀들은 시험공부와 진로의 문제로, 아내는 고부간의 갈등과 남편에 대한 불만, 자녀들의 진로 걱정으로 참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다양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 몸은 분주하고 마음은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너무 바쁘면 사무적이 되고 인간성을 상실해 버리게 된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인 풍요와 다양한 문화 활동과 오락을 통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와 더불어 수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갈등으로 인하여 현대인은 스스로 해결하기에 버거운 신경증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2. 현대는 업적 위주의 세상이다

현대에는 어떻게 하든지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업적 위주의 세상이다. 과정과 절차보다 결과에 치중하다 보니 서로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남을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는 경쟁구도에서는 상대방이 친구요 동료라기보다는 쓰러뜨려야만 하는 적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이 생겨난다. 업적을 중시하다 보니 각종 편법과 속임수가 난무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상사와 부하 간의 대립, 동료끼리의 경쟁,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회의와 불안 등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

3. 현대는 비본질적인 세상이다

본질이라는 말은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 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은 비본질이 본질을 앞서고 있다. 맘모니즘(mammonism)의 세상이 되어 돈과 물질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된 황금만능주의 세상이 되었다. 돈을 하나님만큼 높은 위치에 두고 돈과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대는 또한 허위의식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인생의 성패 기준이 되는 ‘외모지상주의’, 즉 ‘루키즘’(lookism)의 세상이 되어 버렸다. 이 밖에도 세속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의 도전은 거세게 몰아치고 있고, 특별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되어서 모든 가치가 절대성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처럼 비본질이 본질을 압도하는 오늘날의 세상을 향해서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인간이 소유적인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고 일갈한 바가 있다. 소유적 존재가 되어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소유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4. 현대는 목적과 과정이 혼재된 세상이다

현대에는 목적과 과정이 혼재되어 버린 세상이다.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돈은 참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좋아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돈을 버는 것은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이다. 성경도 돈이나 물질 자체를 악하다고 말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돈은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돈은 하나의 과정이요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생은 목적이 분명하고 고상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목적과 과정이 뒤섞여 버린 무목적, 무의미의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무목적, 무의미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으며, 행복은커녕 허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5. 현대는 우울증 등 마음의 문제가 가득한 세상이다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거대한 세상 한복판에서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결국 나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으며 홀로 자신을 가둬으로써 마음의 병을 더욱 키워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밖으로는 휘황찬란한 야경을 보여 주면서도 안으로는 마치 뒷골목의 음산한 분위기와 같은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만연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의 병은 최첨단 컴퓨터와 로봇을 통해서도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 치료해 줄 수가 없다. 마음의 병은 오직 마음의 치료로부터 회복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진단과 처방이 시급한 형편이다.

IV. 마음의 치유를 위한 진단

1.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이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 오른쪽 다리가 약간 마비되는 증세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하여 병적인 공포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늘 “이러다가 나는 한순간에 온몸이 마비되고 말 거야.”라고 중얼거리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과 함께 한 모임에 참석하여 식사하는 도중에 오른쪽 다리를 슬쩍 꼬집어 보았다. 그리고서는 깜짝 놀라 자기 부인에게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결국 내 다리가 마비되고 말았어.” 그러자 그의 부인이 남편의 귀에 대고 귓속말로 이렇게 전해 주었다. “여보,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은 당신 다리가 아니라 내 다리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이 삶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회

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사람은 자기 마음, 즉 자기의 내면을 외면화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문인 빠피니(Papini. Giovanni, 1881-1956)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모두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클레멘트 스톤(W. Clement Stone, 1902-2002)은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하였다. 필자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여 말하고 싶다. 인생이 바뀌면 영원이 바뀐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마음이다. 그러므로 상실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마음의 질병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등 마음의 질병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내팽개쳐 놓았던 우리의 마음이 아우성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적인 예로, 수입이 많고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시골 허름한 집보다 대도시의 고급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우울증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부른다. 그만큼 우울증은 흔한 질병이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다. 감기는 조금만 신경 쓰면 곧 치료되듯이 우울증도 제대로 관리하면 금방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감기도 방치하면 화를 키우게 되는 것처럼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질병도 방치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기도 한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생면부지의 청춘남녀가 한 장소에서 함께 목숨을 끊는 뉴스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데 그 원인에는 모두 우울증이 한몫하고 있다. 우울증뿐 아니라 건강염

려증, 신체화장애 등의 정신질환도 크게 늘고 있다. 신경증으로 예민해지고, 이상 성격 등 왜곡된 마음의 구조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이 종종 잘못된 신비적 종교와 연결되면 ‘종교망상증’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데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마음의 질병인 우울증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미 심각한 수준에까지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3월 유엔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인구의 약 3.8%가 우울증을 경험한다. 이 중 성인의 경우 5%(남성 4%, 여성 6%)가 우울증을 겪는다. 또한 60세 이상 성인 중 5.7%가 우울증을 경험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8천만 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 우울증은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약 50%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임신한 여성과 산후기를 겪고 있는 여성들 중 10%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다. 또한 매년 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살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사망 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울증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사람들 중 75% 이상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장벽으로는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투자 부족, 훈련받은 건강 관리자 부족,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회적 편견 등이 있다(유엔보건기구 2023년 3월 31일 보고).

한국인의 경우는 보다 더 심각하다. 2022년 8월에 의협신문에 기고한 홍승봉 교수(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장, 성균관대의대 교수)에 의하면, OECD 나라들 중에 한국은 자살률 1위, 우울증 유병률 1위(36.8%)인데 우울증 치료율은 세계 최저이다. 미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66%인데 한국은 11%로 최악이다. 우울증으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죽어 간다. 우울증에 걸리면 희망, 즐거움과 의욕이 없어지고 비관적이고 쉽게 절망에 빠진다. 결혼과 출산

은 생각할 수도 없다. 정도의 경중을 떠나서 우리 국민 4명 중에 한 명은 우울감 내지는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우울증 비율은 34.5%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으며 치료가 시급한 청소년 중증 우울증 환자는 14%에 이른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살아가기에 힘든 팍팍한 사회라는 반증이다. 이렇게 마음의 병을 앓게 되면 세상이 온통 우울하고 어두워 보이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염세적이 된다. 평소에 위로와 기쁨을 주던 성경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안 된다. 불안한 마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고립시켜 모든 인관관계와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되며, 어떤 때는 심한 분노감마저 불러일으키게 된다.

3. 마음의 병을 이해하는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아프냐는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마음의 질병은 믿음과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질병이다. 우리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영성가인 헨리 나우웬도, 캘커타의 성인인 마더 테레사 수녀도, 기독교 선교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평가받는 윌리엄 캐리도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심각한 우울증으로 일주일 이상을 죽음과 지옥의 문턱에서 있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의롭고 순전했던 욥도, 걸출한 예언자 엘리야도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질병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실존의 모습이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언제나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V. 마음의 치유를 위한 처방

1. 공감이 가득한 목회적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는 앞장서서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힘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로한답시고 건네는 이런 말을 들으면 환자들은 마음속으로 “나도 알아요. 내가 바보인 줄 아세요? 나도 다 해 보았어요. 당신도 내 입장이 되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거예요.”라는 반응을 보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정답을 말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절대 공감을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정말 많이 아프겠어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공감의 목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공감의 하나님이다. 파토스(παθος)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다. 쉼파테오(συμπαθέω)의 성자 예수님은 우리 고통과 눈물을 체휼하시는 분이며, 이를 위해 성육신하신 분이다.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의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 주시는 위로자이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공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셨고, 마침내 공감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우리의 목회가 하나님의 목회일진대 우리는 철저히 공감할 줄 아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2. 마음의 병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단지 질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못 믿으면 심판을 받는

다는 기복신앙의 관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겪는 성도가 있을 때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믿음이 약해지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아프게 되었다는 식으로 본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 가지 신앙 양식을 가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내려고 하는 것은 저급한 수준의 신앙관이다. 신앙의 위인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마음의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질병에 노출되고 감염되고 아파하고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병은 심판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치유자의 관점에서 아파하는 성도들을 목양해야 하는 것이다.

3. 마음의 병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역설의 은총을 기대해야 한다

신앙은 역설이다.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 그 한 줄기의 빛을 비취 주시면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일어서는 것이다. 헨리 나우웬은 오랜 시간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그 우울증을 겪으며 헨리 나우웬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헨리 나우웬은 “우울증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의 병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의 병을 믿음 부족의 이유로 단죄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 내면 더 굳센 믿음으로 우뚝 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마음의 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역설의 신앙을 깨우쳐 주어 다시 새롭게 은혜 속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목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면하라

우리 사회는 광범위하게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것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정신질환을 터부(taboo)시하는 우리의 사회풍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지도 않고 병원 치료도 받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 신경정신과 의사들에게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우울증 약 사용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한다. 서양인의 경우는 기분이 좀 좋지 않으면 상담자를 찾아가든지 신경정신과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약 처방도 받지만 우리나라는 신경정신과에 가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약을 한 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중독이 된다고 생각해서 약을 복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오해이다. 우울증은 쉽게 치료될 수 있고, 그 약은 중독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우울증 및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과 처방을 받기를 적극적으로 권면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상담으로 고치려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의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5. 본질적인 목회를 회복하라

앞서서 ‘본질’이란 말을 강조한 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비본질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본질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본질은 사실은 교회 안에도 가득하다. 제왕적 목회, 물질주의적 목회,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관계와 소통이 없는 목회, 기복신앙의 목회, 프로그램 중심의 목회 등 오늘날 한국교회는 참된 본질을 너무나 많이

벗어나 버렸다. 어쩌면 이러한 비본질적인 목회로 인하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비본질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불러일으키고, 비교의식이 만연하고, 마음의 문제를 더욱더 야기시키는 면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목회가 본질의 목회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목회가 되고, 은혜 중심의 목회가 되어야 한다. 필자는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을 가르치고 상담목회에 힘쓰고 있지만 절대로 상담지상주의자가 아니다. 필자는 은혜지상주의자이다. 오늘날 교회가 진실로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치유되고, 다시금 진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질병은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찾아온다. 마음의 병도 사람의 마음이 약하여 겪게 되는 질병이다. 어지간한 질병이 잘 쉬고, 적당한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낫는 것처럼 마음의 병도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고, 위로와 격려로 보호받고, 약물과 처방으로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되고 치유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이 때로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그러므로 마음의 병으로 힘에 부쳐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안내하고 이끌어 주는 본질적 목회가 되어야 한다.

VI. 맺음말

108회기 총회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란 주제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도약하려 하는 한국교회에 가장 시의적

절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치유를 통해 우리가 전인적 건강을 회복할 때 교회는 다시 성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인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목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건강한 성도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건강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여 한국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이로써 우리 민족 전체가 건강한 나라가 되고 생태계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부족한 원고를 마감하며 마지막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언급하고 싶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평강은 완전히 치유된 상태를 말한다. 평강은 온전함이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 없게 보전하시고 온전히 치유해 주심으로 진실로 전인적으로 영혼육이 강건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참고문헌

- 김기복. 『임상목회교육』. 서울 : 한들출판사, 2003.
사미자 외. 『한국교회와 정신건강』.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8.
송명자(1999). 『발달심리학』. 학지사, 1999.
심상태(1989). 『인간, 신학적 인간학 입문』. 서광사, 1989.

- 심수명(2010). 『정신역동상담』. 도서출판 다세움, 2010.
- 윤순임 외(1998). 『현대 상담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1998.
- 이장호(1993). 『상담심리학 입문』. 제2판. 박영사, 1993.
- 이영돈(2006). 『K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마음』. 예담, 2006
- 전경갑(1993). 『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 한길사, 1993.
- Corey, Gerald. 조현춘, 조현재 역. (1996).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시그마프레스, 1996.
- Clinebell, Howard. 이종현, 오성춘 역. 『전인건강』. 한국장로교출판사, 1992.
- Corsini, R. J., & Wedding, D. 김정희 역. 『현대 심리치료』. 학지사, 2004.
- Hart, Archibald. 심상권 역. 『우울증 상담(기독교상담 시리즈 13)』. 도서출판 두란노, 1997.
- Hoggard, Liz. 이경아 역. 『영국 BBC 다큐멘터리 행복』. 예담.
- May, Rollo. 백상창 역.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문예출판사, 1992.
- May, Rollo. 정성호 역. 『존재의 발견』. 갑인출판사, 1986.
- Nouwen, Henri. 최원준 역. 『상처 입은 치유자』. 두란노, 1999.
- Oates, Wayne. 정태기 역. 『현대 종교 심리학』. 대한기독교서회, 1994.
- Rogers, Carl. 주은선 역. 『진정한 사람되기』. 학지사, 2009.
- Tripp, Paul.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디모데, 2002.
- Vaillant, George. 이덕남 역. 『행복의 조건』. 프런티어, 2010.
- Kübler-Ross, Elisabeth. *Living with Death and Dying*. New York : A Touchstone Book, 1981.
- May, R., & Yalom, I. "Existential Psychotherapy." In R. J. Corsini & D. Wedding (Eds.), *Current Psychotherapies* (4th ed.)(pp. 363-402). Itasca, IL : F. E. Peacock, 1989.
-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depression>(WTO 2023년 3월 31일 보고,
2023년 7월 26일 접속)
-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57>(2023년 7월 26일 접속)

“주여, 가정을 치유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한 치유목회신학¹⁾

이상억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I. 머리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하던 시기,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출간한 『2020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교회 Vol. 2』는 한국인의 고독 지수가 상당히 높은 78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로움과 거리가 멀 것 같은 20대(67%)와 30대(64%)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일상에서 더 많이 외로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²⁾ 연구소의 통계자료 가운데 특이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문가”, “연인”, “친구”와 “이웃”보다 “가족”을 찾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건강”과 “가정”의 순으로 꼽았다는 것이다.³⁾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시대, 다시 말해 엔데믹시대에 접어든 최근의 뉴스 매체의 보도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연평균 38명꼴로 아동 인구의 감소세로 미뤄봤을 때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역시 청소년 지원기관을 이용한 청소년의 72.1%가 신체 폭력을, 72.9%가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가출 원인으로 가족과 갈등이 70.6%, 폭력이 49.4%로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존재함에도 일부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폭력 문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⁴⁾

“자료에 따르면 112 경찰 신고 (가정폭력) 건수는 2019년 240,564건에서 2021년 218,680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에는 6월까지만 해도 109,985건의 신고가 있어 2021년 전체 건수의 절반이 넘었다. 이 추세가 계속됐다면 전년도보다 신고 건수가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⁵⁾

인생의 다양한 문제로 힘이 들면 가장 의지하고 싶은 대상인 가족, 그리고 사람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은 가정이 팬데믹 사태 이후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회복시키며 치유를 이룰 수 있을까? 치유를 이루는 가정에 대한 구체적 담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치유에 대해 목회상담이 말하는 의미와 가치를 먼저 이해하고자 한다. 그래야 치유를 이루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가정을 위한 구체

적인 치유목회신학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 목회상담이 말하는 치유에 대한 의미

1. 목회상담은 치유를 하나님께 구한다

목회상담은 일반상담과 다르다. 일반상담에서는 상담자의 능력을 상담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내담자의 다양한 주호소문제(chief complaint)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자는 빠르고 분명한 진단과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실력을 요구받는다. 물론 목회상담 역시 이에 대해 동의한다. 따라서 목회상담가 역시 치열하게 연구하고 다양한 임상경험을 축적하리만치 수련한다. 그러나 목회상담가는 상담의 전(全) 과정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상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가장 잘 아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회상담가는 자신이 아무리 내담자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중지하고(epoché), 혼란과 불안을 자발적으로 지향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창 1:1-2). 그리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를 붙잡히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눅 18:13). 이것을 목회상담은 삼자대화(trialogue)라고 말한다. 비록 내담자의 주호소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에 기초하여 상담의 회기를 구성하고 구조화한다고 할지라도, 상담이 시작되어 내담자를 만나면 이것을 초기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담에 초대한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상담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 하나

님께서 상담의 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를 만나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본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출 15:26, 사 38:16, 렘 33:6, 말 4:2).

2. 목회상담은 치유를 믿음으로 현재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치유를 하나님께 구하는 목회상담적 이해는 미신적이거나 기복적인 치유에 대한 인식을 경계한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행 10:38; 고전 12:9). 그러나 하나님을 마술사 시몬이 생각했던 것처럼 주술적인 치유의 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행 8:9-24). 물론 상처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에 대한 갈망이 있다. 따라서 치유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엄중함과 그 현실에서 치유를 추구하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인식론적 모순이 있다. 바로 현재를 부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거나 현재 이후의 미래를 갈망하게 되면 우리는 현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현재는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극심한 통증과 아픔, 참을 수 없는 괴로움과 실패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현재는 너무도 가혹한 것이다. 무의미와 무가치를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질문해 보자. “정말 현재는 가치 없는가?”

상담심리학에서는 치유에 대한 과거지향 혹은 미래지향의 이유를 ‘자기에 대한 고집스러운 집착’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자기에 대한 내적인 환상, 즉 자기 집착이 만들어 낸 또 다른 자기, 즉 거짓자기(false self)에 대한 탐닉이며, 일종의 자기도취(narcissism)라고 분석하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상담심리학은 상처라는 현재와 현실을 수용하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을 권면한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은 기적이 아닌 믿음을 말한다(마 6:30, 8:10, 9:22, 17:17-20; 막 2:5, 5:34, 10:52; 눅 7:50, 12:28; 요 20:27; 롬 1:17, 5:1; 히 11:6; 약 1:6; 벧전 5:9; 요일 5:4).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생과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은혜로 받게 되었다는 신앙의 확증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히 10:14-18). 그러므로 성경은 고통스러운 현재임에도 그 현재에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말한다(막 4:35-41).

이러한 관점에서 목회상담은 치유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연결 짓는다. 더 나아가 이를 치유의 가능성이라 여긴다. 치유에 병적으로 매달리지도 않고 현재를 벗어나기 위해 안달복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영적 평안을 갖고 현재를 살 줄 안다. 비록 찢기고 상처받은 ‘고갈된 자기’(depleted self) 혹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상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현재를 받아들이며 슬픔을 슬픔으로 문질러 닦을 줄 아는 영적 신비, 즉 지혜를 깨닫는 치유를 지향한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로 누군가의 아픔을 달래고, 자신의 눈물로 누군가의 한숨을 닦아 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치유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치유에 대한 목회상담적 이해에 기초하여 치유를 이루어 가는 가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치유목회신학 원리를 정리한 후, 그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치유목회신학 : 치유를 이루는 가정의 세 가지 원리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보훈을 통해 먹는 것, 입는 것 등 인간적 욕구에 매몰된 사람들에게 시선의 확장을 권면하셨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들의 백합화를 보며 그동안 간과해 왔던,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 왔던 것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줄 아는 지평의 확장을 일깨우셨다.

중세 시대로부터 신학자들 사이에서 주목받았던 라틴어 하나가 있다. ‘스튜디오시타스’(면학심, Studiositas)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학자들은 ‘큐리오시타스’(호기심, Curiositas)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쉽게 말해, 성경을 읽었다고 다 안다며 관심을 거두어들인다면 호기심, 그러나 읽고 또 읽으며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갈 줄 안다면 면학심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호기심은 욕심에 기인한 행동이며, 면학심은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수님은 가난과 질병, 삶의 현재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복된 존재”라고 선언하셨다(마 5:3-12). 그리고 그들을 꼭 필요한 “소금”이라며, 또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며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셨다(마 5:13-16).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다(마 9:36-38).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히 9:28, 10:10). 스튜디오시타스를 살아 내신 것이다.

현재는 분명 괴로운 것이다. 우리가 인생이기에 그렇다. 흔들리지 않는 실존이 어디에 있는가. 힘겨운 발걸음 딛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말이다. 문제가 없다면 그는 산 목숨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현재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리고 고백한다. “하나님께서서 살아 계시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상처 입고 모자란 자신이지만 자신을 수용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를 산다. 그것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말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산다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모든 시간을 용기 있게 통합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말한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흔들리는 실존이지만 춤을 추듯 살아낼 줄 아는 것이다.

시인 정현종은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것을// 반병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아/ 꽃봉오리인 것을.”⁷⁾

노발리스(Novalis)라는 필명으로 더 많이 알려진 독일의 낭만파 시인,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폰 하르텐베르크(Georg Friedrich von Hardenberg)는 낭만을 “일상에서 거룩한 가치를, 평범에서 숭고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⁸⁾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고통에서 하나님의 뜻을,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다(고전 1:18-31). 그러니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낭만가가 아닌가.

거룩과 숭고를 발견하는 낭만가가 되려면 면학심과 같은 시선의 확장은 필수적이다. 성경은 이 시선의 확장을 ‘믿음’이라 말한다. 보지 않고도 증언하며 현재에 없는데도 사실이라며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려는 상상력을 갖기 때문이다(히 11:1). 그런데 이 믿음은 철저하게 자신을 해체하며 죄인이라 고백하지 못하면 이루기 어렵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회개이기 때문이다(고후 7:10; 벧후 3:9).

시인 이수경의 시, “미안한 마음”은 누군가의 마음에 이르는 인간 정서를 ‘미안함’이라고 말한다.⁹⁾

“시골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자꾸 미안하다 하신다// 고생시켜 미안하고/ 돈 없어서 미안하고/ 줄 게 없어 미안하고/ 못해 줘서 미안하고/ 못 먹인 것 미안하고/ 어린것에게 일만 시켜/ 다 미안하다는 할머니는// 꾸부렁한 허리/ 자꾸만/ 굽죄인다.”

“굽죄인다”는 말의 가운데 두 글자, 죄인.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며 미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사람도 하나님도 발견할 수 없다. 낭만에 이를 수도 없고 스튜디오시타스를 가질 수도 없다.

우리네 가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생이라는 연약한 실존이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더불어 함께 살기 때문이다. 그러니 갈등과 아픔, 고민과 한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가정의 치유를 일구어 가려면, 가정을 이루는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즉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미안함을 갖고, 현실과 현재를 살아내며 낭만과 면학심,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인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이제 치유를 이루는 가정의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며 치유목회신학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

1. 낭만을 살아낸다

2015년 10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홍윤숙 시인은 그의 마지막 시집에서 고통의 미학에 관해 말했다. “고통, 네 덕에 여태 살았다!” 그의 말은 울

림 깊은 지혜로 다가온다.¹⁰⁾ 가난했기에 더 가난한 이를 위해 가난한 지갑을 열었고, 많이 아팠기에 더 아픈 사람을 찾아 살뜰히 보살필 줄 알았다는 그의 말에서, 고통은 없애야 하는, 그래서 제거해야 하는 것이기보다는,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를 열어주는 통로임을 인식할 수 있다.

인간은 만족을 지향한다. 그러나 만족은 영원하던 것이 채워진 순간에 느끼게 되는 찰나적 쾌감에 불과하다. 그것이 지속되거나 유지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족은 만족과 다르다.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갖게 되는 어떤 마음의 풍요를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shalom)은, 무엇인가가 충족되었기에, 혹은 자신을 괴롭히던 것들이 제거되었을 때 느끼는 어떤 여유와는 다르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혹은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도 누릴 줄 아는 평정의 마음, 곧 자족이다.

치유를 이루는 가정의 원리, 그 첫 번째는 아무래도 낭만을 살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평범과 일상에서 거룩과 가치를 발견하며, 실존의 고통에서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자족의 마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해 보라. 현재를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은 저마다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이고 지고 산다. 더불어 함께 가정을 이루며 공동체를 이룰 때 낭만을 살 줄 모른다면 가정의 갈등과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탐구할 대상의 마음에 말을 걸듯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스튜디오 오시타스를 살지 못한다면 서로에게 주는 상처로 죽음과 같은 무의미와 무기력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말을 걸듯 서로를 바라보는 위대한 통찰.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니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이야기들을 주의 깊게 공감하며 서로를 발견하는 사랑 가득한 가정, 그 가정을 낭만을 살아내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3:13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외치며 사랑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원한다면 그 가정에는 믿음과 소망은 필수 불가결하다.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지루한 기다림의 연속일지라도 말이다. 믿음의 삶을 상담심리학에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고 말한다. 너무 쉽게 절망하지 않으며, 너무 쉽게 모든 것이 끝이 났다며 속단하지도 않는다. 다시 한번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살아낸다. 병들었지만 상처와 외상으로 힘든 현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해도 “아니요, 죽지 않았습시다.” 말하는 것이다.

나아가, 소망은 낙관과 다르다.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소망을 “절망이라는 이름의 토양에서 돋아나는 싹과 같다”라고 말했다. 예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려는 용기,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이다.

낭만을 살아낼 줄 안다면, 다시 말해,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을 살아낼 줄 안다면, 치유는 아득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현 상황에서도 치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하늘을 살다

현대 문명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원칙 한 가지는 분명한 답에 목숨 걸듯 매달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답을 말할 수 없으면 실패하고 퇴보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정답 추구’에 매달린 현대 문명에 의문을 표하는 학문이 ‘신학’이다. 신학은 믿음이라는 추상적

특성 위에 세워진 지성적 학문체계이며, 동시에 지성이란 여기는 과학과 객관의 영역에서 비이성적 학문이란 오해에도 ‘진리’를 말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신학은 구체적인 것과 분명한 것을 설명하는 학문일 수 없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진리를 말하는 학문이다(히 11:3). 그래서 신학은 모호함의 학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점에서 신학이야말로 모호한 인간의 인생에 가장 적합한 학문은 아닐까.

목회상담도 마찬가지이다. 목회상담은 하나님을 구한다. 그래서 혼돈과 어두움을 지향한다. 조화와 질서, 빛과 생명을 찾기 위해 말이다. 그렇기에 목회상담의 현장은 혼란함의 연속이다. 인간적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하기 때문이다.

치유는 신학과 목회상담과 유비를 이룬다. 이전에 알던, 혹은 바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세계관의 변화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늘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현실도피라고 할 수 없다. 현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땅에 두 다리를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용기를 갖는 것이다. 하나님을 고백하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 절실하게 살아낼 줄 아는 것이다.

치유를 이루는 가정의 원리 두 번째는 하늘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에 경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며 자신의 생각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함으로 오히려 모호함과 혼란을 찾아가려 하고, 암흑과 같은 삶의 터널에서도 하늘을 살 듯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다.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현세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가슴 아파하는 가족 구성원 서로를 보듬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대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어제를 이끄셨듯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잘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빌 4:5).

시인 서정홍은 자신의 시, “동무 생각”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했다.¹¹⁾

“아아, 이런 시원한 해물탕은/ 지난달에 이사 간/ 민영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데// 여보, 무김치 드셔 봐요/ 맛도 들고 맵싸한 게 정말 맛있어요/ 순동이 엄마가 옆에 있으면/ 잘 먹을 텐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동무 생각 저절로 난다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듣고/ 나도 문득 동무 생각이 납니다// 지난 여름, 교통사고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 오늘도 동생 슬기와 돌이서/ 저녁 밥 먹고 있을/ 내 짝 슬찬이 생각이 납니다.”

살뜰하고 애뜻한 마음이 가족을 넘어 이웃을 향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것을 치유라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3. 일상의 작은 변화에 감격하다

치유를 이루는 가정의 원리 세 번째는 일상의 작은 변화에 감동하는 것과 잇대어 있다. 우리의 삶에 지장을 주는 심리적 외상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어떤 충격의 여파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심리적 결과물들일 때가 많다. 때문에 우리 안에 방치되어 있거나 방어기제의 활동과 함께 숨겨진 심리적 상처의 변화를 조급한 마음으로 성취하려 애써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변화에 대해 느긋하며 넉넉한 태도가 필요하다. 변화에 대해 느긋해지거나 넉넉해지라는 말은 변화에 대해 염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 염원을 인내로 나타내며 작은 것에도 감격해하는, 즉 일상의 기적에 대해 기뻐하는 섬세함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치유는 기적적이거나 대단한 변화로 인한 결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

다. 오히려 아주 작은 삶의 변화에도 감동하는 것이다. 여전히 문제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극복했다고 여겼음에도 이전과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0.1도의 차이로 할지라도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비행기는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해 날아간다.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며 감동한다면 치유는 이미 도래한 것은 아닐까.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생각하지 못했던 삶에서 두 번, 세 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고백한다면,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던 삶에서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고 암송한다면, 삶의 문제가 여실하더라도, 치유는 이미 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0.1도의 차이지만 달라진 태도와 생각으로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치유의 삶이다. 0.1도의 차이이지만 달라진 관점으로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상황을 만난다면,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간다면, “우와!”, “이야!” 감탄사를 연발하며 일상의 작은 기쁨에 감격할 줄 안다면, 그것을 치유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IV. 맺음말 : 치유가정을 위한 제안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며 치유가정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고린도전서 13:4~7에 기초한 사랑의 다섯 가지 기준 자가 진단지를 활용하여 자신과 가정을 점검해 보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질 문	체크포인트	응 답	
당신은 가족 구성원에 대해 인내하며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나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들려주고 싶어 조금해 하지는 않는지,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를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하는지 자신을 살펴봅시다.	예	아니오

따뜻한 마음과 낭만으로 가족을 대하고 계시는지요?	시기심이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 욕심을 채우 기 위한 대상으로 가족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 지 점검해 봅시다.	예	아니오
가족을 대하며 회개하는 마음, 다시 말해 미안한 마음이 있나요?	가족 위에 군림하듯 교만(나-중심적)하고 무 례(거친 언행)하지는 않은지, 나의 이익을 채 우고자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예	아니오
하늘을 살듯 가족에 대해 관용하며 일상의 작은 부분에 감탄하세요?	가족에 대해 자주 화를 내지는 않은지, 나쁜 마음을 품도록 가족을 내몰았던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	아니오
가족을 믿음과 소망, 사랑 으로 대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반드시 잘해주실 것 이라는 믿음과 힘든 인생살이지만 용기 있게 살아내겠다는 소망으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예	아니오

만약 솔직하게 살펴본 자가 진단지에 단 하나라도 ‘아니오’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앞서 전술한 치유가정을 위한 세 가지 원리를 엄중하게 복기해야 한다.

둘째, 김진영은 “가정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한 사람의 인격의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환경이 된다”고 주장했다.¹²⁾ 환경으로서 가정을 형성하는 문화는 다름 아닌 가족 간 대화, 즉 의사소통이다. 치유가정을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 간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경청’(active listening)이다.¹³⁾ 경청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해서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에 담긴 감정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며 가족이 진술한 경험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때에도 훈수 두듯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되며, 정서를 ‘공감’하며 나누는 수준이어야 한다.

공감은 옳고 그름으로 누군가를 이끌기 위한 마중물과 같다. 따라서 공감과 동의는 같지 않다. 이해와 수용과도 다르다. 그렇다고 가식이거나 위선적인 것도 아니다. 진실한 마음이지만 동화되거나 혼합되지 않는 마치 페리코레시스(περιχώρησις)적 신비와 같은 것이다.

세 번째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경청하는 ‘내관’(introspection)이다.¹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감정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며 자신을 분석하는 것이다. 내관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자신을 둘러싼 어떤 감정이 찾아들 때, 그 감정을 잊거나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으로 해당 감정을 추적하듯 그 감정과 연결된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다. 내관을 통해 자신의 가진 감정의 실체를 가족과 나눠 보며, ‘나-언어’(I-language)로 자신을 진술한다면 자신에 대한 설명서를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족 감정 게시판”을 활용하여 그날그날 가족 구성원의 기분을 간단한 문장이나 그림으로 표현한 후, 서로에 대해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를 나눌 수 있기를 제안한다. 아주 간단한 활동이지만 감정 표현에 어색한 가족의 표현을 촉진하는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다.¹⁵⁾

네 번째로 제안하고자 하는 방안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낭만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일상 생활공간이 아닌 특별한 공간에서 모이는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가족을 위한 밤’이나 ‘부부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쉼과 안락을 누리 보는 것이다. 어느 곳이든 가족만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그 공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가진 사랑과 관심을 담백하게 표현하는 것이다.¹⁶⁾ 그곳에서 가족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방안은 가족의 영성이다. 크리스토퍼 라

이트(Christopher J. H. Wright)는 자신의 글, “Humility, Integrity, and Simplicity”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자세를 제안했는데, 그가 쓴 논문 제목과 같이 겸손과 일치, 그리고 단순함이었다.¹⁷⁾ 그는 신앙심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화라는 영적 상태로 자리매김할 때 영적인 파급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역설했다. 그렇다. 기독교 신앙은 분명 배타적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폭력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엡 2:16-18). 그렇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14:6)이라 말씀하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함으로 겸손(humility)을 이루는 것이다(고전 9:26-27). 또한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믿음과 현실의 삶을 일치(integrity)시킬 수 있어야 한다(약 2:14-17). 동시에 온갖 지식을 동원해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단순함(simplicity)으로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마 6:34; 롬 4:13; 약 1:6). 라이트가 말한 대로 세 가지 자세는 치유가정을 위한 중요한 근거이다. 기독 영성으로 치유를 이루는 가정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것이다.

제시한 다섯 가지 치유가정을 위한 제안과 더불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자가 진단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가족감수성 문항목록표(FSI: Family Sensitivity Inventory)를 통해 자신의 가족 감수성을 진단하며, 각 항목을 기준 삼아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가족감수성 문항목록표 중, 1~6번 문항은 ‘가족 대화 능력’을 묻는 항목이며, 7~12번 문항은 ‘가족 공감 능력’을, 13~18번 문항은 ‘가족 유대감’을 묻는 문항들이다. ‘예’에 표기하는 경우 1점을 가산하며, ‘아니오’에 1점을 가산하는 문항은 2, 5, 8, 10, 11, 14, 17번 항목이다. 가족감수성의 기준 점수는 12점인데, 12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점수가 높은 경우 가

족감수성이 좋고, 그보다 아래에 위치할수록 가족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 항	예	아니오
1. 나는 가족과 하루 30분 이상 깊이 대화한다.		
2. 내가 가족과 대화한다면 대부분의 대화 주제는 서로의 마음과 정서를 공감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돈, 건강, 공부, 취업, 운동 등 어떤 문제나 문제 해결에 관련한 것들이다.		
3. 나의 가족은 자신의 감정(슬픔, 기쁨, 분노, 불안 등)에 대해 적절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줄 안다.		
4. 나는 내가 가진 근심과 걱정 등, 마음에 있는 말을 가족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5. 나의 가족은 어떤 말을 주고받든지 쉽게 상처받는다.		
6. 가족 간 대화의 분위기는 대부분 밝고 긍정적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느낌이다.		
7. 나는 내 가족 구성원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각 세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8. 나는 내 가족 구성원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9. 나와 내 가족 구성원은 어떤 감정을 갖게 되면 서로 간에 쉽게 알아채고,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하게 대처한다.		
10. 가족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등 감정이 쉽게 격해진다.		
11. 가족 구성원 상호 간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아픔이나 상처가 있다.		
12. 나의 가족은 가면을 쓴 듯 가식적이지 않으며 서로 믿고 신뢰한다.		
13. 나는 내 가족 구성원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또는 기도 제목이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다.		
14. 나의 가족은 한자리에 함께 있거나,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15.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가족의 의견과 생각은 언제나 가장 중요하다.		

16. 여행, 식사 등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모임 이후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즐거움과 감사함이다.		
17.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힘든 일을 경험할 때, 나와 가족은 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거나 부담스러워한다.		
18. 다른 사람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내 가족만의 분위기와 경험, 혹은 이야기가 많이 있다.		

미주

- 1) 본 글은 이상억, “코로나시대, 2030세대를 위한 가정에 대한 질적연구 : 가족감수성 진단목록(FSI) 및 막스 반 마넨(Max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분석에 기초하여,” 『목회와 상담』 37(2021) 46-73와 이상억, “치유에 대한 분석적-비평적 이해의 관점에서 바라본 목회상담의 정체성 연구,” 『장신논단』 30(2007), 311-348, 그리고 이상억, “변화,” 『목회상담 실천입문』 (서울 : 학지사, 2009)의 내용 일부를 발췌,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 2) 목회데이터연구소 편, 『2020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교회 Vol. 2』 (서울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169.
- 3) 위의 책, 89-90.
- 4)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26697> [경남도민일보(김소미), 2023년 6월 7일 기사 : 2023년 6월 15일 접속]
- 5) <https://www.mk.co.kr/news/society/10747574> [매일경제(박나은), 2023년 5월 29일 기사 : 2023년 6월 15일 접속]
- 6) 거짓자기에 대한 개념은 Donald W. Winnicott의 책, *Playing and Reality* (New York : Routledge, 1982), 14, 64, 87을 참고하며, 자기도취의 역동에 대해서는 Donald E. Capps의 책, *Social Phobia* (St. Louis : Chalice Press, 1999), 131-137를 읽어 볼 것.
- 7) 정현중, “모든 순간이 다 꽃 봉우리인 것을,”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서울 : 문학과지성사, 2018), 9.
- 8) 이지훈, 『존재의 미학』(서울 : 이학사, 2009), 123.
- 9) 이수경, “미안한 마음,” 『소원을 말해 봐』(서울 : 책고래, 2021), 52.
- 10) 홍윤숙, 『그 소식』(서울 : 서정시학, 2012), 157.

- 11) 서정홍, “동무 생각,” 『닿지 않는 손』(서울 : 우리교육, 2008), 71.
- 12) 김진영, “21세기 가족과 목회상담 : 가치의 내면화 문제를 중심으로 본 세대 간의 관계와 가족상담,” 『목회와 상담』 1(2001), 45.
- 13) 이상익, “인격적 의사소통이 이끄는 목회상담,” 『학생생활연구』 6(2005), 95-110과, 이상익, “의사소통 형성을 위한 청소년 상담사의 자세 연구,” 『목회와 상담』 25(2015), 241-267을 참고할 것.
- 14) 이상익, “내관 방법론(Introspection Methodology)에 기초한 창조적 학습방법론에 대한 연구,”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보고서』 3(2007), 77-113을 읽어 볼 것.
- 15) 감정은 단순히 사적 영역에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 사회적인 맥락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을 나눈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위치한 사회 문화적인 맥락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미영, “목회상담에서 감정의 사회성,” 『목회와 상담』 18(2012), 150-180을 읽어 볼 것.
- 16) 레이 올덴버그(Ray Oldenburg)는 자신의 책, *Celebrating the Third Place*에서 컵과 안정, 그리고 회복의 공간으로서 가정을 벗어나 술집과 마트, 커피숍이나 식당, 공원과 거리를 방황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Ray Oldenburg, *Celebrating the Third Place* <NY : Marlowe & Company, 2001>을 읽어 볼 것).
- 17) Christopher J. H. Wright, “Humility, Integrity, and Simplicity,”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39-43(2015), 214-218.

예수님의 치유에서 본 접촉치유의 사회관계적 의미

김중호 교수(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I. 머리말

접촉은 사람과 사람의 신체가 맞닿음으로써 이뤄지는 일련의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접촉행위에서 발생하는 접촉경험은 신체만이 아니라 심리, 정서, 사회관계적인 경험으로 확장된다. 접촉에는 긍정적인 접촉과 부정적인 접촉이 있다. 긍정적인 접촉은 부드럽고 따뜻한 접촉으로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만들고 인간관계를 향상시킨다. 접촉 문제의 전문가인 데스몬드 모리스(Desmond Morris)는 이렇게 말했다. “한 번의 따뜻한 접촉경험은 [그 영향력이] 백과사전에 있는 ‘사랑’의 모든 말들을 함께 모아놓은 것보다 강력하다.”¹⁾ 부정적인 접촉은 차갑고 폭력적인 접촉으로서 불만과 고통을 유발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접촉과 접촉치유(touching therapy)에 주목하고 싶은 이유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방식이 비대면과 비접촉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많은 교회에서 갈등과 분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감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에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말은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비접촉’ 등이었다.²⁾ 우리들은 비대면, 언택트(untact),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온라인(online) 수업 등의 용어에 익숙하다. 컴퓨터와 휴대폰을 사용하는 인터넷, 모바일 시스템, 빅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SNS), 화상통화, 줌(zoom) pc버전 등의 비대면 소통방식이 더욱 확산되었다. 이런 변화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예배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떨어져 앉아야 했으며, 대면예배가 축소되고 줌이나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예배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였다. 문제가 발생했다. 교우들이 그런 변화에 익숙해지면서 대면예배의 참석률이 급강하했고, 성도 수가 감소했으며, 교회의 재정과 사역과 활동이 축소되었다.³⁾

컴퓨터와 휴대폰 그리고 줌 사용 등을 통한 간접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활동에 경제성과 편리성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남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대인간 관계와 소통이 도구사용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에 익숙해짐으로써 직접적인 만남을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자기표현의 기회가 축소되고 대인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둘째, 몸의 움직임과 접촉을 통한 신체적인 소통방식이 약화되고 도구와 오직 말에 의존하는 먼 거리 소통방식이 주류가 됨으로써 의사소통의 내용과 질이 제한될 것이다. 셋째, 피부접촉에 대한 기회

가 사라짐으로써 접촉에 대한 욕구가 방치되고 결핍될 수 있다. 접촉 욕구의 결핍은 접촉에 대한 배고픔(touching hunger)을 낳을 것이며, 그 배고픔은 다양한 영역에서 부적응적이며 역기능적인 문제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접촉치유에 관심을 두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이다. 이것은 교회의 치유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많은 사안들이 얹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며 또한 필자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접촉과 접촉치유라는 것이 갈등이나 분열보다는 화합과 평화의 과정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을 뿐이다. 교회는 분리와 단절이 아닌 연결과 연합의 공동체이다. 접촉치유의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는 갈등과 분열과 학대와 폭력 등으로 발생한 단절의 상처를 극복함으로써 잃어버린 연결감을 회복하는 데 있다. ‘연결감의 회복’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논의의 목적은 상담과 치유의 관점에서 접촉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고 접촉경험을 통한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사역, 특히 접촉치유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회에서 접촉과 접촉치유를 활용한 사역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예수님의 접촉치유

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사례들이 많다. 공관복음에는 예수께서 병자들의 질병을 치유해 준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예수께서 치유하는 방법은 크

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치유이고, 다른 하나는 환자들의 몸에 손을 대는 접촉치유이다.⁴⁾ 다음은 예수께서 손으로 병자들을 만짐으로 치유한 접촉치유의 사례들이다.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손으로 만져서 뜨게 했고(마 9:27-31), 열병으로 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손으로 잡아 일으켰으며(막 1:30-31),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귀와 혀에 손으로 침을 발라 접촉함으로 치유했고(막 7:32-35), 나병환자의 몸에 손을 내밀어 접촉함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었으며(막 1:40-42), 회당장 아이로의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선포함으로 일어나서 걷게 했다(막 5:41-42). 한편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 가를 만짐으로 치유받기도 했다(눅 8:43-48). 이런 치유의 사례들은 접촉이 예수께서 사용한 하나의 치유방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유할 때에 예수님은 손으로 그들의 몸을 만졌다. ‘만진다’는 의미의 헬라어는 ‘ἅπτω’(합토)이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합토’라는 용어가 예수님에게만 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 외의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누군가를 만지는 행동을 표현할 때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⁵⁾ 이것은 신체접촉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중요한 방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 창조와 생명의 손이며 구원과 은혜의 손이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다(창 2:7). 즉, 하나님께서는 접촉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한다(출 32:11). 접촉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치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III. 접촉치유의 사회학적 의미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병자들의 몸을 만지는 신체접촉을 치유의 방법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접촉과 만짐에는 질병이 나왔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격리되고 추방당한 사람들을 다시 사회 공동체 속으로 회복시켜서 그 공동체의 가족이 되게 했다는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신체접촉이 갖는 사회학적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던 정결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유대의 사회적 통념 중의 하나는 정결한 것을 불결 또는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경계선적인 태도이다. 즉, 정결은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사고이고 가치이며 그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이기도 하다.⁶⁾

유대 전통에서 정결은 부족한 것이 없는 온전함과 모든 것은 제자리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질서를 의미했다. 그런 규례와 전통에 따르면, 질병을 앓고 있는 병자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병자가 아닌 일반 회중에는 머무를 수가 없었다. 병자들은 회중의 진영 밖으로 추방되었다(레 13:44-46). 이런 전통은 제사 의식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흠이 있는 제물은 제사의 제물로 사용될 수 없었다. 유대 사회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정결에 대한 규례가 있다. 즉, 성전을 중심으로 정결과 거룩함의 공간이 구분된다. 성전 안의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이며, 그곳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거룩하지 않은 공간이 된다. 이방인이 거하는 지역은 성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 결과 불결하고 부정한 공간이 된다. 그런 맥락에서 질병과 신체의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는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계선 밖의 공간이어야만 했다.⁷⁾

이런 정결의 규례는 불결하고 부정한 것들, 즉 취식을 금한 동물의 고기,

질병을 앓고 있는 병자,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의 시체 등과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민 5:2-3). 부정한 것과의 접촉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선을 허물어서 온전한 사회 공동체와 그 질서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금지 규례는 대제사장과 같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지켜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그들의 병든 몸을 직접 손으로 만졌다. 불결하고 부정한 것을 만진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정결규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이다. 유대 사회의 전통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매우 혁명적이며 도전적인 행동이었다. 네이레이(Neyrey)에 따르면, 병자들의 병든 몸을 만지는 예수님의 접촉행동은 유대 사회의 규례와 한계를 깨트리는 행동이라고 했다.⁸⁾ 그런 예수님의 접촉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구약의 정결규례를 깨고 새로운 규례를 만든 것이다. 새로운 규례는 온전하지 못한 병자들의 인격과 영혼을 사랑하며 손을 내밀어 그들의 몸을 만짐으로써 그들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자와 온전하지 못한 자의 경계선을 허물고 두 영역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과 분리와 단절이 아니라 포용과 연결과 손잡음이 있는 열린 나라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 주고 그 치유를 선포할 때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다. ‘가라’는 말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막 10:52),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줄 때(막 1:44, 눅 17:14), 38년 된 중풍병자를 걷게 할 때(요 5:8) 그들에게 ‘가라’고 선포했다. ‘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ὑπάγω’(휘파고)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ὑπάγω’라고 선포했을 때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었다. 즉, 이제 당신(병자)은 치유 받았으니 당신이

속해 있었던 이전의 가족 및 사회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⁹⁾ 왜냐하면 이제는 그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해졌기 때문이다.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병자들의 고통은 신체적인 아픔만이 아니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멸시당하고 급기야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으로부터 쫓겨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특징은 단지 질병을 없애 주는 것만이 아니라 격리되고 단절되었던 사회적 관계를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IV. 연결감의 회복

치유란 무엇일까? 예수님의 접촉치유에서 우리는 치유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치유는 상처, 트라우마(위협적이고 충격적인 사건), 질병(신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장애) 등의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그 고통의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처, 트라우마, 질병에는 다양한 증상과 특징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는 격리, 분리, 단절, 끊어짐, 소외 등이다.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되는 대상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그 대상이 나와의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 대상들과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철수되어 자기 내부 세계에 갇힐 수 있다. 이처럼, 상처와 장애의 사회 심리적 특징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고 분리되는 단절감이다.¹⁰⁾

이런 소외감과 단절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

하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같은 외상적 사건에는 필연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는 자기의 힘을 남용해서 피해자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다. 즉, 피해자가 겪게 되는 소외감과 단절감의 일차적인 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 그것은 피해자를 지지하거나 따뜻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외부의 방관자들이다. 외부의 방관자들은 사회적인 무리, 곧 일반적인 대중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의 방관자들에 의해서 가해지는 이차적인 가해 행동이다. 피해자들은 이차적인 가해 행동 때문에 더 아파한다. 이차적인 가해 행동은 종종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통념과 관계가 있다. 우리는 그런 예를 고대 유대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고대 유대 사회는 심각한 질병을 가진 환자를 일반 사회 공동체로부터 추방해야 한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치유란 무엇일까? 상처와 장애의 한 특징이 분리와 단절이라면, 치유는 그 반대편에 있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 그 무엇이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금지되었던 행동을 했다. 손으로 병자의 몸을 만진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접촉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격리가 아닌 포용, 분리가 아닌 통합, 단절이 아닌 연결, 끊어짐이 아닌 이어짐, 소외가 아닌 연합이라 할 수 있다. 즉, 치유에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연결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트라우마 연구에 공헌을 한 주디스 허만(Judith Herman)은 트라우마라는 장애에서 회복되는 데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외부의 다른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¹¹⁾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은 세상과의 연결을 의미하고, 세상과의 연결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는 것이다. 여기에 접촉행동의 치유적인 의미가 있다. 접촉의 특징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에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우들 간의 대립과 충돌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분열의 위기를 겪기도 한다. 대립과 갈등은 집단과 진영을 형성함으로써 집단적인 충돌로 확대된다. 집단은 자기의 부정성과 그림자(shadow)를 투사(projection)함으로써 상대 집단을 더 나쁜 집단으로 만든다. 그림자란 분석심리학자인 구스타프 칼 융(Gustav Carl Jung)의 용어로서 그것은 스스로 인정하기 싫어서 부정하거나 억압하고 있는 자기의 본성과 욕망 또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죄성 등을 의미한다. 자기의 그림자를 부정하거나 억압하면 그 그림자를 상대방에게 투사할 수 있는데, 이때 투사란 그 그림자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¹²⁾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나쁜 대상이 됨으로써 둘 사이에 반목과 적대감이 생긴다. 이런 투사는 개인과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집단적인 투사는 더욱 강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집단이 만들어 내는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 때문이다. 그 결과 집단과 집단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단절감이 더욱 강화된다.

그러므로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것도 단절감으로 잃어버린 연결감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결감의 회복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기 집단 안에 있는 그림자를 인정함으로써 투사를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자기와 자기가 속한 집단 안에 있는 어두운 욕망과 감정과 죄성을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투사가 사라지고 상대편 집단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가 마련된다. 접촉을 통한 연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V. 접촉과 접촉경험

접촉은 특별한 경험이다. 접촉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경험이다. 첫째, 접촉은 ‘이중융합의 경험’이다. 이중융합이란 내가 상대방을 만지는 행동인 동시에 내가 상대방에 의해서 만져지는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접촉은 100% 능동태도 아니고 100% 수동태도 아니다. 이 둘의 태도가 공존함으로써 하나로 융합되는 특별한 경험이다. 그런 접촉의 이중성을 메를로퐁티(Merleau-Ponty)는 ‘이중감각’이라고 했다.¹³⁾ 융합의 상태가 되면 접촉의 대상과 대상 사이에 주체와 객체라는 역할구분이 없어진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온전한 연결감이 형성된다.

둘째, 접촉은 두 사람이 함께 하는 ‘동시동소의 경험’이다. 동시는 같은 시간을 말하며 동소는 같은 장소를 의미한다. 접촉은 두 사람이 지금 여기(here & now)에 동시에 있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 있어야 한다. 접촉은 시간과 공간을 한정한다. 따라서 접촉은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심리학이나 치료적 접근 방식과 조화를 이룬다.

셋째, 접촉은 생각이나 상상이 아니라 신체적인 체험에 의해서 이뤄지는 ‘실재성의 경험’이다. 즉, 접촉은 직접적이고 생생한 실증적인 경험인 것이다. 따라서 접촉경험은 부인될 수 없다. 우리말에 접촉의 실재성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다. 예를 들면, “피부로 느낀다”, “피부에 와닿는다”, “꿈인지 생시인지 꼬집어 보라”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 말들은 접촉이 매우 실재적 경험이라는 것에 근거한 표현들이다. 접촉은 몸과 감각과 감정과 의식이 명료하게 깨어 있는 경험이다.

넷째, 접촉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 0상태의 경험’이다.¹⁴⁾ 접촉은 거리를 무효화시킨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어느 정도의 떨어져 있는 거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접촉에는 거리가 없다. 접촉은 가장 가까운 만남이다. 그런 의미에서 접촉은 만남의 최종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확인할 때, 그것을 눈으로 보고(시각 사용), 귀로 듣고(청각 사용), 마지막에 손으로 만져 봄으로써(촉각 사용) 그 존재를 확인한다. 동물 중에는 접촉성 동물(원숭이, 강아지 등의 포유류)과 비접촉성 동물(제비, 갈매기 등의 조류)이 있는데, 접촉성 동물이든 비접촉성 동물이든 접촉거리 0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짝짓기를 할 때이다. 짝짓기의 접촉은 암컷과 수컷 사이에 이뤄지는 만남의 최종 경험이다.

이런 접촉의 의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접촉은 상처와 트라우마 그리고 갈등과 분열로부터 치유와 회복, 즉 연결감으로 가는 방향 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접촉은 두 사람 또는 두 집단 사이에 이뤄지는 이중융합의 경험이며 만남의 최종 경험으로써 연결감을 회복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결감의 회복은 교회 공동체가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실천적인 과제이다.

VI. 접촉욕구와 접촉치유

모든 포유동물들은 접촉을 좋아하며 접촉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욕구는 먹이에 대한 욕구만큼이나 강렬하다. 어미는 새끼가 태어나면 혀로 새끼의 몸을 훑아 주고 마사지해 준다. 새끼도 어미의 몸에 달라붙어 있거나 같은 새끼들끼리 붙어 있으려고 한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포유동물에 속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근본적으로 접촉을 좋아하고 접촉에 대한 본성적인 욕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접촉연구의 전문가인 헬렌 콜튼(Helen

Colton)에 따르면, 접촉은 인간이 지닌 강력한 욕구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콜튼은 자신의 책, 『접촉의 선물』(*The Gift of Touch*)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다음은 콜튼의 글을 내용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약한 것이다.)

“우리들은 태초 이래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즉 지혜와 지식의 인간으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다음의 차원인 호모 바이올로지쿠스(Homo Biologicus), 즉 생물학적인 인간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생물학적인 유기체로서의 인간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며 가장 즐겁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인간의 강력한 욕구 중의 하나가 접촉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이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바이올로지쿠스의 결합체로서 존재할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사랑으로 가득하며 세상은 더 건강하고 살기 좋은 터전이 될 것이다.”¹⁵⁾

접촉경험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간의 삶은 접촉경험의 연속이다. 생명의 잉태와 출산은 접촉으로 이뤄진다. 출생의 과정은 신생아와 엄마 사이의 강렬한 접촉 경험이다. 태어난 유아는 엄마와의 접촉을 통해서 성장한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안아 주어야 자기 자녀가 된다.”는 가르침이 있다.

접촉은 신체적인 통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말에 “내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이 있다. 엄마가 어린 자녀의 배에 손을 얹고 문질러 주면 배가 아프던 느낌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말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심리학자인 로날드 멜자크(Ronald Melzack)와 해부학자인 패트릭 월(Patrick Wall)은

지압이나 마사지처럼 피부를 문지르고 피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어떻게 통증을 완화시키는지 그 원리를 밝혀냈다. 그들은 그 원리를 ‘게이트 통제(gate control) 이론’이라고 이름 붙였다. 게이트 통제 이론에 따르면, 뇌신경에는 몸의 아픔과 고통을 뇌에 전달하는 ‘통증 전달섬유’(A-delta섬유)와 마사지를 할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각을 뇌에 전달하는 ‘촉각(압각/미각/온각) 전달섬유’(A-beta섬유)가 있는데, 그 두 신경섬유의 전달 속도가 다르다. 즉, 촉각 전달섬유의 속도가 통증 전달섬유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 따라서 피부를 마사지하거나 문질러 주면 몸의 통증이 뇌에 전달되기 전에 부드러운 촉각의 느낌이 먼저 뇌에 전달된다. 그러면 전달 속도가 늦은 통증 전달섬유의 게이트가 그 문을 닫게 됨으로써 통증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¹⁶⁾

접촉치유는 안전하고 부드러운 접촉행동을 통해서 결핍된 접촉욕구를 충족하며, 그 욕구의 결핍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또한 이미 발생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치유의 한 방법이다. 연구에 따르면, 접촉경험은 불안과 대인 공포증을 완화하고 친밀감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분노와 폭력성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바바라 투이(Babara Toohey)와 준 비어만(June Bierman)은 접촉치료로서 포옹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들에 따르면, 포옹은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옹은 자기긍정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며, 그 결과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며 꺼안고 싶은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¹⁷⁾ 캐슬린 키팅(Kathleen Keating)은 간호사 출신의 심리학자이며 포옹요법가다. 포옹요법이란 정신적인 장애를 치유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포옹을 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키팅은 말하기를, 접촉과 포옹에는 고통, 근심, 절망감을 해소하고 생존의 의지를 강화시켜 주는 에너지가 있다고 했다. 키팅에 따르면, 포옹은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VII. 맺음말 : 접촉 프로그램

현대사회의 문제는 아이러니하다. 성적 개방과 더불어 성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접촉의 배고픔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성적 의도가 없는 자연스러운 피부접촉의 기회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접촉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결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험과 컴퓨터, 휴대폰, 줌 화상 등의 간접적인 소통방식은 접촉의 기회를 더욱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접촉 욕구의 결핍은 접촉에 대한 배고픔을 낳고 접촉에 대한 배고픔은 대인관계에서 부적절하고 병리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접촉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과 대상과 장소가 필요하다. 이것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가정과 교회가 생각해야 할 과제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접촉치유는 그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한 가지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갈등과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의 충돌이 교회의 갱신과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는 기본적으로 연결과 연합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갈등과 분열을 지양하고 연결과 통합을 지향한다. 교회가 갈등과 분열의 상태에 있을 때 교회 안에는 단절감이라는 심리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갈등이 심화될수록 그 단절감은 커진다. 치유란, 그 단절감으로 잃어버린 연결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접촉은 잃어버린 연결감을 다시 찾고 그 연결감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접촉은 만남의 최종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연결의 집단이며 잃어버린 연결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도와주고 수평적으로는 교우들과의 연결을 도와준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비유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기능적인 특징이 연결과 연합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었고 또한 그들이 잃어버렸던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었다.

연결감은 건강한 집단의 표징이다. 건강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심리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집단이 연결감의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때 치유와 회복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주디스 허만은 이렇게 말했다. “사회적 연결의 회복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이런 연결이 집단보다 더 즉각적이고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경험되는 장소는 없다.”¹⁹⁾ 이것은 연결감의 회복이 집단의 중요한 기능이며 또한 집단은 연결감을 회복하는 효과적인 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연결감의 회복이라는 과제에 주목하고 그 회복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연결감의 회복은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상처만이 아니라 관계적이며 사회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연결감을 경험할 수 있는 안전한 집단이다.

접촉과 연결감의 회복이 교회 공동체의 치유와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교회의 예배와 사역과 활동에서 접촉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교회마다 의미 있고 창의적인 순서와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교우들이 일어나서 이동하며 서로 손을 잡고 축복의 말을 나누거나, 짝을 지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순서를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다. 여러 교우들이 마음이 무겁고 아픈 사람의 몸에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공동접촉 기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접촉 기도는 서로 불편하고 갈등 가운데 있는 교우들 사이에 더욱 필요하다. 접촉 그 자체가 연결을 의미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접촉과 연결감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포옹의 시간, 교우들 간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교대로 상대방의 손을 부드럽게 지압하는 손 마사지의 시간, 교우들이 서로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며 섬기는 세족식 등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접촉 프로그램들이다. 필자는 학생들과 함께 그런 작업을 해 보았는데 그 반응이 매우 좋았다.

물론 그런 접촉행동을 실천하는 데는 어려움도 있다. 마음이 닫혀 있거나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의식적으로 먼저 접촉행동을 실천하면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있다. ‘제임스-랑게(James-Lange)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마음이 행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마음을 만든다는 이론이다. 즉, 마음(생각과 감정)은 행동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즐거워지는 것이며, 또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슬퍼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⁰⁾ 제임스-랑게 이론을 믿음과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우리

는 마음에 감동이 되어 “아멘” 하지만, 아직 감동이 없을지라도 의식적으로 “아멘” 하면 마음에 감동이 생길 수 있다. 이 이론을 접촉치유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마음이 열리고 기분이 좋아서 접촉을 하기도 하지만, 마음에 준비가 안 되었을지라도 의식적으로 접촉을 하면 마음이 열리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유할 때에 손을 내밀어 그들의 몸을 만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접촉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활동 시간에 다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접촉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수 있다. 그 목적은 연결감을 회복함으로써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연결감이 회복되면 상처, 질병, 차별, 반목, 분열 등으로 발생한 단절감이 사라지고 교우와 교우들 사이에 서로 손을 맞잡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 갈 것이다.

미주

- 1) Morris, Desmond, *Intimate Behaviour*, 박성규 역, 『접촉』, 서울 : 지성사, 1994.
- 2) 이서영, “비접촉 시대에서 바라본 접촉의 의미 - 마가복음 1장 40-45절의 예수와 나병환자의 접촉을 트라우마 치유의 관점에서 읽기”, 『신학사상』, 191집 2020 겨울, 15.
- 3) 류병수,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목회를 위한 설교”, 『신학과 실천』, 74(2021), 171-177.
- 4) 정덕희, “신약에서의 치유개념”, 『구약, 신약, 목회상담에서의 치유개념이해』, 주제연구를 위한 세미나. 제107회기 총회주제연구위원회, 2023, 21.
- 5) 이서영, Ibid., 18.
- 6) Jerome H. Neyrey, “The Idea of Purity in Mark’s Gospel”, 93, recite. in 이서영, Ibid., 20.
- 7) 이서영, Ibid., 21.

- 8) Jerome H. Neyrey, Ibid, 112-113, recite. in 이서영, Ibid., 23.
- 9) 정덕희, Ibid., 23 ; Green Joel B., IVP 번역실 역, “치유” 『IVP 성경신학사전』, 서울 : 2000. 365.
- 10) Judith Herman, *Trauma and Recovery*, Basic Books, 1997, 52.
- 11) Judith Herman, Ibid., 197.
- 12) 이부영, 『분석심리학』, 서울 : 일조각, 1998, 71-77.
- 13) Maurice Merleau-Ponty(1945), *Phenomenologie de la Perception*, recite. in Yamacuchi Hajime, 김정운 역, 『애무 만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2007, 서울 : 프로네시스, 35. 48-49.
- 14) Yamacuchi Hajime, 김정운 역, Ibid., 57-60.
- 15) Helen Colton, *The Gift of Touch*, recite. in Kathleen Keating, *The Hug Therapy Book*, 어퀘리언서적 번역연구실 역, 『안아 주세요』, 서울 : 어퀘리언서적 번역연구실, 1986,
- 16) Ronald Melzack & Patrick Wall, recite. in Yamacuchi Hajime, 김정운 역, Ibid., 242-243.
- 17) Babara Toohey & June Bierman, recite. in Kathleen Keating, *The Hug Therapy Book*, 어퀘리언서적 번역연구실 역, Ibid.
- 18) Kathleen Keating, *The Hug Therapy Book*, 어퀘리언서적 번역연구실 역, Ibid.
- 19) Judith Herman, Ibid., 215.
- 20) William James(1892), “Psychology : The Briefer Course” ; Carl G. Lange(1885), “The Emotion” ; Walter B. Cannon(1927), “The James-Lange Theory of Emotion : A Critical Examination and An Alternative Theory”, recite. in Yamacuchi Hajime, 김정운 역, Ibid., 3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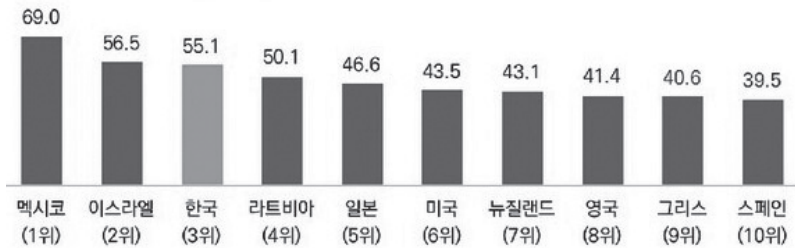
사회치유에 대한 목회적 이해와 접근

김형석 목사(서울서북 / 삼송교회)

I. 머리말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와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2013년 이후 매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차례의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지난 10년간 이런 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 또한 두 기관이 2022년 공동 조사한 ‘2022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서도, 윤석열 정부 이후 사회갈등이 더 늘었다고 응답한 국민이 57.8%로 나타났다. 동시에 아래의 도표에서처럼 2013년 이후 지난 8년 동안 OECD 30개 회원국 갈등지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 사회 갈등지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 수 있다.

:: OECD 30개 회원국 갈등 지수²⁾



자료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보도자료, “국가갈등지수 OECD 글로벌비교” 2021.08.19.

이런 갈등, 분쟁, 분열이 심한 사회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적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게 된다. 이 글은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 사회 갈등과 분쟁에 대한 교회의 역할, 특히 “사회치유에 대한 목회적 이해와 접근”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치유목회적 방법론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 사회의 각종 병리적 사회 갈등 및 분쟁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봄으로 사회를 진단한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각종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한 후에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병폐의 종류와 그 심각성을 목회적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병리적 현상이라는 표현은 일시적, 부분적 현상이 아니라 반복적이며 고착화된 심각한 현상을 의미한다.

둘째, 각종 사회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간략하게 살필 것이다. 적절한 해답과 대응을 찾기 위해서는 곧 원인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갈등이 내재된 분열이라고 한다면 분쟁은 현상화된 분열이다. 표면화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재된 갈등을 완화·해소할 수 있다면 예방적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중요한 접근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정치·경제·사회적 원인을 우선하기보다는 성경적 관점 또한 목회적 관점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것은 성경적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셋째, 사회적 치유에 대해 성경은 어떤 치료를 말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것은 목회현장에 필요한 실제적이고 성경적 방법론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갈등과 분쟁을 다루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교회 외부의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사회치유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주소이다. 성경적 방법론을 찾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교회가 처한 각자의 현실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목회적 통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다.

II. 한국사회 갈등과 분쟁의 현주소

1. 세계 1위의 갈등

2021년 6월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정책연구소는 ‘세계문화전쟁’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28개국의 성인 2만 3,004명에게 12개 항목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의 정도를 조사했는데, 그 연구 결과 한국사회는 7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즉, 진보와 보수 이념갈등, 정당 간 정치 갈등, 남녀 갈등, 학력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간 갈등, 종교 갈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연구 조사 결과를 볼 때 한국 사회는 글자 그대로 심각한 갈등, 분열,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인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남북관계의 긴장과 극한

의 대치, 지역 갈등, 노사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분노사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문관인 영국왕립정신의학회 수잔 오코너 박사(신경정신과 의사, OECD 수석조사관)는 2012~2013년 한국을 방문 조사한 뒤 본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인의 정신적 고통은 만연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³⁾ 오코너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스트레스가 만연된 사회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치면 곧 바로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가득 찬 사회가 바로 한국사회”라고 부연설명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스트레스는 분노의 일종이다. 우리 사회는 분노로 가득한 ‘분노사회’인 것이다. 다소간의 연구 조사의 차이가 있지만, 오윤성 교수(순천향대 경찰행정학)는 2023년 한 인터뷰 방송에서 캐나다 범죄심리학자의 자료에 근거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해 대사회적 분노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psychopath) 또는 소시오패스(sociopath)의 추정 인구비율이 전세계 인구 중 1%에 해당한다고 말했다.⁴⁾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정서적 특징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공감능력”과 공격성과 연결되는 “분노”이다.⁵⁾ 이러한 분노는 다양한 방식으로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심리적 특징상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명당 1명인 셈이다. 영아유기사건, 불특정다수에 대한 묻지마 폭행 등 최근에 일어나는 반사회적 사건들을 통해 분노사회의 위험성이 드러난다.

분노는 갈등, 분쟁, 분열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요인으로 갈등과 분쟁을 견잡을 수 없는 단계로 촉발시킨다. 상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비합리적 분

노는 모든 갈등과 분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높은 자살률

수잔 오크너는 2013년 4월 ‘OECD가 본 한국의 정신건강정책 과제’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이 1995년 이후 자살률의 감소추세를 보이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153.6%나 증가했다”고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⁶⁾

정부 통계청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03~2016년까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했다. 2017년 리투아니아에 1위 자리를 내주었다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다시 1위가 되었다.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 그리고 전체 자살률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수잔 오크너는 이것을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말했듯, 그는 스트레스와 자살률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할 지적이다.

:: 성별 및 연령집단별 자살률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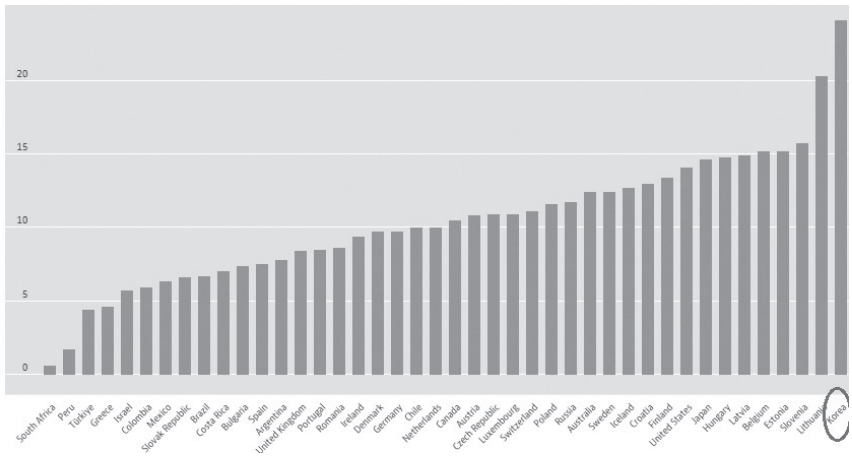
(단위:인구 십만 명당)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 체		31.0	31.2	31.7	28.1	28.5	27.3	26.5	25.6	24.3	26.6	26.9	25.7	26.0
성	남자	39.9	41.4	43.3	38.2	39.8	38.4	37.5	36.2	34.9	38.5	38.0	35.5	35.9
	여자	22.1	21.0	20.1	18.0	17.3	16.1	15.5	15.0	13.8	14.8	15.8	15.9	16.2

전체 평균	10-19세	6.5	5.2	5.5	5.1	4.9	4.5	4.2	4.9	4.7	5.8	5.9	6.5	7.1
	20-29세	25.3	24.4	24.3	19.5	18.0	17.8	16.4	16.4	16.4	17.6	19.2	21.7	23.5
	30-39세	31.4	29.6	30.5	27.3	28.4	27.9	25.1	24.6	24.5	27.5	26.9	27.1	27.3
	40-49세	32.8	34.1	34.0	30.9	32.7	32.4	29.9	29.6	27.9	31.5	31.0	29.2	28.2
	50-59세	41.1	40.1	41.2	35.3	38.1	36.4	34.3	32.5	30.8	33.4	33.3	30.5	30.1
	60-69세	51.8	52.7	50.1	42.4	40.7	37.5	36.9	34.6	30.2	32.9	33.7	30.1	28.4
	70-79세	79.0	83.5	84.4	73.1	66.9	57.6	62.5	54.0	48.8	48.9	46.2	38.8	41.8
	80세 이상	127.7	123.3	116.9	104.5	94.7	78.6	83.7	78.1	70.0	69.8	67.4	62.6	61.3

:: 2021년 국가별 자살률⁸⁾

(단위: 인구 10만 명당, 2021년)



OECD 자료

4. 이혼율

현재 한국의 이혼율은 OECD 34개 국가 중 9위이고 아시아국가 중 1위

다. 이혼은 가정의 위기를 반영한다.⁹⁾ 이것은 부부의 관계를 넘어 가족구성원 전체의 위기가 된다. 과거 이혼사유의 1위는 성격차이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과 분쟁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회갈등과 분쟁에 있어서 가정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65세 이상 황혼 이혼율이 2013년 이후 4배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혼에 따른 가정의 위기는 전 연령층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각종 사유로 이혼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업 역시 이전과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다. 결혼전문업체뿐만 아니라 이혼전문업체, 이혼에 관한 법률시장 등도 함께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 준다.

5. 노사갈등

2023년 6월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한국의 극심한 노·사·정 갈등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노동계는 한국정부의 노동 탄압을 비판했고 정부 대표와 경영계는 노동개혁과 노사법치주의 확립이라고 반박했다. 국제기구에서 평가한 한국의 노사협력 지표는 처참한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141개국 중 13위였으나, 노사협력 순위는 130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2019년)이다.¹⁰⁾ 2019년 이후 지금까지도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의하면 2019년 이래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노사협력 부분에서 평가대상 63개국 중 항상 꼴찌였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노사관계의 현주소이다. 노사갈등은 늘 사회갈등으로 이어진다. 노사 간 협의와 조정 등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극한의 갈등과 분쟁이 확대됨으로써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6. 사회건강성

사회건강성의 지표가 되는 각종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¹¹⁾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무려 50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 사회 갈등과 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21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자살율, 자살증가율, 저출산율, 낙태율, 남녀 임금격차, 노인빈곤율, 최저임금, 세부담 속도 증가, 사교육비 지출, 식품 물가 상승률, 실업률 증가폭, 노령화 지수, 미혼 증가율, 어린이 행복지수 최저, 청소년 행복지수 최저, 자동차 접촉사고율, 보행자 교통사망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노인 교통사고비율, 교통사고 사망률, 가계부채

이러한 항목들은 직접적인 관계상의 갈등과 분쟁은 아니지만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촉발시키도록 작용할 수 있는 2차적인 요인들이다. 이러한 요인의 수치가 높아질 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스트레스는 다양한 출구를 통해 분노로 표출된다. 그러한 분노는 다시 각종 갈등과 분쟁의 핵심 요인이 되어 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 들어 타문화권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150만 명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갈등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7. 행복지수

2023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 중 6점으로서, 조사대상 60개국 중 57위를 차지했다.¹²⁾ 이뿐만 아니라 2021년 OECD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37개 국가 중 행복지수가 35위로 그리스(5.72점)와 터키(4.95점)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2021년 5월호 「나라경제」¹³⁾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2018~2020년 평균 국가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이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 62위에 해당하는 위치다. 2023년 현재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유일한 국가이며 세계경제대국 10위의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 이면에 이러한 분노사회,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사회라는 어둠이 있다.

건강한 미래 사회를 위해 한국교회에는 사회 치유를 할 수 있는 치유 목회が必要하다. 또한 신학적이고 목회적 차원에서 치유 목회 방법론을 심도 깊게 연구하고 적용해야 한다.

Ⅲ. 갈등과 분쟁의 원인

이러한 사회갈등과 분쟁 그리고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인간의 본성에 속한 심리정서적 요인과 성경적 이해 두 측면에서 살펴보자.

1. 심리정서적 요인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욕망의 실패에 따른 분노에서 갈등과 분쟁이 기인한다고 본다.¹⁴⁾ 인간은 생존 에너지로서 본능을 가진 존재다. 인간은 본능적 욕구가 채워질 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존할 수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소속)에 대한 욕구, 사랑(존경)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¹⁵⁾ 이러한 근원적인 욕구에 대해 실패(거절 또는 좌절)를 경험할 때 인간은 분노가 생긴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이 지나가면 화가 나거나 성격이 예민해지는 경우, 아

이들이 졸릴 때 짜증을 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관직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이러한 모든 분노의 원인을 ‘상실, 불안, 위협과 두려움, 심리적 영적 미성숙, 탐욕, 인정욕구, 배신, 경쟁심과 질투심, 기대감의 좌절, 과격한 말, 부족한 꿈, 잘못된 연결 짓기(관계), 반복되는 불순종, 영적인 눈이 어두워짐, 마귀의 역사’ 등으로 설명한다.¹⁶⁾ 이 중 영적인 것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욕망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노는 욕구와 욕망에 대한 좌절 또는 실패에 기인한다고 했을 때, 인간의 모든 갈등과 분쟁 역시 결핍된 욕구와 욕망에서 비롯된 분노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욕구와 욕망의 좌절, 분노 그리고 갈등과 분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2. 탐욕과 욕심(성경적 이해)

이제 갈등과 분쟁에 대해 성경적 이해를 살펴본다. 모든 갈등과 분쟁의 뿌리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서 비롯된다. 성경은 욕심이 과하여 죄를 낳게 된다고 설명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

성경에서 최초의 갈등과 분노는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났다(창 4:5).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그 원인을 아벨에게로 돌렸다. 즉,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본능적 욕구와 욕망이 좌절되자 분노의 원인이 된 것이다. 매슬로의 이론에 따르면 그는 존경(사랑과 인정)의 욕구가 결핍된 것이다. 가인은 아벨을 향해 시기와 질투가 폭발했다. 성경은 시기 질투와 미워함을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요일 3:15). 이 분노는 갈등과 분쟁을 넘어 마침내 살인의 원인이 되었다. 욕구 결핍에서 기인한 분노는 대상관계 속에서 다양한 갈등과 분쟁과 분

열을 야기하는 심리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 분노의 불꽃이 아벨에게로 향했다. 분노는 타인은 물론 자신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갈등과 분쟁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사회 전반에 가득찬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 생존 에너지인 본능 곧 근원적인 욕망과 욕구를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창 4:6-7).

위에서 살펴본 심리정서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으로 본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관직 교수가 언급한 분노의 원인들 중 ‘영적 미성숙,’ ‘불순종,’ ‘영적인 눈이 어두워짐,’ ‘마귀의 역사’ 등과 더 친숙하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은 심리정서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IV. 사회치유에 대한 치유 목회적 접근

오늘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 그리고 수많은 욕구들로 가득차 있다.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측면도 있지만, 차이에 대한 몰이해로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고 새로운 분열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치유를 실행하는 것은 많은 사유와 큰 헌신이 필요하다. 사회치유에 대한 치유 목회적 접근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에서 이 질문에 접근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본질의 회복을 통한 사회치유 접근

본질이란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답게 하는 것’이다. 즉,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것이다. 자기다울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회 치유에 필요한 방법론을 고민하기 앞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0년 총회는 추락하는 한국교회의 원인에 대해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6월 15일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한국교회 전반을 평가했다.¹⁷⁾ 이 행사와 연구조사를 통해 세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기독교의 절대적 가치가 흔들렸다는 것이다. 둘째는 반기독교(Anti-Christianity) 세력의 공격에 교회가 적절하게 방어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셋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치유에 대한 방법론을 거론하기 앞서 본질 회복이 있어야 한다. 본질을 회복할 때, 교회의 건강성이 회복된다. 교회가 건강한 만큼 복음적·시대적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2. 성숙한 소통 문화를 통한 사회치유 접근

소통의 부재는 오해를 낳고 갈등, 분쟁, 그리고 분열을 초래한다.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일차적 시도는 소통하는 것이다. 소통의 출발은 경청이다.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 생각, 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다. 우리 사회는 경청하는 문화가 부족하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신분질서와 장유유서의 문화가 수직적 관계를 고착화시켰다. 이러한 전통적 관계는 몇십 년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했다. 『관계의 기술』의 저자 존 맥스웰은 한국을 방문한 뒤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한국사회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 권위주의가 무너질 때 심각한 의사소통의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사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은 전통적 문화와 탈권위주의 시대의 충돌과 무관하지 않다. 소통은 존중과 배려 그리고 경청에서부터 시작된다. 존중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배려는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경청은 상대방의 소리를 먼저 잘 듣는 것이다. 이런 성숙한 소통의 문화를 교회가 먼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사회변화와 사회치유를 이끌어야 한다.

3. 완충지대로서의 사회치유 접근(화평하게 하는 자, 중재자)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라고 말씀하셨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교회는 성경적 가치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한편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갈등과 분쟁 중에 있는 양 당사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교회는 정치 이념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아만다 리플리는 『극한 갈등』(*High Conflict*)에서 고도 갈등의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¹⁸⁾

1. 갈등의 표면이 아닌 감추어진 속사정을 파악하라.
2. 양자 택일 구조를 완화하고 필요한 제3의 대안구조를 갖는 것이다.
3. 갈등으로 이익을 보는 갈등 촉진자를 조심하라.
4. 갈등에서 멀어져서 중립적 제3자의 관점에서 더 나은 시나리오를 구상해

보라.

5. 단순한 이야기를 의심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이해하라.

정치적 목적과 언론의 수익 목적에서 야기된 사회적 갈등에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에 갇힌 개인과 집단은 희생자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사회적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한다. 완충지대는 대화를 기초로 협의, 양보, 타협, 합의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일방적인 승자는 없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완충지대를 만드는 방법이다.

4. 대사회적 책임 역할의 확대

교회가 대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을 올바로 감당할 때 사람들이 교회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다. 그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회복될 수 있다. 교회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교회는 먼저 사람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위로하면서 갈등 사회를 치유하는 방법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각 교회의 상황과 목회현실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는 대사회적 책임역할의 확대라는 방향성 제안에만 초점을 둔다.

5. 성육신 정신의 회복(변두리 목회의 회복)

사회 치유를 위한 세부적인 치유 목회적 접근법을 논하기 앞서 우리는 성육신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사역하신 방법이자 정신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가르쳐 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

고동락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 동고동락은 먼저 찾아가는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며, 그들의 편에서 주는 것이며,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공생애를 사셨다. 성육신 자체가 변두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건이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변두리를 찾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평생 변두리를 찾으셨다. 태어나신 곳, 자라신 곳, 일하셨던 모든 곳이 변두리다.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두리 목회를 놓친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된다. 교회는 가난한 이웃과 사회 그늘진 곳을 찾아가 빛을 비추지 못하고, 모순이 많은 이 시대에서 몸으로 진리를 행하지 못했다. 교회는 더이상 변두리를 찾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변두리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기 시작했다.

교회는 성육신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서 행하셨던 것처럼 변두리를 찾아 동고동락의 정신을 실천한다면 온갖 갈등과 분쟁, 분열이 가득찬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V. 실제적 접근

다음의 도표는 치료 가이드를 위해 임상심리학자들이 책에서 제시한 갈등과 분쟁 완화를 위한 네 단계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¹⁹⁾ 이 접근법은 개인, 교회, 집단에서 갈등과 분쟁 해결 그리고 분노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일반적 적용 과정이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탄력성 있게 치유 목회에 적용하기 유익하다.

단 계	세부단계	세부내용	참 고
1단계	거리두기	물리적, 심리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정완화	갈등과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현장에서 5분만 거리를 두어도 감정 강도가 완화된다.
	탐색	서로의 입장과 요구에 대한 확인	서로의 입장에 대한 성찰.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2단계	대화하기	비난과 비판 중지, 서로의 요구 드러내기	초기 대화에서 서로의 생각과 요구를 명료화시킨다. 모호함을 제거한다. 이때 비난과 비판을 중지해야 대화가 지속된다.
	성찰 (깊은 생각)	수용과 양보 찾기 공통점 찾기 차이점 제거하기	자신에게서 수용/양보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 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후 타협과 협의를 용이하게 해 준다. 서로의 차이점은 이 단계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3단계	협의를/타협	인정하기 거절하기(차이점) 서로의 유익 찾기	감정이 제거 또는 완화된 상태에서 시도한다.
4단계	마무리	자기감정해소 / 자기수용 / 자기위로 /관계성 유지탐색	남아 있는 자기감정해소 및 완화작업. 관계유지에 대한 가능성

VI. 맺음말

사회치유에 대한 실제적인 치유 목회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의 목회현장에 따라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실재를 제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분열이 가득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시대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통찰로서 방향성을 살피며 다양한 방법론을 찾아갈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부디 한국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소망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 : 14).

미주

- 1)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리서치, “2013~2022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주요결과”(2023. 1. 24.),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in <https://www.kadr.or.kr/>
- 2) 크리스찬타임스(2022. 03. 16.) <http://www.kctusa.org/news/articleView.html?idxno=59330> (2023년 7월 26일 접속)
- 3) 폴 김, 김인중, 『아주 정상적인 아픈 사람들』(서울 : 도서출판 마름모, 2022), 86-87에서 재인용.
- 4) 2023년 6월 11일 JTBC뉴스 방송 보도자료 내용 중 인용.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0176 (2023년 7월 26일 접속) ; 오윤성, 『범죄 그 심리를 말하다』(서울 : 박영사, 2023[개정판]), 373.
- 5) 사이먼 배런 코언, 홍성호 옮김, 『공감제로』(서울 : 사이언스북스, 2013), 62.
- 6)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425> (2023년 7월 23일 접속)
- 7) 국가지표체계 :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40>(2023년 7월 23일 접속)

- 8) OECD Health Statistics, www.OECD.org 통계자료(2021)
- 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통계, 2014~2022”; <http://lawhome.or.kr/new21/law05/index.asp>(2023년 7월 23일 접속)
- 10) 한국경제 2023년 7월 17일 보도자료,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3071724371>
(2023년 7월 28일 접속)
- 11)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 12) Figure 2,1 : Ranking of Happiness based on a three-year-average 2020-2022 (Part 1) in *World Hapiness Report 2023*, 34. <https://worldhappiness.report>. (2023년 7월 23일 접속)
- 13) “세계10위 경제대국 한국, 국민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 「나라경제」(2021.5).
- 14) 욕구는 생존을 위해 필요 충족시키는 과정이라면 욕망은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의식적으로 결핍을 채우고 행복을 느끼는 과정이다. 참조. 자크 라캉, 권택영 역음, 『욕망이론』(서울 : 문예출판사, 1994), 39-99.
- 15) 에이버러햄 매슬로, 서슬기 역, 『매슬로의 동기이론 : 욕구 5단계 이론의 오리지널 완역판』(서울 : 유엑스리뷰, 2018).
- 16) 이관직, 『성경과 분노의 심리』(서울 : 도서출판 대서, 2007).
- 1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 대토론회 자료집」, 장소 : 서빙고 온누리교회, 일시 : 2020년 6월 15일.
- 18) Amanda Repley, *High Conflict : Why We Get Trapped and How We Get Out* (New York : Simon & Schuster, 2021), “Appendix III : How to prevent hihg conflict,”
- 19) 채규만 외, 『분노관리하기』(서울 : 학지사, 2011), 113-115, 142-143, 161, 173-179, 231-232, 249, 277-278.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

정병준 교수(서울장신대학교)

I. 머리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사역은 전도, 교육, 치유(마 4:23, 9:35, 막 1:22, 30-39)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는 치유 공동체로서 개인, 민족,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증언하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근현대사 우리 민족은 가난과 질병, 일제의 식민통치, 분단과 전쟁, 군사 독재 치하의 폭력과 인권유린으로 고통을 받았고, 특히 여성들은 이러한 고통에 더해 가부장제 문화에서 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민족공동체 속에서 한국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희망을 제공했는가? 아니면 상처와 고통을 확대하는 공동체였는가? 이 질문은 복음의 담지

자로서 한국교회의 생명력을 평가하는 물음이다.

이 글은 역사 속에서 민족의 상처를 치유했던 한국교회의 경험을 고찰한다. 제도로서의 교회가 늘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도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 안에 작은 교회”(ecclesiolae in ecclesia)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교회사의 전통이다. 나치 정권을 지지했던 루터교회에 반대했던 고백교회가 그러했고, 신사참배를 승인했던 한국교회 치하에서 옥중성도의 신앙이 한국교회를 대표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도교회가 바른 길에서 이탈했을 때 기독교인 개인과 소그룹의 신앙 증언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행동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교회의 의료사역, 3·1운동의 공헌, 광주민주화 항쟁, 기독교 통일운동과, 가부장제 여성 차별과 싸운 기독교 여성들의 사역을 통해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의 모습을 고찰한다.

II. 의료사역

정상적인 국가에서 국민의 보건과 복지는 국가의 역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를 설립한 것이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는 책임을 감당했다.

한국 개신교 선교는 의료 선교로 시작되었다. 1884년 6월 고종 황제는 선교사들의 병원과 학교의 설립을 윤허했고, 북장로회 의료 선교사 알렌이 9월에 입국했다. 1885년 4월 알렌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광혜원(이후 제중원)을 설립하였다. 제중원은 선교사가 책임을 지는 국립병원이었고 개척 선

교의 출발점이 되었다. 1904년 에비슨은 미국인 세브란스로부터 1만 달러의 후원을 받아 남대문 근처에 한국 최초의 근대식 종합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했다. 세브란스 병원은 장로회와 감리회가 공동으로 운영했고 1906년 간호사 양성학교를 세웠으며 1908년에 7명의 한국인 의사를 배출했다.

미감리회의 의료선교사 스크랜튼은 정동에 집을 구한 뒤 1885년 9월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1887년에 스크랜튼의 병원은 시병원(施病院)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조선 여성들은 남자 의사를 만날 수 없었다. 따라서 북장로회는 간호사 엘러스와 의사 릴리아스 호튼을 파송하여 여성들을 치료했으나, 그들은 결혼 후 남편 선교사들의 보조역할로 배치되었다. 이후 미감리회 여의사 하워드는 1887년 11월에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여성전용병원이란 뜻의 보구여관(普救女館)을 설립했다. 1890년 한국에 와서 보구여관을 운영한 로제타 홀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1903년 최초의 간호사 양성학교를 세우고 한국인 간호사를 양성했다.

이후 장로회, 감리회, 성공회를 중심으로 선교지부가 설립되는 대도시에는 병원과 학교가 설립되었고 소도시에는 진료소가 설립되었다. 한국교회의 초기 의료사역은 한민족의 의료 근대화에 초석을 놓았고, 의료인력을 양성했으며, 보건 수준을 향상시켰다.

일제하 기독교 의료사역은 새로운 상황을 맞았다. 일제는 한국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 대규모 근대식 도립병원을 설립했고, 기독교 의료사업을 직간접적으로 탄압했다. 특히 의료선교사들이 치외법권을 이용해서 3·1운동에 참가한 이후 기독교병원을 경찰의 통제하에 두었다. 그와 동시에 일본인과 한국인 개업의사들이 증가하면서 의료사업이 경쟁력을 요구했다. 근대의 학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의 전문화, 시설과 설비의 첨단화로 고 비용이 요구되면서 의료선교는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다른 한편 의료선교사들은 의

료사역을 전도의 보조 역할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도적 전통이 있는 선교사역으로 사고하게 되었다.¹⁾ 특히 세브란스에 최초의 신경정신과를 설립했던 호주선교사 찰스 매클라렌은 “용서와 치료는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의료 신학을 주장했다.²⁾

일제 치하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은 나환자, 결핵 환자, 맹인과 농아들과 같은 장애인들이었다. 식민 통치자들에게 이들은 관심 밖의 대상이었지만 교회와 선교는 이들에게 치유를 제공했다.

나병은 치료법이 없었고 외형이 끔찍했으며 감염성이 있어서 “천형”(天刑)으로 생각되었다. 나환자들은 떠돌면서 구걸하다가 생을 마감했다. 1909년 북장로회 어빈은 런던의 “구라선교회”의 후원을 받아 부산 감만동에 나병원 상애원을 설립했고, 1911년 호주장로회와 북장로회가 공동운영했으며 1912년부터 호주장로회의 제임스 노블 매켄지가 원장을 맡게 되었다. 남장로회 윌슨은 1911년 광주에 나병원 애양원을 설립했고 1927년 이 병원은 순천으로 이주했다. 북장로회 플레처는 1915년부터 대구 내당동에 부지를 마련하여 건축을 했고 애락원을 설립하였다. 꾸준한 치료법의 개발로 1931년 나환자들의 사망률은 2%로 감소하였고 나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대부분은 신앙인이 되었고 방면되어 자활의 길을 찾았다. 1930년대 중반 나병원에서 치료 받는 환자들은 2,000명에 달했다. 1937년부터 일본 정부는 소록도에 나환자 3,800명을 강제 격리 수용하여 비인간적인 강제 노동을 시켜 환자들을 착취했다.

로제타 홀은 맹인사업(1894)과 농아사업(1909)을 시작했고, 평양과 서울에서 맹인사업이 진행되었다.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은 1928년 황해도 해주에 구제요양원을 세워 1940년 추방될 때까지 한국의 결핵환자 치료에 헌신했다. 그는 1932년 12월 3일 남대문을 그린 우리나라 최

초의 크리스마스 실(Seal)을 발행했다. 크리스마스 실 판매로 얻은 기금은 결핵에 관한 보건교육과 결핵 치료 자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었다.

:: 일제하 기독교 병원(1928)³⁾

연합운영	세브란스병원 평양 연합기독교병원
북장로회	대구 동산병원 선천 미동병원 재령 제중의원 강계 계례지병원 청주 소민의원 안동 성소병원
남장로회	순천 안력산병원 전주 야소병원 군산 야소병원 광주 양림병원 목포 양동병원
호주장로회	진주 배돈병원
나병원	부산 상애원(호장) 순천 애양원(남장) 대구 애락원(북장)
북감리회	동대문 부인병원 해주 구세병원 원주 사미감병원
남감리회	개성 남성병원 춘천 야소병원 원산 구세병원
캐나다연합	함흥 제혜병원 성진 제동병원
영국성공회	진천 애인병원 여주 성안나병원
안식교	평남 순안병원

한국전쟁 당시 임시 수도 부산에서 여성과 신생아를 위해 가장 두드러진 치유 사역을 한 사람은 호주선교사 헬렌 매켄지와 케서린 매켄지 자매였다. 의사 헬렌은 1952년 부산에 와서 길에서 아기를 낳는 한국 여성의 참상을 목격하고 종교와 신분에 관계없이 존엄성을 보호받으며 아기를 낳을 병원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다. 그들은 일신부인병원을 설립하고 산부인과 의사들과 조산 간호사들을 훈련시켰다. 당시 한국은 전쟁으로 간호사와 조산사의 1/3이 행방불명된 상태였다. 따라서 그들의 활동은 정부의 조산사 양성정책과 일치했고 간호-조산사가 복지의 중추가 된다는 세계보건기구/유엔한국지원단(WHO/UNCRA)의 판단을 배경으로 지원을 받았다. 병원

건축은 호주장로교회와 미군 503공병대의 후원을 받았다. 캐서린은 한국에서 1,034명의 조선 간호사를 훈련시켰다. 일신부인병원은 1950년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조선 교육을 한 곳이었다.⁴⁾

한국교회의 의료사역은 우리 민족을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하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증언함으로써 민족공동체를 치유했다.

Ⅲ. 3·1운동과 한국교회

3·1운동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국권을 침탈하고 나라를 병탄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무단통치와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야만적인 처우 그리고 우리 국토와 국민에 대한 착취와 수탈에 반기를 든 거족(巨族)적인 항거이자 독립 의지의 표현이었다.

1911년 일제는 민족운동을 뿌리 뽑기 위해 “데라우치 총독 모살 미수 사건”을 고문으로 조작하여 123명을 기소했는데 그중 102명이 개신교인이었다. 그중 105인에게 5~10년의 중형이 언도되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신민회(新民會) 회원들이었다.

3·1운동을 준비하는 데 주축이 된 신한청년당은 1908년 상하이에서 개신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단체였다. 그들은 월슨의 자결주의를 배경으로 1919년 파리 평화회담에 한국대표 김규식을 파송했고, 국내의 종교세력과 일본의 유학생들에게 대표를 보내 국내에서 대규모 만세 사건을 일으키도록 준비했다. 일본 동경에서는 유학생 400여 명이 ‘2·8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국내에서는 천도교 지도자, 개신교 지도자, 청년들이 거사를 준비

했다. 기독교, 천도교, 불교를 중심으로 민족 연합전선이 결성되자 YMCA를 중심으로 한 청년학생들이 합류했다.

개신교인들은 신한청년단, 2·8독립선언, 기미독립선언서 준비와 배포 등 거의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만세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선교지부(Mission Station)가 설치된 도시에서 최초의 시위가 전개되었다.⁵⁾ 예를 들면 평남의 평양, 평북의 선천, 경북의 대구, 충북의 청주, 전북의 군산, 전남의 광주, 경남의 부산, 함남의 원산, 함북의 성진, 황해의 해주, 경기의 개성, 강원철원에서 최초의 시위가 일어났다. 이로써 3·1운동이 초기 점화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주도적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경찰에 검문당할 때 기독교인이냐는 질문을 반드시 받는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경찰은 거의 예외 없이 그들을 비난하면서 경찰 법정으로 데려간다. 지방에서는 만세운동에 참여했는지 증거를 찾기 위해 경찰이 집에 들어왔을 때 성서나 찬송가를 발견하면 더이상 뒤지지 않고 감옥으로 잡아간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 …… 지난 수요일 우리 부영사 레이몬드 커티스 씨, 호로스 언더우드 씨, 그리고 A. W. 테일러 씨가 파괴된 마을을 직접 보기 위해 제압으로 갔다. …… 그들은 전해 들은 어떤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임을 발견했다. 그들은 교회 부지에서 재와 불탄 시체들만 보았다. 그리고 살이 타는 냄새를 역겹도록 맡았다.

-매티 노블(Mattie W. Noble)의 일기(1919년 4월 중순)

한국교회는 일본 경찰의 보복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기독교인의 인구 비율은 1.5%에 불과했으나 피체포자 중 17~20%가 기독교인들이었다. 특히

여성 시위에서 전도 부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여성 피체포자 471명 중 기독교인들은 65.6%에 달하는 309명이었다.

기독교인들의 시위는 내적 신앙에 근거해서 그것이 밖으로 폭발해 나온 것이었다. 1919년 3월 경성에 뿌려진 「독립단통고문」은 기독교인에게 매일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주일에 금식하고, 매일 요일별로 정해진 성경을 읽도록 했다.⁶⁾

:: 3·1 만세 기간에 읽어야 하는 성경말씀

요일	본 문	내 용
월	이사야 10장	이스라엘의 구원과 앗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화	예레미야 12장	유다의 멸망 원인과 멸망시킨 나라에 대한 경고
수	신명기 28장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목	야고보 5장	성도의 인내와 기도의 능력
금	이사야 59장	이스라엘의 형벌과 회개할 때 주시는 구원
토	로마서 8장	승리와 사랑에 대한 확신

그 내용은 민족이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렘 12:17; 신 28:48)으로 해석하면서도 회개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사 59:20)는 희망을 제시하였다. 또한 압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고 그들이 패망할 것을 강조했다(사 10:25).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해 짧은 것과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소망을 주었다(롬 8:18, 39).

식민 통치하에서 억압당하는 민족에게 치유의 길은 독립이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민족의 독립을 간구했고, 실천적으로 독립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고난을 받았다. 한국교회는 자유와 정의, 평화를 위해

이웃 종교와 협력하면서 민족의 십자가를 졌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고난 받는 민족을 위로할 자격을 얻었고, 외국 종교라는 오해를 벗고 우리 민족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IV. 광주민주화 항쟁과 기독교인

우리 민족은 해방 이후의 제주도 4·3사건, 전쟁 기간의 보도연맹 관련자 학살, 많은 양민 학살, 독재정권하에서 인혁당 사건 등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 많다. 이 글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치유활동을 살핀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각 대학에 계엄군을 주둔시켰다. 5·18 항쟁은 전남대 학생들이 교문을 뚫고 금남로로 진격하면서 시작되었다. 5월 18~21일까지 계엄군들은 광주의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해서 시위를 진압했고, 급기야 5월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했다. 그날 현장에서 54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광주 시민들은 이 충격적인 현실에 놀라 광주와 인근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을 꺼내 무장했다. 곳곳에서 시가전이 일어나자 계엄군은 외곽으로 후퇴했고 시민군은 도청을 점거했다.

5월 21~26일까지 분노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김밥과 주먹밥을 만들어 시위대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광주 시민들 사이에 결사 항쟁을 주장하는 “강경파”와 계엄군과 협상하려는 “도청파” 지도부가 있었다. 5월 22일 “도청파”는 계엄군에게 무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발

포명령자 처벌, 연행자 석방, 피해보상, 보복금지 등을 요구했으나 계엄군은 무조건적인 투항을 요구했다. 도청과는 계엄군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민들의 지지를 잃었다. 제3의 그룹은 가톨릭과 개신교인들로 이루어진 광주·민중화·인권운동의 지도자들로서 “남동성당파”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권변호사 홍남순과 이기홍, 광주정의구현사제단의 김성용 신부와 조철현 신부, 광주 YMCA 조아라 회장과 이애신 총무, 해직교수 명노근과 송기숙 등이었다. 5월 23일과 24일 조철현 신부는 무기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명노근 교수는 시민대표로 계엄군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신군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무조건 투항을 요구했다. 5월 25일 “남동성당파”를 중심으로 새롭게 꾸려진 수습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잘못 인정과 사과 그리고 피해보상과 보복금지를 요구하는 「최규하 각하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강경파” 청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도청 사수를 결의했다.

전남도청 지하실에는 2,500여 정의 총기와 8톤 가량의 폭탄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 폭탄은 도청을 반경으로 3~4킬로미터의 광주 시내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다.⁷⁾ 도청 안에는 5~6명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폭약관리반이 조직되었다. 그중 호남신학대학교 4학년 문용동 전도사가 폭약관리반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전남 영암 출신의 문용동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를 만남으로 실천적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는 호남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 광주제일교회가 운영하던 성경구락부에서 국어교사로 봉사했으며, 1979년 7월 상무대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다. 1980년 5월 18일 그는 금남로에서 계엄군이 노인을 구타하는 것을 보고 시위에 참가하게 되었다. 폭약관리반을 맡은 문용동은 시신이 즐비하고 폐허가 된 광주에서, 또한 시민군들이 분노한 상황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폭탄

의 뇌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료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수만발의 탄약과 3,000상자의 폭탄이 터지면 수만 명의 생명이 희생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뇌관 제거에 나섰다.⁸⁾ 그는 목숨을 걸고 계엄군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뇌관 분리작업을 했다. 문용동은 “내가 죽으면 태극기로 덮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도청의 현장을 지켰다.

5월 26일 계엄군들이 탱크를 앞세워 광주로 재진입했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던 17명의 수습위원들은 “평화를 위한 총알받이”가 되기로 작정하고 탱크 앞으로 행진하여 계엄군과 평화협상을 시도했다. 외신은 이것을 “죽음의 행진”으로 보도했다.⁹⁾

5월 27일 새벽 도청을 거의 탈환한 계엄군은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는 방송을 했다. 문용동은 동료들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권하며 자신이 앞장을 섰다. 문을 밀고 나서는 순간 총성이 나며 그는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그의 나이 28세였다. 문용동은 기독교인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택했고 도청에 남은 동료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계엄군의 프락치로 오해를 받아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다. 2001년 5월 17일 호남신학대학교는 교정에 문용동 전도사의 추모비를 세웠다. 2016년 101회 예장 통합총회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문용동 전도사를 순직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1980년 8월 6일 20여 명의 한국교회 원로들이 전두환을 위한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했다. 9월 30일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조찬기도회에는 1,300명에 달하는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들어 뜻 있는 다수 국민들이 한국교회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1982년 광주 YMCA 회관에서 거행된 제2주기 5·18 추모예배에서 고영

근 목사는 과감하게 전두환 정권의 광주시민 학살과 광주사태에 동참한 미국 정부의 회개를 촉구했다. 그리고 조찬기도회와 지지 성명으로 “강자 편에 아부”하고 “불의한 권세를 방조한” 한국교회와 독재자에게 “침묵하고 맹종”하는 동포들의 회개를 촉구했다. 그는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한다고 강조하며 순국 선열 유가족을 위로했다.¹⁰⁾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한국의 많은 교회는 침묵했고, 일부 지도자는 불의한 권력에 아부하며 협조했다. 그러나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고난의 현장에서 생명을 보호하며, 죽어 가는 이웃들과 함께 피를 흘렸다. 소수의 예언자들은 형제의 핏소리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살해자들과 방조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다.

V. 기독교 통일운동

분단과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사회경제적 파멸을 경험한 한국 민족에게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치유의 길은 통일이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시기 민간의 통일 논의는 금지되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그 정치적 동기와 관계없이 남북 사이에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통일 원칙을 수립하였다. 1970년대 기독교 운동세력은 민주화·인권운동을 주도했으나 통일운동을 할 수는 없었다.

광주 항쟁 이후, 한국교회는 국가보안법의 장벽을 뚫고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를 시도했다. 기독교 통일논의는 진보, 보수, 중도의 세 가지 입장에서 전개되었다. 1981년 6월 제4차 한국교회협의회는 분단국가의 통일이 교회의 과제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는 1982년 9월

‘통일문제연구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통일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당국의 방해로 실패했다. NCCK는 세계교회협의회(이하 WCC)의 도움을 요청했고, WCC는 1984년 일본의 도잔소에서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평화협의회’(10. 29.-11. 2.)를 개최하여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동북아시아 평화의 핵심이라고 규정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 운동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NCCK는 1985년 2월 ‘한국교회평화통일선언’을 발표하고, 교회는 통일운동에 참여할 자유, 의무,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1985년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찾기, 고향방문, 예술공연단의 교차 방문을 주도했다. 1986년 9월 WCC가 주관한 제1차 글리온 회의에 참가한 남북의 기독교인들은 분단 이후 최초로 성만찬을 교류했다.

반면 ‘북한 선교’로 대표되는 보수 기독교는 정부의 안보정책 테두리 안에서의 북한 선교론을 주장했고, 북한의 조선기독교도연맹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북한정권의 붕괴에 기초한 통일론을 가지고 있었다.

1986년 미국교회협의회가 주한미군철수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예상통합 총회는 총회장 명의의 ‘시국성명서’(12. 16.)를 발표했다.¹¹⁾ 그 성명은 미군철수와 반공주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통일론을 견지하면서, 미군의 주둔이 “경제적 예측”과 “민족의 자주적 생활권에 대한 간섭”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공이 정권유지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며, “북한선교”에 대해 진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통합 총회는 중도적인 통합론을 나타냈다.¹²⁾

1988년 2월 NCCK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이후 88 통일선언)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리 외에 민주참여·인도주의 원리를 첨가한 통일 5대 원리를 주장했다. 분단이 악의 근원이고 분단에 기여한 교회의 죄를 원죄로 고백했다. 군축, 불가침

선언, 한반도 비핵지대화, 평화보장 이후 외국 군대의 점진적 철수를 주장했다. 그리고 평화통일교육, 이산가족 재결합 추진, 남북교회 교류를 교회의 과제로 제시하면서 1995년을 평화통일의 희년으로 지키기를 제안했다. 1988년 11월 WCC의 제2차 글리온 회의는 한국의 「88 통일선언」을 지지하면서 매년 8.15 직전 주일을 남북한의 교회가 “평화통일공동기도주일”로 지키자고 제안했다. 예장 통합 측 ‘북한전도대책위원회’는 남북기독교 교류추진 문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로써 진보와 보수의 기독교 통일운동 사이에 접착점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88 통일선언」에 대한 한국 보수교회의 반발이 강력했다. 그리고 1989년 2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6월 임수경의 방북은 한국 사회와 교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로써 1989년 4월 진보적 기독교 연합운동에 대한 반발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창설되었다.

1991년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고 ‘남북합의서’(12. 13.)가 채택되었다. 그 후 북한의 핵개발과 김일성 조문파동으로 ‘북미기본합의’(1994. 10. 21.)가 있기까지 남북관계에 긴장이 지속되었다. 이 시기 보수적인 교회의 대북 태도가 다시 보수로 돌아섰다.

그러나 1990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시작했고 7월에 1만 톤의 쌀을 북한에 보내는 전향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92년에는 복음주의권 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연합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12. 9.)을 결성하였다. 1993년에는 NCCK를 중심으로 ‘통일희년사업국’이 조직되었고 ‘8.15 남북 인간띠잇기 대회’는 22개 교단 890개 교회와 55개 사회단체 65,480명이 참여했다. 1995년 북한의 수해 피해 이후, NCCK의 통일운동은 남북교회 평화통일 기도회, 남북합의서 이행추구, 북한 돕기 등으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미국의 대북 관계 변화와

한국 국내 정치 상황의 보수화로 통일운동은 그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

분단시대 민족의 고통을 치유하는 길은 평화적인 통일의 물꼬를 여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서 통일론에 대해 의견 차이가 크다.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민간차원 민족 통일운동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디아코니아”를 통한 치유에는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VI. 가부장제 여성 차별과 싸운 기독교여성들의 사역

기독교 여성들은 일제하 민족운동, 여성교육, 절제운동, YWCA와 농촌 운동에 놀라운 활약을 했고 여성 안수를 관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1960년대 이후 가부장제 사회 문화 안에서 여성들의 상처와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단체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이후 교회여성연합회)였다.

1920년대부터 시작된 기독교여성들의 “세계기도일 운동”과 1950년대에 시작된 “적은 돈 운동”에 참여한 한국 기독교여성들의 초교파적인 경험이 교회여성연합회 설립의 토대가 되었다.¹³⁾ 1966년 도쿄에서 개최된 아시아 교회여성연합회 제3차 총회에 참석한 이우정, 이연옥, 김옥라 등은 초교파 여성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1967년 4월 15일 예장 여전도회, 감리교여선교회, 기장 여신도회는 영락교회에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를 창립했다. 후에 구세군 가정단, 성공회 어머니회, 루터교 여신도회, 복음교회 여전도회가 가입하였다.

초기 교회여성연합회는 “윤락여성미연방지사업”을 전개했다. 산업화 초

기 무작정 상경하는 소녀들이 포주의 궤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독교여성들은 상담소 완장을 차고 서울역에 들어가 도움이 필요한 소녀들에게 안전한 숙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활동이었다.

1965~1980년대, 한국의 독재정권은 소위 기생관광을 상품화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는 한국관광협회에 외주를 주어 여성들에게 증명서와 보건증을 발급하고 외화 벌이는 애국이라고 교육했다. 전국 27곳에 기생파티를 하는 관광요정이 분포되었다.

1973년 12월 3일 교회여성연합회는 기생관광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성명은 국가의 성(性)산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권을 망가뜨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1973년 7월 제1회 한일교회협의회는 기생관광문제를 안건으로 다루었고 일본 대표들은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향후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이 연대하여 기생관광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1974년 4월 긴급조치 4호로 이우정 회장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이후 한국에서 기생관광반대운동은 약 10년간 공백기로 접어들었다.

교회여성연합회는 1974년부터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이우정과 공덕귀는 일본에서 열린 국제여성평화회의에 참석했다가 2만 명의 조선인 피폭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보게 되었다. 그 후 교회여성연합회는 세브란스 병원과 계약을 맺고 치료에 나섰다. 1976년부터 1987년까지 1,651명의 원폭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았고 96명이 수술을 받았다.¹⁴⁾ 원폭피해자들은 스스로 평화운동의 주체로 일어났다. 또한 피폭자 2세대들도 1986년 7월 14일 교회여성연합회 사무실에서 ‘평화의 샘’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피폭자들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교회여성연합회는 1986년 8월 9일 제4회 반전·반핵·평화마당을 개최했다. 이것은 반핵운동의 출구를 모색하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1985년 서울대학생 김세진, 이재호가 반전·반핵을 외치며 분신한 사건이 있었다. 이 당시 ‘반핵’ 운동은 이념적으로 불온한 것으로 평가되던 시기였다. 이로써 교회여성연합회는 한국사회 안에서 탈핵 운동의 기원이 되었다.

교회여성연합회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기생관광을 조장하리라고 판단했고, 기생관광추방운동을 재개했다. 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와 협력해서 전국의 기생관광실태를 조사했고 보고서를 출판했다. 1988년 4월 “여성과 관광문화”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윤정옥 교수(이화여대 영문학과)는 반세기 만에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폭로했다. 해외와 국내 참석자들은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 후 윤정옥 교수를 중심으로 정신대 조사단은 1988년 2월 일본을 방문하여 위안부의 사연과 사례를 찾아냈다.

교회여성연합회는 기생관광을 ‘신(新) 정신대’로 해석했고, 여성 억압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1988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즈음하여 교회여성연합회는 다른 여성단체들과 함께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교회여성연합회는 그 산하에 ‘정신대문제연구회’를 두었는데 이것이 발전, 독립하여 1990년 11월 16일 “정신대대책협의회”가 발족되었다.

198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는 자신이 경험한 참상을 기자회견에서 폭로했다. 교회여성연합회는 정신대 신고 전화를 개설했고, 그 결과 문옥주 할머니와 김복선 할머니의 증언이 나왔다. 교회여성연합회가 받은 신고 건만도 260명 정도였다.

일제 강점, 한국전쟁,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들은 가부장제와 성차별로 더 가혹한 상처를 입고 살아왔다. 사사 입다는 암몬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면 자기를 처음 반기는 자를 번제로 바치겠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다. 그리고 그의 외동딸을 번제로 희생시켰다.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은 매년 나흘씩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했다(삿 11:40). 한국의 기독교여성들은 이 땅에서 태어난 입다의 딸들을 위해 애곡하며, 가부장제 구조에서 희생되는 여성이 없도록 싸우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변혁해야 한다.

VII. 맺음말

한국교회와 민족의 치유라는 거대 담론 앞에서 이 글은 의료사역, 3·1운동, 광주민주화운동, 통일운동, 가부장제 여성 문제라는 주제를 선택하여 한국교회의 치유 사역을 교회사적으로 살폈다. 기독교의 의료사역은 주로 선교사들의 사역이었지만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에 3·1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을 제공했다. 광주항쟁 과정에서 기독교인 개개인들은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적이었으나 대부분의 제도교회는 불의에 침묵했고 원로 지도자의 일부는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교회 진보진영은 막혀 있던 민간 통일논의의 물꼬를 트는 공헌을 했다. 그리고 통합교단 총회는 통일논의에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적 통일론을 견지했으며 한국교회 전반은 디아코니아 차원에서 북한의 동포를 지원하는 것에는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일제강

점기 위안부 문제와 독재정권의 기생관광 정책이 전부 가부장제 구조하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이고 반신앙적 행태임을 밝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싸웠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의 민족 치유 사역에서 공헌과 약점 그리고 향후 과제가 드러났다.

미주

- 1)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서울 : 아카넷, 2003), 237, 511.
- 2) C. I. MacLaren, "The Necessity Connection between Healing of the Body and Healing of the Soul," *Korea Mission Field* (June 1914), 211.
- 3) 위의 책, 668.
- 4) 이임하, "피난지 부산에서의 조산사 양성 - 일신부인병원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43 (2022. 2), 2, 7-9, 11, 27.
- 5) 강성호,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서울 : 복있는사람, 2019), 30.
- 6) 김병조, 『獨立運動史略』(1921 : 亞細亞文化史影印, 1977)에 수록. 원문은 국한문혼용체.
- 7) 강성호,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213, 221.
- 8) 장현권, "5.18항쟁 즈음에 문용동 전도사를 기억하며," 『한국기독교공보』(2013년 5월 25일), 27.
- 9) 송인동, "고난의 땅 위에 세워진 핏빛 십자가," 『한국기독교공보』(2010년 6월 26일), 25.
- 10) 고영근, "순국열사의 핏소리(창 4 : 6-12)," 『목민 고영근 사료집 IV (1980-1987) 민중 · 민주 · 민족을 향한 여정』, 고성희 엮음(서울 : 동연, 2021), 123-136.
- 11) "총회시국성명서," 『한국기독교공보』(1986.12.20.), 1.
- 12) 정성한, 『한국 기독교 통일 운동사』(서울 : 그리심, 2003), 258.
- 13) 이현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25년사』(서울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2), 25-30.
- 14)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원폭피해자돕기 사업보고 및 안내," 『반전 · 반핵 · 평화』(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8), 137.

“주여, 열방을 치유하소서!”

조용선 목사(서울강남 / 온누리교회)

I. 머리말

정수복은 파리에서 지내면서 2007년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당연의 세계 낯설게 보기』를 저술, 출판했다. 사회의 가치지향성과 삶의 방식을 ‘문화적 문법’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을 구성하는 열두 가지 요소로서 현세적 물질주의, 감정 우선주의, 가족주의, 연고주의, 권위주의, 갈등 회피주의, 감상적 민족주의, 국가 중심주의, 속도지상주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 수단방법 중심주의, 이중 규범주의를 들고 있다. 정수복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자기 민족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떤 민족주의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이며 감상적인 민족주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감상적 민족주의가 국가중심

주의와 짝을 이룬다고 말한다. 국가가 견인차가 되어 사회 전체를 일사분란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생각이 국가중심주의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국가중심주의를 가능하게 만든 요소는 경제 성장에 대한 목표이다.

지구촌에 내분(內紛)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키프로스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다. 2022년 12월 2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발발한 전쟁이 1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21세기에 국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내분과 전쟁 이면에 감상적 민족주의나 국가중심주의가 깔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글은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다시 살리심, 치유, 회복의 역사를 살펴봄으로, 감상적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열방의 치유, 화해, 하나됨의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II.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

1. 에스겔 37장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주전 605년 1차 포로로 잡혀가고, 597년 2차 포로로 잡혀갔다. 에스겔은 2차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셨다. 유다의 멸망 원인은 도덕적 타락과 정치적 미숙함이었으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유일 신앙의 퇴조 때문이었다. 죄로 인해 포로로 잡혀갔으니 현실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수용하고, 그 징계를 신앙 회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회복의 메시지도 주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이 돌아오

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고 성령으로 그를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서 마른 뼈가 가득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겔 37:5) 5절, 6절, 9절은 계속 “살아나리라”를 강조한다. 에스겔 3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으로, 11번 언급되었다.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는 ‘생기’로, 10번 언급되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רוּחַ)이며, 바람, 영, 성령이란 뜻을 갖는다.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다. ‘살다’의 히브리어는 ‘하야’(חַיָּה)이다. ‘하야’는 ‘생명을 유지시키다, 죽음으로부터 소생되다, 되살아나다’라는 의미이다. 성령이 임하니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과 ‘성령’이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른 뼈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실패한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신의 힘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에게는 결국 황폐한 결과만 남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나는 여호와이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49회 사용되었다. 에스겔서 예언의 주체는 에스겔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마른 뼈가 서로 맞추어져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도록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영적으로 생명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는 막대기 하나에는 유다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에는 이스라엘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37:16-17) 하고 말씀하셨다. 37장에서 ‘하나’라는 말이 무려 8회나 나타난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예언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26절에서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27절) 말씀은 하나님과 남은 자의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27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에 대한 언약이다. 다시 살리시는 성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2. 하박국 3장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합 3:2) 라고 간구한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한 번 사용되었다. 국어사전은 ‘부흥’을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다시 활발하게 일어남’으로 정의하면서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나라를 재건하는 것을 예문으로 들고 있다. 하박국이 원했던 부흥은 무엇이었을까? 개인과 나라의 재건인가 아니면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집회로 모이는 것인가.

“이 수년 내에”를 직역하면 “한 해 한 해의 세월 가운데”가 된다. ‘부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야’이고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에스겔 37:5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와 같은 단어이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4)에서도 ‘하야’가 사용되었다. 정리하면 하박국에서 사용된 ‘하야’는 ‘부흥’(3:2)과 ‘살다’(2:4)로 각각 다르게 번역된 것이다. 따라서 하박국의 기도는 “주의 일을 한 해 한 해의 세월 가운데

살게 하소서”로 번역하는 것이 원어의 의미에 가깝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무나’(אמוּנָה)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신실함’을 의미한다. ‘에무나’(신실함)는 특정교리와 종교체계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의인(성도)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에무나’(신실함)와 ‘하야’는 둘 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성을 의미한다. 하박국의 기도는 자신과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녀로 살게 해 달라는 간청이다.

하박국이 탄식한 것은 개인의 환란 때문에 아니라 민족과 사회가 총체적으로 붕괴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직면한 현실은 ‘강포’와 ‘겁탈’이었다(1:2-3). 강포와 겁탈은 사회 질서의 붕괴를 암시한다. 유다 민족은 토라를 준수하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며 이웃을 공홀히 여기지 않으면서 붕괴에 직면했다.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고 ‘하나님의 살리심’이다.

하박국은 3:3~15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경고를 들었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목시로 목격했고, 16절에서 뼈가 썩는 고통으로 그의 몸은 떨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공포의 현실로 끝나지 않고 반전이 일어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3:18). 비록 현재 상태는 여전히 불의가 가득하고, 암담하고,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박국은 기뻐한다. 그 기쁨은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의 열매와 목축업의 생산이 많아서도 아니다.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니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기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탄식하는 사람을 살리신다. 하박국은 “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3:19)라고 찬양한다. “높은 곳에 다닌다”는 뜻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다닌다’는 말의 어원은 ‘전진하다, 승리하다’라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적 전투에서 싸울 힘도 주신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간다. 하박국서에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3. 사도행전 2장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되는 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성령이 임재한 곳은 많은 사람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소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가정 집’이었다(행 2:2).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니,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칠칠절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은 그 방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속한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듣고 심히 놀랐던 것이다. ‘놀랐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미칠 정도로 정신이 나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무시하는 어투로 말하였다. 유대인들은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된 유대교인들은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경건하지 않았다는 역설적 표현이 아닐까? 당시 성전 중심 사회에

서 주류 사회는 예루살렘이었다. 그렇지만 변방의 갈릴리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과연 갈릴리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성령이여,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소서’라고 말하면 성령이 오시는 것인가? 성전의 제사장이 유대인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성령님은 주권을 가지고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유대교 제의의 심장인 성전이 아니라, 일반인이 사는 평범한 집에 강림하셨다는 사실은 당시의 성전 질서가 끝났다는 신호였고, 구원 역사에서 새 시대의 시작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에게 오시라고 요청을 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성육신 사건은 메시아가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다. 성령님도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 임한다”(행 2:2-3).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말씀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이다. 성령 강림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것이다. 사도행전 2:9-11은 16개 지역의 명칭을 언급하고 있다. 그 지역들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에 위치한 지역들이다. 성령을 통한 복음의 역사가 동서남북의 지역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을 암시하고 있다.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성령은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임재한다고 말하며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다.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교인들에게 이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로마 사람들이 황제에

게 “퀴리오스”(주님)라고 칭한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부를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은 어떻게 해석되었을까? 그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로 불렀다. 당시 이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들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였다. 성령강림 이후 제자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님은 그들을 도우셨다. 성령은 성도가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신다. 성령님은 처음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재하셨는데, 이 숫자는 유대교인들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였으나 그들은 담대하였다. 또한 성령의 바람은 사람들을 동서남북으로 흩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노아시대에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창 6:3).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썩어 없어질 육신뿐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골 2:28, 행 2:17). 성령이 육체에 임하면, 썩어 없어질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 된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 3:19). 이 말씀에서 ‘새롭게’로 번역된 헬라어 ‘아나프시크시스’(ἀναψυξις)는 ‘아나’(ἀνα)와 ‘프시코’(ψυχω)의 합성어로 “다시 숨을 쉬다”라는 의미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뜻이다.

예수님을 퀴리오스(구주)로 모신 성도가 성령님의 사람이다. 다시 살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바람 같고, 불길 같은 성령님은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직장, 교회, 나라 가운데 강하게 불어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순례의 길을 걷게 하신다.

성령께서 ‘오이코스’(집)에 임재하셔서 ‘에클레시아’(교회)가 시작되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새 시대의 시작이다. 우리는 ‘옛 시대’로, ‘성전 시대’로, ‘성령이 없는 육체’로 거슬러 가면 안 된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살리시고,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나라를 다시 살리신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신다.

Ⅲ. 살리고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예언서와 사도행전에서 ‘다시 살리시는 성령’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유다의 막대기와 이스라엘의 막대기를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겔 37:16-17)는 말씀처럼 20세기 후반 인류는 서독과 동독이 하나가 되는 역사적 사건을 목격했다.

독일 라이프치히 니콜라이교회는 1982년 9월부터 ‘칼을 쳐서 쟁기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평화기도회를 했다. 기도회에는 평화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동독 지지자, 서독 지지자 등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이 모

이는 것에 부담을 느낀 동독 당국은 교회로 가는 길목을 차단했으나 평화를 향한 사람들의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동독 당국은 치안을 담당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미리 교회로 보내 자리를 점거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 1989년에는 3천 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고, 기도회 후에 평화 행진을 하였다. 기도회와 평화 행진이 거듭되면서 군중들은 7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사람들을 해산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여행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자유 선거’를 요구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서독으로의 여행이 가능해졌다. 결국 1990년 10월 3일에 독일 통일이 선포되었다. 작은 기도회 모임이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 치유하고 화해하는 성령의 역사는 니콜라이교회의 기도회를 통해 분단된 나라를 하나되게 하였다.

성령님은 어느 특정한 나라에만 역사하지 않으신다. 내분이 있는 나라에도, 분단된 나라에도 역사하신다.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탁하여, 치유와 화해를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다시 살리시는 성령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IV. 맺음말

주제성구 해설에서 홍정근 목사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치시고 싸매시는 치유와 복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치유 이야기는 에덴동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구원이야기이다”라고 말한다. 창세기 1:

26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닮은 귀한 존재를 뜻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시며 좋았다고 하셨다(창 1:31). ‘좋았다’의 히브리어 ‘토브’(טוב)는 ‘선하다, 아름답다,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과 자연의 가치는 아름답다.

인간 죄는 스스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했고,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상실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외에는 관심도 없어졌다. 사람들의 삶, 노동, 가정 모든 것이 질서를 잃어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인간은 형제를 살해하고, 다른 부족, 다른 나라와 전쟁을 일삼게 되었다.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지구촌이 하나의 생명공동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었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졌다. 자연을 보살피는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연을 소유 가치로 상대화시키고 파괴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성경은 창세기의 동산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동산 이야기로 마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통해 사람들의 ‘아름다움’(토브)을 회복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구원을 완성하시지만,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신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은 정수복이 말한 열두 가지 요소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다. 성도는 현세적이고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성도는 반지성적, 비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정도(正道)를 걷는 사람이다. 성도에게 가족은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신앙공동체

의 지체들이다. 성도는 혈연, 지연, 학연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로 인해 신앙공동체에 속한다. 성도는 권위는 존중하지만, 권위주의를 내세우지 않는다. 교회 안에 수직적 서열이란 있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 성도는 감상적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를 내세우지 않는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탁하지 않고, 감상적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에 빠져 있다면, 열방을 위한 치유와 화해를 도모할 수 없다.

감상적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의 이면에는 탐욕과 이기심이 자리잡고 있다. 각자가 탐욕을 부리면 함께 망하는 것이고, 탐욕을 내려놓으면 함께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시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탁해야 한다. 주여, 열방을 치유하소서! 주여, 열방을 하나되게 하소서!

참고문헌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서울 : 생각의 나무, 2012.

신음하는 피조물의 치유

배현주 교수(기독교환경운동연대)

I. 머리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세기 1:31).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미 7:13).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롬 8:19, 22; 표준새번역).

“모든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간주하게 하라. 그러면 방종하게 처신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존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들을 남용해서 망가뜨리지도 않을 것이다”(장 칼뱅, 1509-1564).

“당신이 상패한 시냇물과 야생 조류의 거처를 파괴하면, 백만 개의 꿈을 살육하는 것이고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다”(존 드링크워터, 1882-1937).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마하트마 간디, 1869-1948).

II. 우리 시대의 표징

우리 모두의 집(오이코스)인 아름다운 행성 지구가 신음하며 앓고 있다. 지구의 건강에 필요한 생태 균형이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45억 년에 달하는 장구한 세월 동안 기후의 안정성을 지니고 살아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지난 수백 년간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개발과 무분별한 산업발전으로 인해서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는 개인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동시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지구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과제이다. 유엔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언론은 유엔의 각종 회의를 계속 소개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UNCBD), 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은 유엔의 3대 환경협약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약칭 리우회의) 이후 199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당사국총회(COP)를 개최하고 있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2018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는 평균기온 상승폭을 2℃가 아니라 1.5℃로 억제해야만 파국의 길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2021년 IPCC 6차 보고서는 기후 비상사태의 절박함을 도외시하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지구 기온이 지금부터 2040년 사이에 1.5℃ 이상 오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도자들의 정책은 지구촌의 기후 비상사태를 극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개최된 제26차 당사국총회(COP)는 환영할 만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27차 당사국총회(COP 27)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였다.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카오스를 만들 티핑 포인트를 향해서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기후 지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무총장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는 기회를 적극 선용하여 함께 싸워서 승리하자고 독려했다. 그의 희망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공허한 수사요 막연한 낙관주의일까? 최근 오존층 회복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는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1987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국제사회의 프레온가스 퇴출 결정과

국가들의 책임적인 실천 덕분이다. 전 지구촌을 아우르는 대규모의 도전에 대해서 국경을 넘어서 세계적 협력이 소중한 성과를 이루었다. 인류의 사심 없는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유엔 사무총장의 자세에 하나의 근거가 되어 주는 사례이다.

인류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신 30:19)라는 말씀대로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다. 기후위기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가장 큰 안보 문제’이다. 자연에 맞선 ‘제3차 세계대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약 45%에서 50%까지 급속히 삭감해야 한다. 이 짧은 기간 대한민국은 기후악당 국가에서 기후선도 국가로 전환하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더이상 정치와 경제 지도자들만의 과제가 아니다. 유엔은 폭력과 전쟁을 극복하는 평화 건설, 인권 보호, 팬데믹 극복 등의 영역과 더불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지구촌의 과제 전반에 있어서도 종교의 정신적 도덕적 리더십을 요청하고 있다. 유엔 소재지인 제네바와 뉴욕에 자리잡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회는 유엔 업무 네트워크에서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교회의 중요성을 확증하는 일에 계속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동시에 세계교회협의회회는 세계 각처의 교회, 기독교 공동체들과 기독교 기구들이 특히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제에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카이로스의 시점에서 2021년 우리 교단이 초교파적인 ‘한국 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참여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선구적 공헌이다.¹⁾ 이 로드맵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가 1차 목표 기간이다. 이 1차 목표 기간의 상반기가 끝나는 2025년에 세계교회협의회회는 최초의 에큐메니칼 공의회로 모였던 니케아 공의회(325년)를 기리는 1,70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뜻 있는 교회들이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길라잡이로 하여 세부적인 논의과정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목표 기간의 성과를 세계교회 네트워크와 공유한다면, 이는 지구촌 위기를 인류가 함께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 시대에 ‘K-교회’의 저력을 보여 주며 세계교회와 지구촌에 희망을 주는 소중한 공헌이 될 것이다. ‘K-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력과 영감을 공급하는 소중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교회는 한국의 인구 17~2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는 지역교회들이 싹틔줄처럼 퍼져 있다. 교회가 초록 발자국으로 살아가며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공부하고 실천한다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총체적 변화의 선구적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지역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시찰회, 노회, 총회, 평신도 조직, 연합기관 네트워크 등을 가동해서 집단지혜를 모아 교육과 토론, 실천과 행동의 허브가 된다면 교회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 출애굽, 곧 그린 엑소더스의²⁾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다.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탄소중립의 로드맵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길은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평신도와 청년의 배움과 성장, 참여와 리더십을 유도하는 개신교 만인사제직 실천의 길이기도 하다.

Ⅲ. 생태계 치유를 위한 교회의 과제

인류의 집인 자연과 생태계가 큰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시대의 표징을 읽고 국민 의식을 계몽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의 내적 역량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를 신음하고 있는 생태계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온 교우들이 새로운 신앙적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교육목회가 필요하다. 치유는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 과제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주님의 제자들이 상처 입은 이웃과 지구를 치유하는 길이 자신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함을 깨닫고 힘차게 치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회교육이 필요하다.

1. 새로운 관점의 성경공부와 녹색성서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서는 성서에만 복음을 남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들 위에, 꽃들과 구름과 별들 안에도 복음을 기록하셨다”. 성서가 ‘듣는 말씀’이라면, 자연은 ‘보는 말씀’이다. 우리는 특별계시를 강조하다가 일반계시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적색은총을 강조하다가 녹색은총을 경시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값 없는 은총에 감사하는 신앙과 창조세계의 은총에 감사하는 생태적·우주론적 신앙 감각이 이제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 십자가 영성과 생태영성 혹은 창조영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연을 관찰하고 묵상하는 생태영성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믿음과 사랑의 진리를 파악하셨다.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근원적인 생태영성을 엿볼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마 5 : 44-45).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마 6 : 26-29).

태양과 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이 모든 자연의 소재들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무조건적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생태영성의 우주적 학교였다. 생태영성을 기본으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후위기의 시대, 변함없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

갈릴리 농촌을 배경으로 살았던 예수님과 달리, 사도 바울은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신비를 만물, 곧 우주적 차원에서 파악하는 안목을 잃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고전 8 : 5-6).

부활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완성의 때를 종말의 비전으로 제시한다(고전 15 : 28).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엡 1 : 23). 만물의 위기인 기후위기 앞에서 바울의 우주적 그리스도론과 우주적 교회론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할 때, 교회는 개인에만 국한되

는 구원론과 개교회주의를 벗어나서 인류를 위해 일치된 거룩하고 사도적인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와 신앙운동의 범위를 재포착할 수 있게 된다.

기후붕괴라는 역사상 미증유의 상황과 직면하면서 2008년 서구 기독교인들이 새개역표준번역(NRSV)을 근간으로 하여 ‘녹색성서’(The Green Bible)를 출간하였다. 이 프로젝트에는 신학자, 저술가, 과학자, 교회 지도자, 기독교 기후운동 단체 대표, 평신도 활동가 수십 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칼 원칙에 입각해서 신학적 성향으로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고, 교파적으로는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를 다 포함하였다. 구약성서의 창조신학에 관해서는 유대교 신학자의 견해도 포함시켰다. 창조와 진화에 대한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 사람들도 함께 모였다. 성서 번역본들은 통상적으로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붉은색으로 인쇄하는 ‘적색 활자본’들이다. 녹색성서는 이런 관행을 변형해서, 지구의 환경 위기에 직면한 교회가 성찰할 수 있는 신구약의 말씀들을 녹색으로 인쇄하였다.

2. 녹색교회를 지향하는 교육목회

우리는 부지불식간 탄소 발자국을 만드는 탄소 중독, 화석연료 중독, 소비주의 중독의 생활방식에 매우 길들여져 있다. 우리의 이러한 집단적 관성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지구의 상처를 치유하는 안전한 생활 방식을 터득해야 한다. 여전도회, 남선교회, 청년부, 교회학교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녹색교회 십계명, 사순절 탄소금식, 생태달력 등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총회 사회봉사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환경연구소, 녹색교회 네트워크,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등 기후위기 시대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앞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길잡이 리더십들의 자원과 지혜

와 경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미 환경선교사, 환경교육사, 생태환경 사회 선교사 등을 세워서 교회 방향전환의 길라잡이 역할을 맡기는 교회도 있다. 이는 청년 양육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녹색교회를 지향하는 교육목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우들의 기독교적 가치관의 정립, 자발적 실천,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런데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들에 사로잡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다 써 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비본질적인 문제들의 노예가 되어서 관성대로 시간을 다 써 버리면, 우리와 후손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집단지혜를 모으고 연대하고 실천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가 없다. 탄소 중독의 습관을 해체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염원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

3. 기후정의와 생태정의를 위한 기도회와 축제마당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 사회적 의지, 정신적·영성적 의지 모두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공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삼 섹터인 교회와 시민사회가 도덕적 압력을 계속 부여하며 사회적 의지를 발현해야 한다. 기후위기 극복 과정이 사회적 안전망, 민주주의, 인간안보를 견실하게 하는 사회적 발전 과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어진 관성을 극복하는 노력은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이 특별한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기에, 총체적인 기후정의와 생태정의 수립을 위해서는 교회의 예언자적 상상력과 사심 없는 정신적·영성적 의지가

사회적 의지의 뿌리에 놓여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실을 보여 주는 기후위기사계를 건립하는 선구적 교회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깨우침과 응답을 촉구하는 이러한 뜻깊은 조치들이 대중의 불안과 두려움과 무기력을 심화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깊은 목회적 배려를 지니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교회는 기도회와 모임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 나눔과 교제, 찬양과 음악, 춤과 예술, 식탁공동체 등 하나님 나라 잔치의 행복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함께 변화를 창조하는 건설적 에너지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신앙적 축제의 마당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로운 예언자적 비전과 사심없는 아가페 사랑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축제의 마당, 교회의 공동체적 생활, 지속적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인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동시에 담대한 문명사적 전환을 위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에너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마 7:13-14).

IV. 생명과 평화의 문명을 지향하는 정신적·영적 대각성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다(롬 8:6). 기후위기 시대 교회가 생명과 평화의 새로운 문명을 향해 초록발자국을 힘차게 내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정신적·영적 에너지가 필요하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정도를 걷는 신앙운동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자연의 치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참회, 기도, 그리고 사랑이라는 신앙의 기본이 회복되어야 한다.

1. 회개(메타노이아)

신음하는 생태계의 치유를 위해서는 인간의 회개가 요청된다. 현대 세속사회는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둔감해져 있다. 예수의 복음 전파의 첫 외침은 회개하라는 요청이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5). 기후위기를 초래한 무분별한 자연 착취 배후에는 한계를 모르는 인간의 탐욕이 놓여 있다. 성경은 인간의 수많은 죄악 중에서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규정한다(골 3:5; 엡 5:5).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께서는 동시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눅 12:15)고 하셨다.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이기도 한 기후위기는 지난 수백 년간 인류가 편협한 인간중심주의와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함몰된 결과, 탐욕을 탐욕으로 깨닫는 분별력조차 상실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제 전통적으로 성스러움과 신비의 상징이었던 우주조차도 인간의 무한한 탐욕의 시장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인류는 지난 세기 참혹한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겪고서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다. 갈등과 분쟁을 대화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에서 그 둔감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민간인까지 포함한 무수한 인명 피해 발생에 대해 여전히 무감각하다. 참혹한 대량살상 무기인 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장착한 킬러로봇까지도 서슴지 않고 개발하고 있는 형편이다. 무기는 관계 단절과 증오의 표현 아닌가.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면서 ‘환경학살’인 전쟁과 군사연습을 지속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시 127:1).

과거 공상과학 픽션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현실화되어 가면서 인간

은 전지전능한 ‘호모 데우스’로 승격하고자 한다. 그러나 오늘날 기후위기는 스마트해진 인간이 실상 헛똑똑이임을 보여 준다. 어떻게 인류 생존의 기본이 되는 ‘집’의 붕괴도 예측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개발과 경제성장 제일주의로 질주할 수 있었던 말인가. 지구는 인류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자원을 지니고 있으나 탐욕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 유한한 세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흠에서 와서 흠으로 돌아가는 ‘호모 휴무스’의 겸손을 되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후위기는 생명과 자연에 대한 경외, 이웃에 대한 공감과 사랑이 겸비되지 못한 지식정보, 기술공학,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어떤 한계를 지니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기후위기는 그동안 집단적으로 인류에게 누적된 마음의 위기, 영혼의 위기의 결과이기도 하다. “죄와 악에 대한 투쟁은 각자 자신의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마틴 부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을 희생양으로 만들기 이전에 우리 각자 개인의 영혼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야 한다. “인간성을 변화시킬 생각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톨스토이).

신약성서의 언어인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마음과 영혼, 삶과 습관을 전적으로 전환하는 회개와 참회를 뜻하는 동시에 ‘더 큰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뜻도 지니고 있다. 우리 마음에서 적개심, 교만, 어리석음, 탐욕, 혐오, 냉소, 무기력, 무관심, 절망을 비워내고 세상의 빛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하여 성찰하고, 인생의 방향과 방식을 전환하는 겸허한 회개를 할 수 있을 때 더욱 진정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자기 비움(케노시스)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마음을 담는 노력이 있을 때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빌 2:5-11).

2. 기도의 중요성

상처 입고 신음하는 자연 생태계의 치유를 위해서는 인간의 영적·정신적·도덕적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소비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에서 돌아서서 소박하고 자율적인 삶, 감사와 자족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 기도야말로 개인적·교회적·사회적으로 죄와 악의 세력에 저항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통로를 만드는 궁극적 힘이다. 그런 엑소더스를 위해서는 뿌리 깊은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예수는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둔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권고한다(눅 21: 34-36). 기후위기 시대는 적극적 실천을 필요로 한다. 기도는 우리의 실천을 단순한 행동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되도록 심화시킨다.

우리 주변에는 질병, 경제적 타격, 관계의 문제 등으로 우리의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참 많다. 코로나 우울, 기후 우울, 생태 슬픔 등의 심리적 동굴에 갇혀 말 없이 무기력과 절망, 도피와 체념이라는 정서적 늪으로 빠져드는 이들도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절실하다. 우리의 기도는 개인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과 생태계를 위한 기도로 깊어지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통상적인 기도 생활은 찬양, 회개, 감사, 간구, 중보로 구성된다. 첫머리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와 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곧 아름답고 신비로운 창조의 선물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다. 자연이 인간의 소비재로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영성가들은 자연을 침묵 속에 응시하고 관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묵상기도를 강조한다.

3. 사랑의 힘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마 22:37-40; 막 12:29-31; 눅 10:27-28).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을 포함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과 후손의 생명을 사랑하는 길, 곧 본질로 되돌아가려는 선택이다. 일리아 델리오의 『울트라 휴머니즘: 지구 공동체 의식을 갖는 인간으로』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우리의 임무는 신성한 사랑의 힘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다. 다른 세상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성한 사랑의 힘은 어둠에 대한 사랑(스코토시스), 죽음에 대한 사랑(네크로필리아)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마음의 습관을 벗어 버리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따라가며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 생명의 힘을 복돋는 사랑에 대한 영성적 의지야말로 카이로스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의 공통분모가 되어야 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조시마 장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시오.

세상 모든 것들을,

모래 한 알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십시오.

나무 잎사귀 하나,

하나님의 햇살의 하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동물을 사랑하십시오.

식물을 사랑하십시오.

만물을 사랑하십시오.”

V. 맺음말 : 그린 엑소더스를 위한 대각성 운동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이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평화가 담겨 있는 말씀이다. 믿음은 고요하고도 단호하고 깨끗한 실천의 원천이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깨달음과 자기 정리와 헌신이 필요한 카이로스이다. 세상은 탐욕과 수동성이라는 어두움과 어리석음 속에서 낭떠러지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부지불식간 달려가고 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필요하다. 교회다운 교회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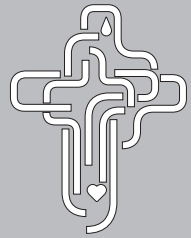
그린 엑소더스를 위한 새로운 영적·정신적·실천적 대각성운동이 필요한 이즈음에 교회의 선구적 공헌이 기대된다. 1907년 나라의 국운이 쇠망할 때 일어났던 평양대부흥 운동은 영적 대각성운동이었다. 민족이 주권을 상실한 고난의 시기에 이 땅의 풀뿌리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중적 고난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신앙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기반 위에서 기독교는 1919년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국교회는 조선의 독립, 동양과 세계의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서 민족적 리더십을 발휘하였던 3·1운동의 모체이다. 한편 21세기 초반에 한국교회의 저력은 2007년 서해안 태안 기름유출 사고를 극복하며 자연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

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되었다. 한국교회에는 지구촌에 선한 영감을 줄 수 있는 영적·정신적·실천적 유산의 맥이 흐르고 있다.

21세기 교회는 기후위기와 생물 멸종의 위기에 응답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성공적 실천을 통해서 국내 사회에 교회의 존재감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세계교회와 지구촌에 선도적인 영감을 주는 공헌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나이브한 낙관론이나 무책임한 비관론에 빠지지 않고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주님의 제자다운 삶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지혜와 연대를 강화하는 교회의 연합된 리더십이 요청된다. 교회가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증언하며 영성적·목회적·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이다.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터전이신 주님 안에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신음하는 피조물을 치유하는 변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시대의 표징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이 글은 2022년 2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 설명회 및 협약식”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을 위한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기후위기와 교회의 책임 : 성서적·신학적 이해”에서 내용을 발췌하고 수정·보완하였다.

- 1)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준비위원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예장 총회 사회봉사부, 기감 본부 선교국, 기장 생태공동체운동 본부.
- 2) 이진형, 『그린 엑소더스 :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전환과 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엮음(서울 : 삼원사, 2020).



제4부

설 교

1.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출 15:26):안맹환 목사
2. 평강의 하나님(살전 5:23):이정원 목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 : 26)

안맹환 목사(부산 / 땅끝)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출 15 : 26).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말미암은 팬데믹을 겪고 이제 포스트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았지만 개인과 사회는 물론, 신앙공동체인 교회 역시 만만찮은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 분열과 갈등, 인구절벽, 환경과 기후위기, 그리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로 인해 신음하며 피폐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오늘의 상황은 애굽 왕의 억압과 학대, 고된 노동으로 인

한 고통의 탄식 소리와 부르짖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했던 상황과 본질적으로 흡사합니다. 또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 길을 걸으며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반응, 그 민낯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과 탄식,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셨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뜻과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방해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열 가지 재앙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곳을 마른 땅같이 밟고 건너가는 꿈 같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넌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길에 들어섰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이 지나자 그들이 가진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물론, 데리고 있는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흘 동안 그들은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출 15:22). 그러다가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겨우 얻은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쓰다, 괴롭다’고 해서 그곳을 ‘마라’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출 15 : 22-24).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보여 줍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바로와 애굽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선행과 인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황이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자신들은 물론, 함께 데리고 있는 가축들도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쓴 물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라고 할지라도 종종 마라의 쓴 물을 만나고 또 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라와 같은 쓴 물을 만나게 될 때,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출 13 : 21). 그들은 그동안 많은 기적을 보았고, 또 그들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정이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마라, 쓴 물로 인도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야 할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출 15 : 25).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보여 주셨고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져 넣으니 그 쓴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먹고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달게 하신 후에 있었던 일을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출 15 : 25 하)라고 기록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 이 시점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계명인 십계명을 받기 전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음을 말하거나, 곧 시내산에 당도하면 이루어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에 관한 말씀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면 애굽인들에게 내리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출 15 : 26).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단물로 만든, 일명 마라 사건의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본문은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떠한 질병도 그들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각종 질병을 내리셨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질병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의 치료까지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온갖 질병으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 사건과 그 서사는 구원과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본문은 출애굽의 하나님, 곧 구원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의 책이자 치유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과 치유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자 치유의 종교입니다. 또한 교회 역시도 구원의 공동체이자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구원과 치유는 떼어놓을 수 없고,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소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구원의 경험이자 곧 치유의 경험입니다. 구원의 경험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죄와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되어 전인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로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치유의 경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고통, 심리적 상처, 육체적 질병, 감정적, 영적 문제 등과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치유하십니다.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점점 주님을 닮아 가게 되고, 이 성화의 과정은 치유되고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의 종이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루실 구원과 치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 : 3-5).

과연 그 약속과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병을 고치

는 능력을 가지셨고, 자신으로 인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한 증거로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 4 : 23).

복음서의 증언처럼 치유는 가르침, 복음전파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치유자임을 분명히 하시며 자신의 공생애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삼일에는 완전히 여지리라 하라”(눅 13 : 32).

또한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에서 부르시고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마 10:1, 8; 눅 9:1-2, 10:9), 제자들 역시도 주님처럼 치유사역을 했습니다(막 6:12-13; 눅 9:6).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치유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막 16:17-18). 이와 같은 일이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말미암아 제자공동체인 초대교회에 분명히 나타나고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사역을 이어받아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행 3:6, 5:12-16, 8:7, 9:17, 9:32-42, 14:8-10, 16:18, 19:11-12, 20:9-12, 28:8-10). 이러한 초대교회의 치유 사역으로 인해 특히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인 병 고치는 은사는 물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라는 직분까지 생겨 바울 사도가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고전 12:9, 28-30).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출 15:26, 호 6:1)이십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이적의 절반 가량은 치유 이적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의 몸인 교회는 그분이 보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치유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는 교회에게 약속된 이적과 치유 사역은 계속되고, 성령께서는 교회 가운데 주신 권능과 치유의 은사를 통해 우리를,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구원과 치유는 거저 주시는 은혜이며, 또한 세상에 나누어야 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옛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 즉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를 보내셨듯이 바로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를 갈망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다시금 기억하고 깨달아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우리가 치유 받고 또한 치유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출 15 : 26).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 종노릇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상징적으로 홍해를 건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에 노래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출 15 : 13)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홍해 사건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세례로 이해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고전 10 : 1-2).

세례란,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 그 이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순종을 강조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요 17 : 17).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루어 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 먼저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는 따르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내리신 질병을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전 10 : 10).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 원망의 결과가 ‘멸망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원망의 문제는 단지 신앙의 미성숙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성숙을 넘어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홍해를 건넜지만, 그 원망으로, 즉 불신앙으로 결국 광야에서 죽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특별한 배려입니다. 우

리가 평상시에는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라의 쓴 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드러내는 반응과 태도에서 우리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를 배우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실력, 즉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종종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심으로써 시험하십니다(출 15:25).

그러므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출 15:25).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다르게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능히 할 수 있었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보여 주셨고 그 나무를 물에 넣으니 쓴 물이 달게 변화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쓴 물을 단물로만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과 입술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망 대신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셋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출 15 : 25).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 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넣으니 쓴 물이 달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특별한 효능을 가진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적이자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실재가 있는 사인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한 나무를 던져 넣었을 때 쓴 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무엇을 예표합니까? 성경에서 ‘나무’를 가리킬 때 가장 중요한 상징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나무, 즉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명기 21 : 23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 : 13).

또한, 베드로 역시 이사야 53 : 5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

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 : 24).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인생에서 만나는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나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나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 바로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해 줄 뿐 아니라 변화시키시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마라를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변하게 해 주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마라, 인생의 모든 쓴 물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라, 즉 고통을 견디고 소망을 품으며 기다리게 하는 치료제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야고보를 통해 교회공동체의 치유 사역과 목회적 치유에 관하여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약 5 : 13-16).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림은 그야말로 큰 오아시스였습니다. 거기에는 열두 개의 샘과 칠십 주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12와 70이라는 숫자가 엘림의 완전하고 풍성함,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 엘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림은 마라의 완성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림도 분명 광야입니다. 그곳에 영원히 안주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작 한 달 남짓,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보다 마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림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마라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라가 언제나 ‘쓴 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원망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마라를 지나면 곧 엘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The Best is yet to come).

평강의 하나님 (살전 5 : 23)

이정원 목사(서울강북 / 주하늘교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 : 23).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항상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분쟁과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터전으로 여기는 교회 안에도 분쟁과 불화가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서 생명이 군집을 이루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쟁(competition)입니다. 비슷비슷한 개체들끼리 먹이를 두고 다투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둘째, 포식(predation)입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힘이 센 놈이 약한 놈 잡아먹고, 약한 놈은 잡아먹히는 걸 자연의 이치나 운명으로 여기며 사는 군집 내 상호작용의 방식입니다. 셋째, 공생(symbiosis)입니다. 라틴어 ‘symbious’(심비우스)입니다. 숭실대 구미정 교수가 쓴 『호모 심비우스』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머리 좋다는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가 분리와 단절, 지배와 복종의 세계관을 유포시켜 마침내 천지 만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면, 이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계관은 연결과 소통, 공존과 연대의 그것이 아니겠냐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싶었다. 그런 세계를 꿈꾸며 열어 갈 사람은 필경 더불어 삶의 지혜를 아는 신인류, 곧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us)여야 하리라.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마다 앓고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 군상들이 그야말로 홀연히 하늘의 은총을 입어 더불어 살 줄 아는 인간으로 거듭날 때 이 지구는 얼마나 다른 세상이 될 것인가? 소유를 넘어 나눔으로, 지배를 넘어 섬김으로,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맞서 사는 새 사람, 호모 심비우스야말로 성서 기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담고자 했던 본뜻이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 속에 진정으로 담겨 있어야 할 것은 호모 심비우스입니다. 악어와 물새도 공생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카시아와 개미도 공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 공생하지 못한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는 “박쥐, 사향고양이, 낙타 등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에게 먼저 다가가 동물들 생활을 방해한 인간들

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 호모 심비우스로”라는 강연에서 “인간들이 잘 살고 있는 박쥐 서식지를 침범하고, 악어 고기, 얼룩말 고기 심지어 유인원 고기까지 파는 식당이 버젓이 런던,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병원균 숙주는 인류에게 뛰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비우스는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논어 자로(子路) 편에 보면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화(和)하는 사람이라. 서로 다른 음이 겹쳐져 화음(和音)이 되고 조화(調和)를 이뤄 내는 것처럼, 군자는 같지 않다고 해서 잘라내고 쳐 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르지만 조화를 이뤄 낼 줄 아는 사람이다. 반면에 소인은 ‘화’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결국에는 다 같은 것인데도 자꾸만 다르다고 하고, 이편저편을 가르면서 불화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소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나’라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공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남녀가 어찌 적이란 말입니까? 노소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부자와 가난한 자,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공생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와 자연 만물이 공생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20:1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을 주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살후 3 : 16).

평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평강에는 적어도 네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우리는 근원적인 평강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생기는 내적인 평강입니다. 셋째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넷째는 환경을 초월하는 전천후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평강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강을 만드는 방법을 빌립보서 4 : 4~7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 평강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는 영적 뇌졸중 환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뇌졸중에 관한 간단한 진단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지럽다고 하며 순간 몸을 잘 가누지 못하면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세 시간 안에 처치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거나, 반신불수가 되는 것이 뇌졸중입니다.

혹 주변에 그런 증상을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다음의 세 가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웃어 보세요”(Smile), “말해 보세요”(Talk), 그리고 “두 팔을 올려 보세요”(Raise)로 긴급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여 속히 처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이후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 시간이 골든 타임입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행동(Smile, Talk, Raise)은 곧 웃으며 노래하며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생명력입니다. 기쁨은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나는 행복해야 합니다.

2. 평강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관용’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대인관계 중 평강을 만드는 비결은 관용입니다. 관용의 원천은 재림신앙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무슨 분쟁, 미움, 시기, 질투가 필요합니까? 목회를 해 보니 목양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목자가 양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을 목양하는 길은 참으로 더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든 양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참 힘든 교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명색이 집사인데 참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모 집사의 가정에는 아내와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술만 마시면 아내와 남매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포악을 일삼는 자였습니다. 그 결과 그 가정의 식구들은 다 우울증 환자들이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죽인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부인 집사님은

참 착한 분인데 그 모진 고생을 다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들은 아빠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가정이었습시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술만 먹으면 새벽 2시쯤 저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별 포악한 욕을 다 쏟아 놓습니다. 아주 못된 언어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참 모진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못된 것은 식구들도, 교인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술이 깨어 주일에 교회를 찾아온 집사님은 저를 보면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주일이 되면 부인 집사님이 불쌍한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받은 아이들이 안정을 찾곤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술을 먹은 아버지의 폭력 앞에 속수무책이곤 했습니다. 그러면 또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 목사, 네가 지난 주일 기도했어도 우리 애들이 낫지를 않아. 너 능력도 없어.” 이런 조롱은 참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술만 먹으면 걸려 오는 전화, 언어폭력, 피곤함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친 말 한마디가 ‘해남백천’(海納百川)입니다. 바다는 백 개의 개천물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지요. 중국이 최초로 통일된 것은 BC 221년 진(秦)나라 시황 때였습니다. 척박한 서쪽에 위치해 가장 뒤떨어졌던 나라가 어떻게 수많은 나라를 제압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진나라의 동쪽 진출은 역대 왕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국력을 키웠고, 무엇보다 유능한 인재 등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천하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춘추전국시대에 강자로 등장한 진나라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인재를 끌어모으고 척박한 땅을 개간하기 위해 이웃 한(韓)나라에서 정국(鄭國)이라는 토목 기술자를 초청하

여 국토의 이곳저곳을 연결하는 수많은 수로 공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진나라의 국운이 걸린 이 중대한 역사를 진나라 출신 신하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정국이 진의 국력을 소모시키기 위한 밀령을 받고 온 첩자로 밝혀지자, 진나라 출신의 신하들은 진시황에게 고하기를 정국뿐만 아니라 진나라의 조정에서 일을 하는 외국 출신의 다른 신하들 또한 적국의 첩자일 수 있다고 간언했습니다. 이에 진시황은 급기야 “다른 나라에서 온 모든 객을 쫓아내라.”는 이른바 축객령(逐客令)을 내렸습니다.

이때 통일된 이후 진나라의 재상에 오른 초나라 출신의 젊은 신하인 이사(李斯)가 진시황에게 축객령을 거두라는 ‘간축객서’(諫逐客書)를 올렸습니다. 그는 대담하게도 “진나라 왕궁을 장식하는 곤산의 옥(玉)을 비롯한 수많은 보물과 후궁에 있는 술한 미녀들도 모두 원래부터 진나라의 것이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는 또한 “태산이 큰 것은 한 줌의 흙도 뿌리치지 않았음이고, 강과 바다가 깊은 것은 작은 물줄기라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간언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해남백천’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롬 15 : 7).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우리는 더럽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대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받아 주라. 받아 주라.”

저는 목양을 하면서 이 말을 수없이 생각합니다. ‘바다 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다 받아 주자. 육을 해도 받아 주자. 죽인다고 해도 받아 주자. 무조건 받아 주자.’ 그리고 새벽기도 후 40일간 모 집사님의 집에 가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변화된 집사님의 모습을 남겨 놓고 저는 지금의 교회로 목회 임지를 옮겼습니다. 교인들은 “왜 그런 사람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 주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든지 다 받아 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받아 주자. 받아 주자. 주님도 나를 받아 주지 않으셨던가?”

하나님께서서는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저를 보내어 평화의 사도로 쓰고 계십니다. 싸움이 있는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흥강사로 보내어 아픔을 치유하게 하십니다. 우리 노회의 교회 수십 곳 이상의 부흥회를 인도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상처가 있는 교회를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아픔이 있는 우리 노회를 평화롭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외쳤던 아들은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양의 길은 ‘해남백천’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처럼 상처투성이의 백성들을 받아 줌으로 치료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상처의 소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받아 주면 됩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3. 평강을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이 염려가 많아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대인관계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유일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감

사의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초대 교부인 크리소스토스는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황금의 입’이란 별명을 가진 교부였습니다. 그는 “죄 중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즐겁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은 이미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게 감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원망만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과거만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울음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평강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 기쁨, 이웃과 관용,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평강을 만들어 갑시다.



이 책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108회 총회주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해설서로 출간된 것이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인쇄 · 2023년 9월 15일 / 2023년 9월 20일 · 발행

편집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주제연구위원회

발행
발행인 · 박 창 원
발행소 · 한국장로교출판사
주소 · 03128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4층
(연지동,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전화 · (02)741-4381/(F) 741-7886
등록 · No.1-84(1951. 8. 3.)
Printed in Korea

값 5,000원